

수효사효림원 이사장 무구 스님
"효 받기 위해선
효 가르쳐야죠"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16일) · 주간

제 971호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선림보훈〉

일의 성패에 따라 신념을 바꿔선 안된다
일상 속에서 옳음을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둬야 한다.

서울시 전통사찰 역사문화 자원화

서울시, 전통사찰 주지 간담회… 4대 과제 제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과 역사문화 자원화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종로 조계사 안심당에서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서울시전통사찰보존위원장 정념 스님 등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4대 추진과제로는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 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진과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6~9월 서울 소재 전통사찰 58곳을 직접 방문해 사찰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전통사찰들은 개발행위 제한 완화와 주변시설 정비, 문화재 연구,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등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세부 역점사업들을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계획들이 적지 않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사찰 주간(WEEK)이다. 이를 위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전통사찰 보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전통사찰 오픈하우스와 권역별 · 주제별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한 전통사찰 관광자원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사찰

사찰 주간, 스토리 텔링 등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해
관련 법령 일체 정비 약속도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보 코스 개발 △사찰음식 · 다례 체험기회 확대 △템플스테이 활성화 △견지동 일대 전통사찰 종합문화공간 구축 △서울시 사찰 고유축제 활성화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불교계 주도로 전통사찰 문화자원 연구 활용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서울시가 행정을 지원하며, 전통사찰의 민원과 행정



서울시는 12월 10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서울 전통사찰 주지 스님 간담회를 열고 전통 사찰 보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담당자를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통사찰 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 사업에 대한 개선과 화재보험료 분담, 주차공간 확보, 등산로 인접사찰 화장실 정비, 전통사찰 고유 안내표지 설치,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연공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와 보전분담금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비오톱(생물군집 서식공간) 1등급지 가운데 실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가능한 곳은 등급을 조정하며 서울시 전통사찰의 향후 역할 확대를 고려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진행한다. 또한, 전통사찰 관련 정책과 제안, 모니터링을 위해 전통사찰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전통사찰이 함께 노력하면 서울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며 "전통사찰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방문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TV · 라디오, 전면 변화하는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이 TV 불교 종합뉴스를 본격 출범하고 라디오 계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포교 강화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공중파 방송을 지향해오던 불교방송이 불교매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계의 소식을 충실히 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BBS TV는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불교계 소식을 총망라한 종합 뉴스 'BBS 뉴스'를 첫 방송한다. BBS 뉴스는 매일 오전 7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20분간 방송되며 주말 토요일은 같은 시간에 30분 동안 방송된다.

양봉모 보도국장은 "보도 제작 분야 등에서 새 인재를 영입하고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해 불교뉴스 강화에 나섰다. 불교방송이 불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BBS 뉴스는 남 · 여 전문 아나운서 2명을 영입 불교계 현장 뉴스를 전한다. 특히 지상파 언론사로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세종청사 등에 출입해 온 노하우를 살려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양 국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일반 사회적 현상을 교계 내부에 적용시키는 뉴스를 발굴 새로운 스타일의 불교뉴스를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교뉴스 프로그램 개설의 의지를 전했다.

또한 BBS TV는 불교 뉴스 강화와 함께 정통 불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

BBS TV 불교 뉴스 강화 다큐 추가 편성

라 디 오 노인 · 다문화 등 계층 포교 확대

한다. 고품격 사찰 탐방 다큐멘터리 〈그 절에 가고 싶다〉 〈선지식 법회 시리즈〉 〈BBS 다큐 포커스〉 〈BBS 다큐 스페셜〉 등을 개설한다.

라디오 역시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을 신설해 애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BBS는 불교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블록화를 통해 경전 읽어 주는 라디오 '경전의 숲을 거닐다(진행 이미령)', 청소년 프로그램 '네 꿈을 펼쳐라(진행 자용 스님)',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 '지금은 실버시대(진행 황남채)',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는 한가족(진행 정준영)' 등이 신설 불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박상필 편성제작국장은 "그동안 불교방송은 뉴스 교양 포교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방송을 해왔지만 고유의 색깔을 갖지는 못했다. 이번 개편은 불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했다. 불교 내부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불교방송 고유의 색을 찾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도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전했다.

한편, BBS TV는 세계적인 IT기업 애플사의 IPTV네트워크를 통해 12월 12일 0시부터 해외송출을 시작했다. BBS TV는 애플에 런칭한 유일한 한국어방송국 KORTV와 파트너로 활동하기로 계약하고 앞으로 국내방송과 똑같은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애플TV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앞으로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소개를 비롯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말 방송 시상식서 '하나님께 영광' 자제해야"

종평위 방송사에 자제 요청 공문 발송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 멘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특정 종교 언급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자제 요청에 나섰다. 종평위는 12월 10일 연말 시상식 시즌을 맞아 KBS MBC SBS 등에 '종교간 화합을 위해 종교적 신념 표출 자제 요청'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매년 연말 각종 시상식 방송에서 수상자들 중 일부가 특정 종교적 발언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려 표출하는 것은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구요" 등의 발언으로 특정 종교를 언급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종평위의 판단이다.

이에 종평위는 공문 발송을 통해 각 방송사 시상식에 참여하는 수상자들에게 특정종교 발언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 표출에 대해 개개인에게 사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종교인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한편, 종평위는 서울시, 안동시, 제주시, 동두천시, 보령시 등에서 설치한 성탄트리의 십자가 설치에 대해서도 이를 자제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다. **정혜숙 기자**





국보 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오른쪽 사진〉. 1층 탑신부에 틈새가 벌어져 붕괴 위험이 제기됐다.〈왼쪽 사진〉

붕괴 위험에 빠진 정림사지 5층 석탑

국보 9호인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 국보 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5층석탑은 백제 7세기 중엽 세워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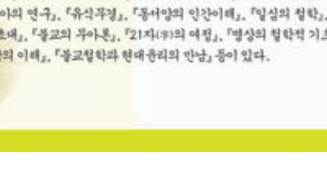
사학자 홍재선 씨는 "지붕돌받침의 두 돌이 수평이 아니기에 4층 옥개석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4층 옥개석이 무너져 내려 1층 옥개석이 크게 파손된바 있다.

김종오 부여군고도문화사업소 문화재정책담당은 "현재는 안정화가 된 상태로 기울기 측정 등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측정되고 있다"며 붕괴 위험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971호 INDEX

시방세계 5
신년 해맞이 템플스테이 현황



종합 2·3
템플스테이 효과 과학적 증명한다
'젠테라피' 어떻게 봐야 하나
역사왜곡 소설 문학상 수상 논란

신행 포교 6
조계종 경승 활성화 세미나

강의실 중계 8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우진 스님

학술 문화재 9
월정사, 출토 유물 소유권 소송 승소

생활속의 금강경 24
금강경과 달마상법-김선형 교수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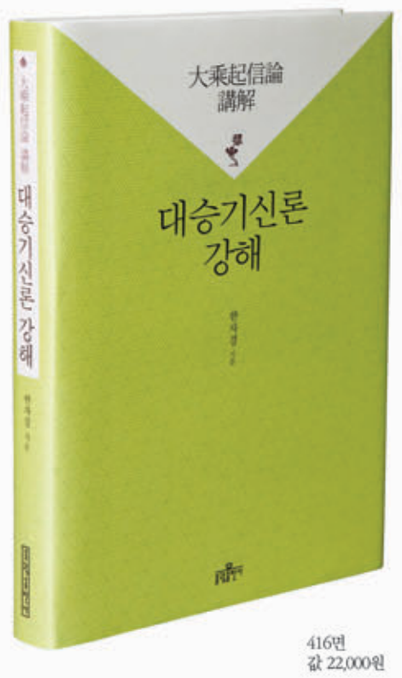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및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비교하면서
『대승기신론』을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강해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해설,
다양한 도표, 명쾌한 문장 등이 돋보인다.
- 불교출판문화상 심사위원 심사평



대승기신론 강해 大乘起信論講解

한자경 韓慈暻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만프레드 부르)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연구)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색』, 『자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지(支)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해별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416면
값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습관적인 성향은
오래된 친구처럼 계속 돌아오는 것,
과거의 회상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나쁜 습관은 강하고 기만적이지요. 그것은 무수한 과거 생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강하며, 매력적인 모습 속에 숨어서 당신을 몰락하게 만들기에 기만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수행에 있어서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은 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친절하신 스승의 자상함으로 인해 신심이란 봉우리, 열의, 인내의 새싹이 마음에서 돋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혹독한 외부상황에 약합니다. 마치 경험 없는 풋내기가 훈련된 용병과 맞서는 것과 같아서,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고 경쟁자를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등 끝도 없는 이러한 세간의 행위들을 따라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어렵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쁜 습관에 무릎 꿇으면, 이미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후회만 가득한 채로 다음 생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마치 상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보를 사소한 액수를 받고 마구 팔아 버리고 파산과 함께 막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지속적인 훈련만이 당신의 수행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효과, 과학으로 증명

문화사업단·서울대, 10일 협약식
뇌건강, 변화 등 연구 진행
2015년까지 2개년 장기 연구사업
청소년 · 직장인들 3박 4일 체험 후
뇌영상 등 변화 관찰… 후속 관리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과 서울대 의대 정신의학교실 권준수 교수가 12월 10일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에 대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 대표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치유효과를 줄 수 있을까. 템플스테이의 심신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12월 10일 '템플스테이 심신 치유 효과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템플스테이가 지닌 심신치유적 기능을 임상학적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템플스테이는 지난 11월 발표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정신건강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15년 12월까지 장기간 연구 사업에 들어간다. 연구는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이 맡았으며, 성인 직장인과 13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대상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어 설문과 체험 후 뇌영상 촬영, 혈액 검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3개월 간의 추적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헌과 설문, 심층 인터뷰 등에 그친 반면 이번 연구는 임상실험을 통해 템플스테이가 심신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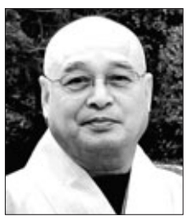
템플스테이의 심신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정신건강부문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될 전망이다. 연구에 따른 데이터는 심신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학술지 논문 게재로 이어진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휴식과 명상 등 단기 체험인 템플스테이가 심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시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을 위한 사회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은 "경제부진과 전쟁, 환경변화 등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통의 화두"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전하는 불교적 생태주의, 명상과 건강한 식습관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삶의 지혜를 전할 계획"이라고 뜻을 전했다.

연구를 맡은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명상 등 한국적 수행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긍정적 연구 결과가 도출돼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종회의장에 혜공스님 당선

호법원장 운곡스님, 부의장 자운 · 지홍스님
태고종 내년 예산 53억7천만원 확정
교육부원장 신설…부채 청문회 추진


혜공 스님


운곡 스님

태고종은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제 112회 정기회에서 45표를 얻은 혜공 스님(前 종회 수석부의장)이 제 13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회의장 선거에는 기호 1번 혜공스님과 기호 2번 상하스님(前 종회차석부의장)이 각각 입후보 했다. 또한 종회 부의장에는 자운 스님(재단법인 대자원 이사장)과 지홍 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이 당선됐다. 이어 호법원장에는 운곡 스님(前 호법원장)이 재임됐다. 이외에도 호법부원장에는 상묵 스님(흥덕암 주지)이, 총무원 부원장에는 운설 스님이 선출됐다. 이외에도 총무부장에는 재홍 스님, 재경부장에 지관 스님, 규정부장 지담 스님, 문사부장에는 성인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오후에 열린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억 718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종법 개정을 통해 총무원에 교육부원장 직제와 홍보부, 전법사부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또한 태고종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가칭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신설과 '태고종 발전위원회'도 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태고종은 중앙종무기관 재편도 추진한다. 지방교구의 역량과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지방교구종무원을 1시도 1교구로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총무원 측은 설명했다. 교육 사업안을 보면 승려 연수교육 체계 및 커리큘럼 개발, 선암사 정수원을 재운영해 출가 득도 전 3개월 의무 입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계별 승려 의무금 조정안도 여론 수렴 후 시행할 계획이며, 단기출가 프로그램 운영, 영산재 전문기능인력 양성, 중앙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종회는 총무원 직제에 교육부원장을 두고, 홍보부와 전법사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현재 태고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종단 부채문제를 위한 특별청문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스님 이사 발전기금 내세요"

종관위, 91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 이하 종관위)가 학교법인 동국대 스님 이사들에게 발전기금 이행을 촉구했다.

종관위는 12월 12일 제91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스님이사 9명에게 발전기금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종관위 제반사항 논의의 건'을 상정한 종관위는 동국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난 뒤 이어진 질의에서 동국대 스님이사들의 의무 실행을 주장했다.

사무처 관계자가 파악한 발전기금 납부누계현황에 따르면 삼보, 명신 스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 이사들이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오심 스님은 "1년에 5000만원 발전기금 약속을 못 지키면 이사를 사퇴해야 한다"며 "동국대 총동창회장인 이연택 이사가 스님이사를 줄이자는 정관개정을 요구 중이다. 스님들 위상이 떨어졌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이사들의 발전기금 납부를 촉구한 종관위는 1월23일 예정된 동국대 이사회에 복수 추천했던 이사후보에 대한 결정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관위는 중앙승가대 법인인 승가학원에 1년 넘게 공석인 총장을 이른 시일 내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장학위원회 새 장학승 20명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 12일 '2013년 제2차 장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종단 장학승 20명을 확정했다.

장학위원회는 국내 부문에 일안 스님(고려대 대학원, 비구), 혜인 · 현우 · 무각 스님(동국대 대학원, 비구니), 재마 · 지민 스님(중앙승가대학원, 비구니) 등 6명을, 해외 부문에 혜융 스님(독일 함부르크대), 법장 스님(일본 하나조노대), 원걸 스님(중국 칭화대), 덕일 스님(미국 버지니아대, 이상 비구), 법전 스님(영국 킹스턴대, 비구니) 등 5명을 선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찰승가대학원 부문에는 만경 · 선안 스님(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법이 · 보적 스님(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이상 비구), 법연 · 성담 · 초은 · 우담 · 성진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이상 비구니) 등 9명이 선발됐다.

신중일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젠 테라피’, 불교 禪과의 관계는?

불교상담학회 ‘젠 테라피’ 주제 세미나 개최

최근 ‘힐링’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선’과 ‘명상’ 역시 유행의 큰 물결을 타고 있다. 인도 명상에서 시작된 명상 붐은 치유의 바람을 타고 불교 명상으로 번졌으며 다시 ‘선’의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선사상에 입각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젠 테라피(선치료)는 한국에까지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과 선, 젠 테라피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양자의 목적과 방법론은 같을까, 다를까. 또 불교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가 동국대 불교상담연구소(소장 안양규)와 공동으로 12월 7일 개최한 제6회 불교상담심리학회에서는 불교와 ‘젠 테라피’로 대표되는 선치료의 관계가 고찰됐다.

젠 테라피는 붓다의 가르침

이날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는 ‘젠 테라피’가 불교에 근거한 치료이며, 치료과정에서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기법을 방편으로 응용하고 있기에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성 교수는 40여년간 젠 테라피 보급에 나서고 있는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와 2010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선치료전문화 과정을 거친 이 분야 국내 전문가다.

김 교수는 ‘젠 테라피 어떻게 볼 것인가? – 불교학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통해 “젠 테라피는 이론적 배경으로 무아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심리학을 하고 있으며 연기법에 의거해 자기 주변과 대화로서 회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료라는 느낌, 범부가 범부를 대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데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교수는 일반적인 상담치료와 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먼저 공통점을 불성과 인본주의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인본주의 심리학 대표자 칼 로저스의 상담과 선치료의 유사점은 내담자의 잠재력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차이점으로 “로저스의 상담이 내담자의 준거 안에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비해 선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에서도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다르다”며 “선치료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는 원리에 입각해 동료의식에서 오온의 순환과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 실재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심리치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일선 사찰에서 진행되는 간화선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간화선을 체험하고 있다. 간화선도 심리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곡 가능성도… 체계 정립 필요

이에 대해 안양규 동국대 박사는 논평에서 “선치료를 주창한 브레이저 박사가 불교교리를 새롭게 해석해 일상생활과 상담상황에 적용하려는 방식은 불교 핵심 교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충돌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선치료는 선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반적인 사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최근의 흐름이 자칫 불교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고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흐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치료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불교사상을 응용분야로 확대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도 “1970년대 인도명상과 단학, 1990년대 위빠사나, 2010년대 선을 포함한 다양한 불교 명상의 시대흐름이 있다”며 “초기불교에 기반을 둔 위빠사나를 적극 수용해 간화선 체계로 통합하고 그 응용법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교종책 현실화 위해 현장과 소통”

조계종 포교원, 자문회의 연이어 개최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위원회와 포교연구위원회 등 자문회의를 연이어 열고 포교종책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 집행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문제제기 등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포교위원회 회의와 포교연구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계층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 스님 “분야별 협력 강화”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원 종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포교부장 출신의 중앙종회의원 일관 스님은 포교위원회 회의에서 “큰 행사마다 총무원과 포교원의 협조 공문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포교원의 공문은 참고자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일선 사찰, 특히 교구본사와 연계해 포교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포교위원장 동광 스님은 “포교는 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상 다른 종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연구위원회에서는 계층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법혜 스님은 “사회 노령화에 맞춰 49재를 비롯해 상장례와 관련된 포교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포교 프로그램 연구를 포교원 측에 주문했다.

윤영희 포교차장은 “외부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내년 포교 종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중장기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 각 분야의 협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략적인 포교 수립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율 스님 내성천 공사 중지 소송 제기

법률적 검토 관련 세미나서



“영주댐 중지 가처분 소송은 영주댐이 내성천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관련법령에 의거해 그 책임 소재를 묻으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래 예측하고 증거를 제시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율 스님이 영주댐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12월 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내성천 개발계획 철회를 위한 법률적 검토-내성천 보존을 위한 집중 토론회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율 스님〈사진〉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불과 100여일의 환경영향 평가 기간을 거치며 계획된 영주댐은 발원지인 물야에서 60km 지점인 내성천 중류에 세워지며 영주댐이 완공되면 19km 구간, 10.4㎢의 유역이 물이 잠기게 된다. 인체로 비유하면 허리가 끊기는 형상이며, 화상으로 비유하면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3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앞으로 소송 과정을 통해 내성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법률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스님은 “천성산과 새만금 소송에서 보아왔듯이 시행처가 정부이고 시공사가 대기업일 경우 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만큼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벽이 높다고 해서 분노 하며 담벼락 밖에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심정으로 스님은 소송의 방식을 선택했다. 스님은 “정부의 계획대로 영주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19km의 강변은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문제와 법률적 검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권했다.

스님은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담합을 행한 시공사 삼성건설의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 하천 지형의 압축파일 내성천(오경섭 한국 교원대 지형학 명예교수) △내성천의 생태적 가치-(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학 교수) △내성천에 깃드는 새들, 습지의 가치-(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의원) △내성천의 가치와 법률적 문제- 지율스님 등의 순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정혜숙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장 현안 책임지고 사퇴

7일 제5차 지부장회의서

스님들의 시국선언 비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원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사퇴했다.

원유자 회장은 12월 7일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제5차 지부장회의에서 성명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불련 총동문회는 백효흠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당초 지부장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논의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부장들이 성명서 사태에 대한 해명 없는 회칙 개정에 대해 반발하며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원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

이에 앞서 원 회장은 11월 29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과 함께 실천승가회가 주도한 ‘불교 승려 1012인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회는 1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 폄훼 소설, 지자체 문학상 수상 논란

합천 다라국문학상 수상작 ‘황강’… 문제 제기 잇달아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고, 불교를 숭상했던 신라 법흥왕의 종교 박해로 가야가 멸망했다는 내용의 소설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문학상에 수상작으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2월 5일 제1회 다라국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작에는 소설가 표성흠 씨의 〈황강-다라국의 발원〉이 선정됐으며, 현재 심사를 주관한 출판사 문학나무에서 소설을 발간해 전국 주요서점에 배포됐다.

문제는 표 씨의 소설 내용이다. 표 씨는 일부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 전래설을 기반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지역 문인들은 “가야와 다라국을 기독교 국가로 상상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불교 국가인 신라 진흥왕의 종교 박해로 멸망했다고 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라 진흥왕은 가야의 건국 신앙인 신당을 부수고 장로를 살육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소설가 표 씨가 작품 말미에 쓴 에필로그를 보면 합천 박물관 학예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도 초기 기독교 전래설을 바탕으로 했음을 기술해 놨다. 표 씨는 “신라의 마의태자의 전설은 신화에서 역사가 됐다”

‘가야=기독교 국가’ 묘사
후기도 의도성 역사 왜곡
군청 “내용 모른다” 일관

면서 “다라국 마지막 성광태자 이야기도 신화에서 역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하창환 합천군수는 뒤늦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한 문학상에서 작품 개요 한번을 행정책임자가 살피지 않고 수상작을 선정해 출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1회 합천 다라국문학상 수상작인 소설가 표성흠 씨의 〈황강- 다라국의 발원〉.

이에 대해 합천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문학상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역사 자체를 날조한 것이다. 문학의 범주를 벗어났다. 동북공정은 논리라도 있지만 이는 무지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며 “본사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경 고 합 니 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법왕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법왕추대식을 봉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에서는 공동으로 추진한바 없으며
허위의 공문임을 알리오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어느 스님이 종단총연합회에서 추대하는 법왕이 되고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밝히오니 절대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세계불교법왕청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스님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승인도 없이 명칭을 임의 도용한 사실에 대해 2013년 12월 21일까지
불교계 신문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정식 서류로 다시는 명칭도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를 강행할 것입니다.

불기 2557년 12월 13일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011-229-6061

일 주 문



월하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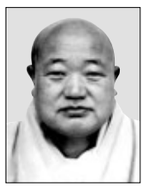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13일 월하대종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통도사 설법전에서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날마다 좋은날 행복바라미 모금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사찰을 포함한 50여 곳에서 디지털 모금함을 설치해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성타 스님, 동국대에 1억 기부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2월 11일 동국대에 제2건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이기도 한 성타 스님은 1999년 법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교지매입기금 1억원, 2012년 경주캠퍼스 발전기금 1억원, 인재육성장학기금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6000여 만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성타 스님은 "평소 종립대학 발전이 불교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동국대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을 닮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라고, 종립대학 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해군 제1함대 해동사 위문 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12월 8일 해군 부대로는 처음으로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사령부 군법당 해동사(주지법사 홍원 오태원)를 방문했다.

이날 해동사 군법당에는 불자인 정안호 제1함대 사령관, 박기경 부사령관을 비롯한 불자 간부와 가족, 군장병, 일반신도 등 60여 명이 참석해 교구장스님 방문법회를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통합선교종 2대 총무원장 삼주 스님 취임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은 12월 10일 부산 코모도호텔 연회장에서 '2대 총무원장 삼주스님 취임 및 초대 화엄스님 이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초대 총무원장 화엄스님, 원로의장 용암 스님, 이사장 성각스님, 총무부원장 상원 스님, 중앙종회의장 해동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삼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재정의 내실화 △종도지원 시스템 구축 △종도 교육 상설운영 △종단위상 강화 △총본산 제도 확립의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임식에 이어 총무부장 광은 스님 외 부국장 임명식 및 부원장 상원 스님 등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열렸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생생한 원음 알리고 싶어요"

산스크리트-팔리어 문법집 법보시하는 현진 스님



지난해 '산스끄리뜨 편집실' 개소
경전 언어 보급위해 무료 법공양
강좌 진행… 재가자 비율 더 높아

"그간 한국불교는 한문경전이라는 장벽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전 원전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봉선사 산스끄리뜨 편집실'을 이끌고 있는 현진 스님〈사진〉은 12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처님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중요성을 이 같이 언급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현진 스님은 직접 부처님 초기 언어에 대한 문법책을 발간하고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우빠니샤드〉 〈빤짜딴뜨라〉 〈산스끄리뜨문법〉 〈산스끄리뜨 · 빠알리 표모음집〉 등을 펴냈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료 법공양을 해왔다.

지금 경전 언어 전문가로 통하지만 원래 스님의 전공은 한문이다. 경북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승가대 재학 중에는 〈치문경훈〉에 대한 해설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문 박사'인 스님이 인도 뿌네 대학 등에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배운 것은 은사인 월운 스님의 지원이 크다.

"평소 월운 스님은 범어 전문 인재를 키워 놓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은사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자 인도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스님이 가장 시작한 것은 '봉선사 산스끄리뜨 편집실'을 설립한 것이다. 이곳에서 스님은 초기 경전과 경전 언어의 문법집을 출간했고, 법공양을 시작했다.

올해 9월부터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에 대한 전문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학당 이름은 '봉숭아(奉崇雅) 학당'이다. '봉(奉)'은 제적 사찰인 봉선사를 의미하고 '숭아(崇雅)'는 다듬어져 완백해진 것을 통해 우아함을 숭상한다는 'Sanskrit'를 한역(漢譯)한 것이다.

봉숭아 학당은 현재 서울 불광산사 강의실에서 매주 목요일 문법반과 문장반으로 나눠 강의가 진행된다. 현재 50여 명이 등록해 수학 중이다. 강의 역시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학당을 개원한 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수강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스님이 느낀 놀라운 점은 수강생의 80%가 재가불자라는 사실이다. "국내에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강의 인력이 없고, 정규 강좌도 없다보니 지속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봉숭아학당에서는 교육불사를, 산스끄리뜨편집실에서는 〈담마빠다〉와 〈바가바드기따〉 등을 출간하는 출판불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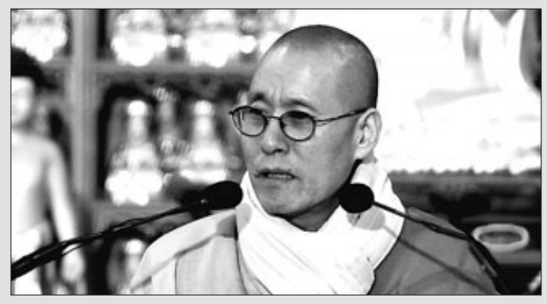
한편, 현진 스님은 최근 발간한 〈빨리어 문법〉과 〈산스끄리뜨 · 빠알리 표모음집〉 1천 권을 무료 법보시 한다. 책자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카페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sanskritsil@hotmail.com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nskritsil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모두가 주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원학 스님, 12월 8일 제25대 봉은사 주지 취임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이 12월 8일 제25대 봉은사 주지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원학 스님은 '주지삼보(住持三寶)'를 주제 법문에서 삼보를 '안주' 시키고 '호지' 하는 모든 대중이 주지이기에 봉은사와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주지는 특정인이 아니며 행정적으로 직책을 부여받은 봉사자"라며 "사는 동안 내 할 도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명리를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는 좌우명을 소개하며 "시간이 지나고 '그 스님 좋았구나' 라고 생각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나 역시 공부하는 수행자이기에 완벽치 못해 탁마가 필요하다"며 신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법왕루에는 1000여 대중이 발디딜틈 없이 모였다. 취임법회 끝에서 원학 스님은 봉은사 신임 국장들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총무 및 재무국장은 종민 스님, 기획국장은 정문 스님, 교무국장에 일진 스님, 교육국장 본오 스님, 포교국장 혜찬 스님이 맡게 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덕산 스님 임명

자승 스님 9일 수여식…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탄원 스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결사총괄부장에 덕산,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탄원,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에 도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산, 탄원, 도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새로 임명된 결사총괄부장 덕산 스님에게 "결사본부에 대한 외부 평가는 평가는 인색하고 냉정하다"며 "결사가 대내외에 인정을 받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탄원 스님에게 "문화사업단은 국고지원으로 운영하는 만큼 금전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으며 도우 스님에게는 "음주파문으로 실추된 한국문화연수원의 위상이 회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덕산 스님은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금산사 서래선원에서 재무 및 총무를 역임했다. 현재 금선암 주지를 맡고 있다.

탄원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덕사, 해룡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덕산 스님이 결사총괄부장으로 임명받고 있다.

도우 스님은 영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8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승가대를 졸업했으며 대휴선원, 대성암선원, 보현암선원, 위봉선원, 정수선원, 죽림선원, 가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신중일 기자**

성철 스님 문도회,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부

성철 스님 문도회를 대표해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을 만나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지난 10월 19~20일 해인사 사리탑전에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삼천배 정진'을 진행했으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한 생명 살리기 기금'을 적립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이웃을 도우는 삶',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개원 초 병원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택 스님〈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언론인 불자 힘모아 전법 나선다

언론사불자연합회, 조계종 등록 기념법회



언론사불자연합회는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신도단체 등록 기념 연합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여의도 포교원 현진 스님, 강상구 언론인불자연합회 회장(KBS불자회 겸임), 최종라 MBC불자회 회장, 정순영SBS불자회 회장, 이상우 경향신문 불자회 회장, 방송인 이계진 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상구 회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세미나를 열고 연예인 불자, 방송인 불자 등을 조직해 함께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언론사 불자 조직이 활성화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사불자연합회는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와 경향신문 등 신문사 소속 불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1990년대 초부터 각 언론사에서 구성된 불자회가 2002년 10월 17일 연합해 발족했다. **노덕현 기자**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44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 2014년 1월 25일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별도 프로그램)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 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문의 :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교육프로그램
① 건강회복 : 심신단련,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②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③ 심성정화 : 불교강의, 108배, 참선, 운력
④ 교양수업 : 국악, 다도, 원어민 영어회화, 화랑과 원효대사의 성지순례

1500년 전통사찰 · 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동방대문화교육원 2014년
학습진로상담사과정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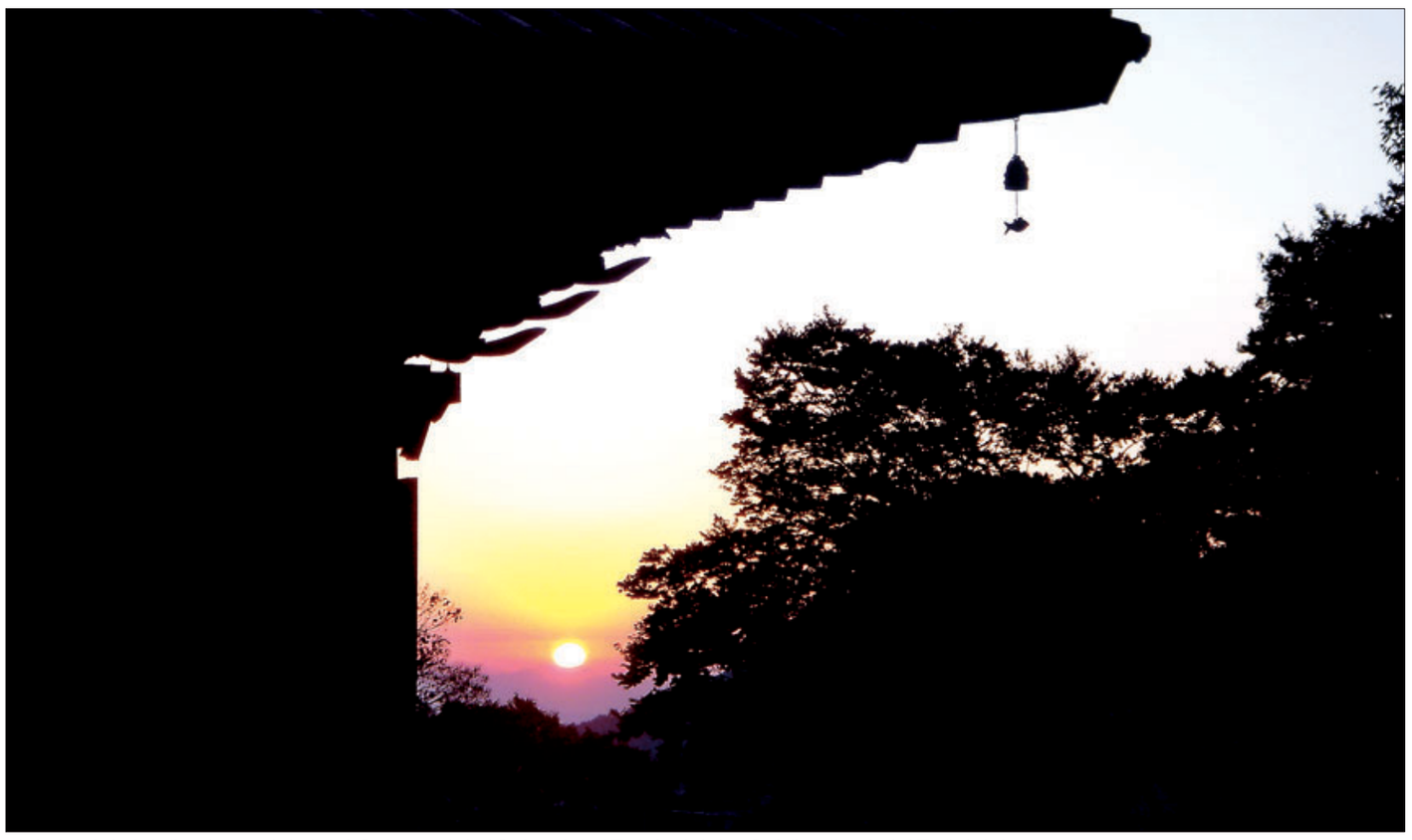
▶ 3월 개강 ◀

◇ 저서 : 규명 1권 : 명리입문자용 (한솜미디어)
규명 2권 : 명 리 상 담 술 (한솜미디어)
규명 3권 : 진로와 전공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강화 적석사의 신년 해돋이. 고즈넉한 산사의 추녀 끝 풍경과 일출의 조화가 아름답다. 적석사는 올해에도 해돋이 행사를 개최한다.

새아침 산사서 희망의 해맞이 하자

전국 사찰, 갑오년 맞이 해돋이 템플스테이 열어

다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흐지부지했던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뛸 준비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전국 해돋이 명소를 찾아 한 해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를 다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심산유곡에 자리한 산사들은 한 해 계획을 준비하기에는 천혜의 장소다. 특히 유려한 풍광 아래 맞이하는 해돋이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생의 에너지를 채운다.

산사에 맞는 신년의 아침. 어느 때보다 특별한 '송구영신(送舊迎新)' 행사를 전국 사찰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전국 40개 사찰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따듯한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륜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새해맞이 드림(dream) 템플스테이'를 통해 '꿈'이라는 주제로 스님과의 차담, 풍등 날리기, 소원지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충남 공주 영평사에서도 근심 태우기와 소원등 날리기, 자비명상, 타종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낸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2014 첫 태양을 품고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테마로 신년소망을 발원한다.

해맞이 프로그램으로는 차분히 묵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소원지 만들기', 새해 희망발원 108배와 명상, 떡국 공양, 그리고 새해 특별 축원이 담긴 주지스님 법문도 준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법주사 수정봉에서 바라보는 새해 일출은 그 어느 곳보다 장관이다.

강화 적석사는 '비움, 채움, 나눔'을 테마로 일몰 일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성감천(至誠感天)-당신이 하늘입니다'는 묵은해를 배웅하고 포살 자자라는 참회의식을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할 마음을 마련한다. 이어 채움의 장인 재야의 종 1인 3타 타종과 108배 염주 만들기가 이어진다. 나눔의 장에서는 새해 희망의 불씨를 나눈다. 특히 적석사는 강화 8경 중 하나인 점점이 깔린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를 보며 과거 악업을 씻을 수 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집중
전국 40여 사찰서 일제 진행
타종, 트레킹 등 프로그램 다채

겨울 산행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가벼운 트레킹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전남의 천년고찰 화엄사는 깎아지른 절벽위에 세워진 사성암 등반을 함께 한다. 사성암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일대와 구례 들판의 풍광이 일품.

또 영광 불갑사에서는 불갑산 등반과 해돋이,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북 내소사는 1박 2일간 떡국 나눔과 새해 소원 빌기, 산행을 함께 하는 무료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금선사의 '해맞이 산행 템플스테이'를 통해 북한산 등반과 떡국 공양, 차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친구,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을 가족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강화도 전등사에서는 소원연꽃 만들기, 마음엽서 쓰기와 함께 가족영화제를 진행하고, 대구 동화사는 해맞이 산행, 촛불명상과 함께 윷놀이, 가마솥 고구마 굽기, 다도체험 등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선운사에서는 해맞이 삼보일배 템플스테이를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삼보일배의 경우 선운사와 도솔암까지의 코스로 진행된다.

마곡사의 새해맞이 수리수리콘서트는 음악회와 한지 연등 만들기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14 갑오년 새해를 맞아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계획을 서원해보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한 해의 첫날을 산사에서 시작하고 새해의 약속을 산정(山頂)에서 다짐한다면 의미 있는 새해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돋이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황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산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있다.



백담사에서 진행한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백담사의 설경을 즐기는 참가자들.

2014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리스트

지 역	사찰명	제목	프로그램	금액	연락처
서울 경기	금선사	신년 해맞이 템플스테이	떡국 공양, 새해 일출맞이 북한산 산행, 소원문 쓰기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	02)395-9955
	화계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타종, 발원문쓰기 촛불예식 떡국나눔 해맞이산행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	02)900-4326
	화운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걷기명상, 만다라 채색하기, 108배, 해맞이 산행	6만원	031)337-2576
	용주사(화성)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새벽타종. 해맞이 숲포행, 큰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	5만원	031)235-6886
	흥국사(고양)	해맞이 템플스테이	108 염주 만들기, 산행, 다도, 연꽃 만들기, 탑돌이	5만원	02)381-7970
	법륜사(용인)	해맞이 드림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풍등 날리기, 제야의 타종체험,	연꽃 초 밝히기, 꿈등 켜기 초등학생 4만원	성인 6만원, 031)332-5703
	신륵사(여주)	해맞이 템플스테이	민속놀이, 맑은 물 붓기, 행복마중물, 108 염주 만들기	6만원	031)885-9024
	백련사(가평)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서원올리기, 촛불발원, 108배, 떡국 공양	5만원	031)585-3855
	전등사(인천)	해맞이 템플스테이	참선명상, 소원연꽃 만들기, 마음엽서쓰기, 타종식, 가족영화제, 참선, 해맞이, 스님과의 차담,	성인 6만원, 학생 4만원	032)937-0152
	봉인사(인천)	해맞이 템플스테이	연꽃 트리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천마산 해맞이 산행	5만원	031)574-5585
강원도	건봉사	금강산 해맞이	명상, 차담, 108배, 자자포살, 해맞이	성인 8만원	033)682-8103
	월정사	비로봉 해맞이 템플스테이	소원탑돌이, 타종체험 비로봉 등반, 소원지 날리기	성인 6만원, 학생 4만원	033)339-6606
	신흥사	권금성 해맞이 템플스테이	다도, 108 염주 꿰기, 해맞이	5만원	033)636-7044
	백담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나를 깨우는 108배, 시심즉불, 차명상	10만원	033)462-5565
	삼화사	행복한 새해맞이	차담, 연꽃 컵등 만들기, 풍등 만들기, 타종체험	5만원	033)534-7676
충청도	서광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108배, 참선, 촛불기원, 차담, 간월암 해맞이	5만원	041)664-2001
	갑 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타종체험, 고구마/가래떡 굽기, 차담, 숲길포행	6만원	041)857-8921
	영평사	갑오년, 행복을 함께 설계해요!	근심 태우기, 소원등 날리기, 자비명상, 해맞이 산행	6만원	010)9440-1854
	마곡사	새해맞이 수리수리콘서트	콘서트, 한지연등 만들기, 윷놀이, 108 염주 만들기	성인 6만원, 학생 5만원	041)841-6226
	부석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해넘이 노을감상, 도비산 해맞이, 전통놀이	5만원	070)8801-3824
경상도	심원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108배, 촛불발원, 윷놀이, 새해맞이 타종, 떡국나눔	3만원	054)931-6886
	범어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해넘이해맞이 명상, 압자순례, 타종식	4만원	051)508-5726
	동화사	청마(靑馬)가 설레임으로 새해를 품다	촛불명상, 가마솥 고구마 굽기, 윷놀이, 다도체험	성인 7만원, 학생 5만원	053)982-0223
	도리사	행복을 꿈꾸는 템플스테이	사찰식 만두빚기, 타종체험, 떡국 나눔, 1천배	3만원	054)474-3877
	옥천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성불도 놀이, 아침고요명상, 연화산 해맞이	성인 6만원, 학생 4만원	055)672-6296
	장육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송년 소원기도, 타종체험, 바닷가 해맞이	3만원	054)733-6289
	용문사(남해)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차담, 소금만다라 만들기, 제야의 타종, 파도소리 명상	성인 5만원, 학생 3만원	055)862-4450
	해인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가야산 산행 및 해맞이, 사찰식 차담, 떡국공양	6만원	055)934-3110
	골굴사	선무도와 함께 하는 해맞이 템플스테이	동해안 감포바다 해맞이, 선무도 수련 및 공연관람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54)775-1689
	용화사	미륵산 해맞이 템플스테이	염주/한지 연꽃 만들기, 차종식, 미륵산 정산 해맞이	성인 5만원, 중고생 4만원 초등학생 3만원	055)645-3060
	불국사	불국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석굴암 순례, 토함산 일출맞이, 탁본/단청 체험	6만원	054)746-0983
전라도	화엄사	사성암 해맞이 템플스테이	사찰 예절 배우기, 도량순례, 사성암 등반, 해맞이	5만원	061)782-7600
	불갑사	불갑산 해맞이 템플스테이	차담, 소원지쓰기, 불갑산 등반, 전통놀이	5만원	061)352-8097
	쌍봉사	해맞이 힐링템플스테이	소원지 쓰기, 차담, 우리가락 한 소절, 계당산 해맞이	5만원	061)372-3765
	송광사(순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망수봉 새해맞이, 스님과 함께 하는 불일암 암자 순례	성인 5만원, 학생 4만원	061)755-0107
	선운사	해맞이 삼보일배 템플스테이	차담, 108 염주 만들기, 삼보일배(선운사-도솔암)	5만원	063)561-1375
	금산사	해맞이 내비둬 콘서트	내비둬 콘서트, 해맞이 모악산 산행, 떡국 공양	성인 6만원, 학생 3만원	063)542-0048
	대흥사	갑오년 해맞이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떡국 공양, 두륜산 일출맞이 산행	성인 4만원, 중고생 3만원 초등학생 2만원	061)535-5775
	내소사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	떡국공양, 선원장 스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 시간, 산행	무료	063)583-3035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며 재판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사이버 불사(세존 사이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해 온 성법 스님의 죽비소리.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콕콕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책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Tel. 02)732-2403~4 민족사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걱정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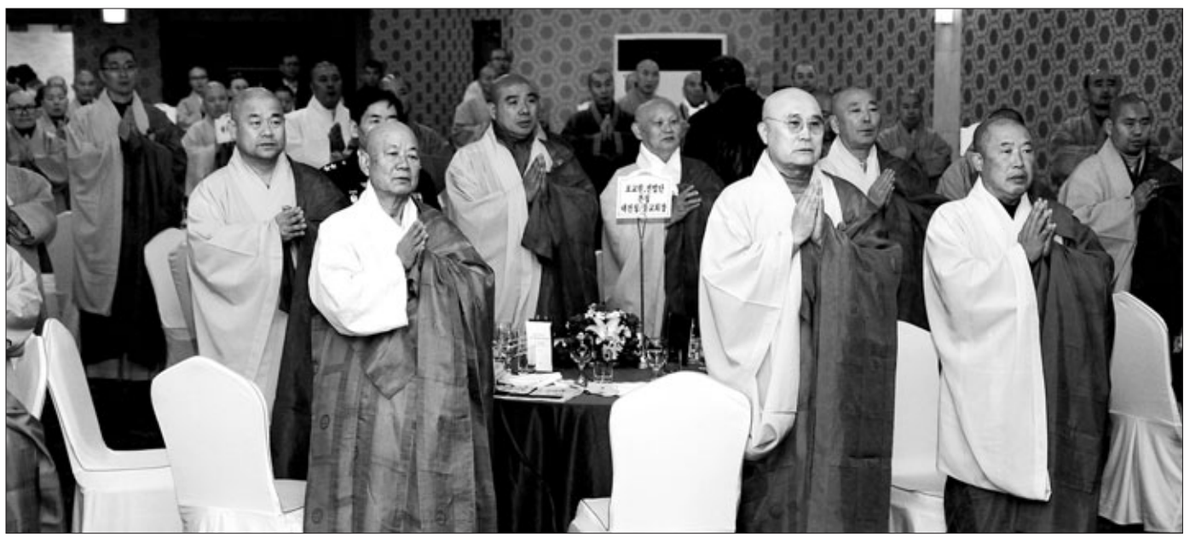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절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깊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라고.

–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

“재정확보·네트워크 구축은 경찰포교 지름길”

전국 조계종 경승 스님 2014년 준비 세미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4년 전국 조계종 경승스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에 앞서 의식을 하는 모습.

“군 · 경찰 전담 스님이 상근으로 활동하도록 총무원과 각 본사에 건의 해 달라(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불교 신앙 · 사찰 특성에 따라 법요집 형식이 다르다. 경찰 법요집을 만들 경우 어느 신행단체에서 쓰더라도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도록 법요집을 통일 해 달라(우리절포교원 해철 스님)”

“경승단과 경찰전법단의 관계가 모호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승 스님들 모두 확인해서 소속사찰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충남 태전사 주지 도일 스님).”

전국 경승 스님이 모여 경찰 포교의 고충과 개선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4년 전국 조계종 경승스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 스님, 경승실장 도문 스님(조계사 주지),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경승실장과 경승 등 1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승단과 경찰전법단의 현황과 활동계획을 공유한 뒤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과 경승단, 경찰전법단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원 스님이 기조강의를 맡았으며, 경찰전법단 사무국장 정범 스님이 경찰전법단 경과보고 및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경승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기조강의에서 지원 스님은 경찰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승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승단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폈다.

지원 스님은 “경승의 사명은 경찰청 산하 15만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을 홍포해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신행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경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경승단의 역사가 20년이 됐지만, 많은 경승 여러분께서 경찰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경승단과 경찰포교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경승단 활동을 활성화해 경찰포교의 새로운 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스님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차원의 경승조직 구축과 경찰포교 방안에 대해 새로운 모색 필요 △경찰포교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승활동의 체계적 활동 모델 창출 △경찰포교와 경승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120여 경승 포교 고충·개선점 공유
지원 스님 “종단 차원 경승조직 필요”
포교원 경찰법집 경승수첩 발간 계획

이어 정범 스님은 경승단과 전법단을 소개하고 경찰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폈다.

스님은 “1987년 조계사에서 경승단 발대식을 봉행하면서 경승제도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초기의 열정과 참여가 식어가면서 지속 ·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며 “이후 1994년 별원으로 독립한 포교원은 경승 위촉업무와 연수 및 경승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가동했으며 1998년에는 ‘경승령’을 제정 · 공포해 경승의 임무와 역할, 활동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이 출범해 조계사의 협조로 전담 실무자를 배치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 스님은 타종단과 함께하는 경승단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경승의 경우 모든 종단에 문호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종단적 정체성이 모호해 종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물론 타종단과 연합해 협조하는 체계역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처음에는 경승실로 시작했는데, 어느 새인가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활동해 불자들이 법당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승 스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며 경승실과 경찰 법당의 관계가 모호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범 스님은 “불교에서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을 미루는 동안 10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는 원불교는 전략적인 포교활동을 통해 4대종교로서 경찰 포교를 하고 있다. 타종교는 포교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불교는 침체되고 있어 스님들의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전담경승 임명과 상주 사무과장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전법단 가입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회비납부) △지방청별 본사 포교국에서 발행한 통장으로 후원금 체계일원화 등 의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과 경찰전법지원단은 세미나를 통해 △본사(포교국)에 경찰포교 지원을 위한 체계 확립 △통일된 매뉴얼 준비(경찰법요집, 경승 수첩발행) △경찰전법단 전국 조직의 포교네트워크 선도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전담경승 맥산 스님(선재선원)은 “경승으로 임명돼 서울청 법당을 찾았을 때 당시 불자들은 법당을 휴식공간 및 친목도모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경승 스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먼저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삼배를 하는 경찰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108배하는 불자들도 생겨났다. 포교환경이 열악하지만 스님들이 먼저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온 경승 스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진행됐다. 상당수의 스님들은 각 지방경찰청 경승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경승 스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카페 ·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회원을 확보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에 800여 경승 활동…유치인 교화도 담당

군포교를 군승이 맡듯, 경찰포교는 경승이 담당한다. 경찰 포교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87년 1월 조계사에서 경승단 발대식을 계기로 경승제도가 공식화 됐다. 그 해에 총 600여 명의 경승이 전국 230여 개 경찰서에 ‘4인 1조’로 위촉됐고, 경승활동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승단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경승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경승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포교방법의 부재 등으로 침체기를 맞았다.

이후 포교원은 2010년 조계종 전법단을 출범하면서 경찰전법단도 출범시켰고, 조계사의 협조로 전담 실무자를 배치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경승 스님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경찰포교뿐만 아니라 유치인교화, 청소년 교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도 함께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 경승 스님 부족, 타종교의 공격적 선교활동 등으로 현실은 경찰포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공무원 불자들, 연말을 훈훈하게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찾아 배식봉사



김상인 공불련 회장(사진 왼쪽)과 김맹규 공불련 교무부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전국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조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경기도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는 12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공불련 제11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상인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복지관장 성화 스님과 100여 공불련 회원 및 가족들은 설거지 및 청소,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안전행정부 및 기관불자회에서 준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성화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나눔 가르침을 배우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동참해 주신 회원 및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사회봉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의 자세로 공무원의 덕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제27차 이사회 개최

벽공 스님 등 3명 신임 이사 임명, 김준형·김재성 신임 연구위원 위촉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이사로 도선사 부주지 현관 스님, 도선사 사회국장 도법 스님, 홍천 지장선원 주지 도성 스님, 장경사 주지 혜타 스님, 오용환(R&I 연구소장), 최학봉(SRN 심리상담연구소장)과 감사 한명로(세무법인 삼성 대표) 등이 참석해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 이사 및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원 스님은 “지금이 세계적 명상 흐름과 IT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포교의 방향을 준비해야할 때”라며 “불교와 명상, 심리의 접목을 담당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이 교육관 불사와 신규 분원 설치에 큰 원력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벽공 스님, 희철 스님, 혜성 스님 3명을 불교상담개발원 신임 이사로 임명하고, 교육관 불사 및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상담개발원 신임 연구위원 2인(벽공스님, 남윤지)과 신임 자격관리위원(김준형), 신임 대학운영위원(김재성)을 각각 위촉해 불교상담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모집중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17일 (금요일)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나 혼자보다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나눔”

불교복지관, 후원기업과 손잡고 자비실천

상위 500대 기업 사회공헌 지출 3조 2500억원…16년새 10배 증가
한화 · SK · 삼성을 비롯한 중견기업 불교계 재단 및 산하시설과 공헌사업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한화 S&C는 추운 겨울동안 먹거리를 걱정하는 소외이웃들이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나눔행사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금문산업은 2010년부터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상조회 기금 일부를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있다./ 슈즈 브랜드인 크록스 코리아는 매년 2회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시설 아동에게 신발 등 물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상호교류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에버랜드는 센터 옥상에 텃밭 ‘찬들마루’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농촌의 추억을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3조 2500억 원에 달했다. 3천억 원에 불과했던 1996년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기업이 국민복지 증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복지관들도 기업들의 꾸준한 후원으로 복지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해 희망을 심어주는가 하면, 텃밭을 조성해 체험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공동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한화그룹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한화호텔&리조트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Sharewill, 이하 의지나눔)’ 운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의지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경험을 제공해 높은 꿈과 인생의 목표를 세우도록 돕고 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연간 3천만원을 후원하면서 한화호텔&리조트의 호텔, 문화, 물류, 외식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 들과의 연계 및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한화 S&C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IT문화나눔 프로젝트 ‘SC다빈’을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했다. ‘SC다빈’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운영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봉사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충분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화 S&C는 추운 겨울동안 먹거리를 걱정하는 소외이웃들이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장나눔행사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상임이사 원경 스님과 한화 S&C 진화근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김장행사에 직접 참여 다문화 가족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진화근 대표이사는 “나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다 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나눔 활동”이라며 “직원 모두 시간이 할당 돼 있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에서는 나눔 ·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매일유업 계열사인 영유아용품 브랜드 제로투세븐이 매년 2억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후원하는 등 불교계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기업 임직원들 중 불자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불교계 복지시설에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의 중추로서, 기업의 후원을 알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관장 동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2007년부터 월 1회 문화여가프로그램 ‘두드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KL임직원들은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체 · 뇌병변 장애아동 17명과 공연 및 전시회를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슈즈 브랜드인 크록스 코리아는 매년 2회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시설 아동에게 신발 등 물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상호교류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SK C&C는 매년 2회 시설 아동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에버랜드에서 나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대림산업, 삼성에버랜드, 국민은행, 크레듀, JTI코리아 등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05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간식제공 및 정기후원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삼성에버랜드는 센터 옥상에 텃밭 ‘찬들마루’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농촌의 추억을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정기적으로 ‘시니어경제금융교실’을 개최해 어르신들이 금융기초지식을 쌓고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해 노년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 정사)은 현대제철, 신한은행, 한미글로벌, 금문산업과 함께 산하시설 기업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진각노인요양센터에서 매월 1회 롤 휴지를 후원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격월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2007년부터 서울시립 수락양로원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나들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문산업은 2010년부터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상조회 기금 일부를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교보생명, 삼성카드, 국민건강보험, 한국남동발전, 금호석유화학, 서울아산병원 등과 복지관내 무료급식 및 검진 등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탄자니아에 자비 전해지도록 힘 모아주세요!”

아름다운동행, 불교포럼 · BBS ‘후원의 밤’ 진행



밴드 크라잉 넛이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이 크라잉 넛 보컬 박윤식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불자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 주최,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과 공동주관으로 12월 12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 정각회장 정갑윤 국회의원,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아름다운동행 후원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 되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의 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불교포럼 및 아름다운동행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학교를 건립하게 될 탄자니아의 상황을 영상으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밴드 ‘크라잉넛’과 동물원, 우순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실내악단이 출연해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예금주: 아름다운동행)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장 정기총회

12월 6일 백범 김구기념관서 상덕 스님 제5대 협의회장 연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2013년 12월 6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2013년 12월 6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 협의회는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60여개의 산하 직할 단체의 시설장으로 구성됐으며, 불교사회 복지시설 간의 협력과 불교 사회복지 정책 발전 등 사회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2명의 시설장의 참석과 15명의 위임 성원으로 열린 총회에는 상임이사 원경 스님의 인사말과 함께 협의회 경과보고 및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조계종시설장협의회는 제5대 회장으로 상덕 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상덕 스님은 2년간 회장으로 협의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의정부송산실버문화센터 관장 법일 스님, 양평종합사회복지관 강동영 관장이 감사로 선임됐다.

이날 시설장들은 불교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향한 불교계 역할과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행보를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나은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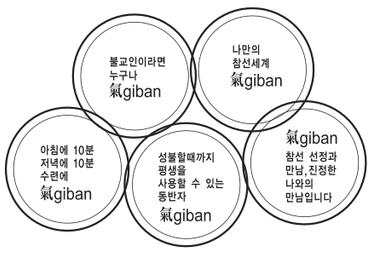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화엄경은 아만 꺾고 공덕의 숲 키우는 가르침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우진 스님(前 통도사 강주)

"여러분은 한번도 추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회에 모인 이들을 향해 말하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정감이 묻어났다. 세상의 혹한에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슬몃 녹이는 확신이었다. 세상의 티끌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그를 불성으로 대하는 순간, 그 자리에 깃든 아름다움을 본다는 화엄경의 요체였다. 나와 너라는 아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나가자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의 12월 3일, 입재 법문을 들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화엄경 통해 삶을 정립하다

새벽 예불 종송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 〈화엄경〉이죠. 다른 나라는 예불시 그저 종을 치는 것에 머물지만 우리나라는 종을 치며 발원하고 예경합니다. 이것이 의미를 띠는 이유는 어떤 행동을 하든 한국불교는 그 속에 항상 화엄의 행동을 하고 있고 깨달음과 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한 말씀은 '진진혼입 찰찰원융(塵塵混入 刹刹圓融)' 으로 대표됩니다. 진진이라는 말은 티끌입니다. 하나하나의 티끌이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이는 존재하는 각자가 따로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나와 남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볼 것이냐하는 문제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보는 관점, 삶의 태도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타가 과연 무엇입니까. 〈화엄경〉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서로를 모르고 살아가냐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서로를 모릅니다.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신분들도 서로를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속을 알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왜 내 자신을,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모른채 살아가는 걸까요.

마음따라 가는 삶이 열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법무아성(諸法無我性), 모든 것에 자성, 즉 자기의 고유한 성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실체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화엄에 이르러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유한 성격이 없는데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나의 육신을, 내 생각을 두고 '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는 마음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격, 개성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실체 상이 없는 무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무상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승불교가 본 무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끊임없는 내부혁신이 일어나 화엄에 이르러서는 일체가 무상하기에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힘은 남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됩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 예전만큼 기를 펴지 못하죠. 약해지니까 무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힘이 없어짐으로써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고, 변하는 것 이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변한다는,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입니다. 화엄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마음이라는 전제 속에서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에 의해 규정되므로, 나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실유불성' 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건 없건 존재하는 것들은 불성,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따라 삶이 펼쳐질 때 그것을 열반이라 하고 반대로 역행한다면 생멸이라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으레 짜증내고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생사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차별 역시 생사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두고 생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통의 감정으로 다가오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기쁨 또는 선(善)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다만 우리의 망정(妄情)일뿐입니다. 착하다는 것도 망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일심법계 진진혼입' 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각자 존재하는 것이 사물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각기 분자구조가 다 달라요. 진진이죠. 그런데 그것이 분자의 구조를 떠나면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분자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4대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의 결합구조가 다른 것이고 이를 인연관계가 다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연관계를 가지면 4대오온이 인간의 모습으로 구조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마이크의 마음을 가지면 마이크 모습으로 분자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존재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이지 실체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이크로 보는 것은 망념으로 보는 것이고 이를 불성으로 보는 것은 일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성으로 보는 순간 세상 어느 것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진혼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장장엄으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에서 꽃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유는 꽃이 행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의 선행을 쌓아야 하나의 꽃이 피어난다고 믿기에 꽃을 '만행화' 라고도 합니다. 바라밀의 아름다움을 꽃으로 상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식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펼쳐질 때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혼입을 인식해 그 속에서 내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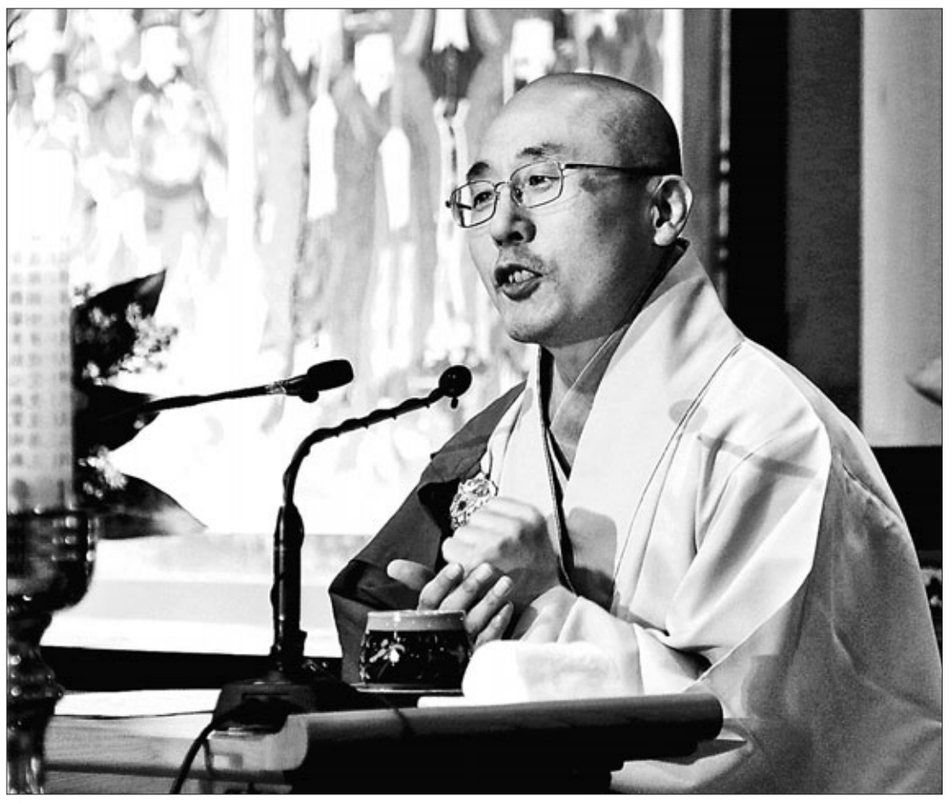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진혼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를 화엄에서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을 성취했다 표현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기에 나는 한 번도 추하거나 왜소하거나 불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중생이 되어본 적이 없는 붓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그걸 교리적으로 신만성불(信滿成佛)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그 속에서 붓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이들은 한순간도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된다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 "진진혼입 찰찰원융
>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모두
>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화장장엄의 세계
> 이런 믿음 충만하면 그 속에서 붓다 돼
> 부처된다는 건 행복한 사람된다는 것"

원효스님은 믿음을 결정심, 맺어 정한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붓다라는 걸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하나 청정심이에요. 내가 붓다라고 믿는 순간 나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그 마음 속에는 청정,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믿음에 의해 십바라밀을 지혜와 자비로써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말이 마음을 잘 쓰라는 '선용기심(善用基心)' 입니다. 부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믿기로 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쓰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화엄경〉은 각자가 완전히 하나인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짐승, 지구라는 세계가 원융,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마다 나와 다를바 없고 타인이 사는 세계가 나의 세계와 원융한, 완벽히 하나인 세계니까요. 이것을 10조9만5천48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우진 스님은 …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출가한 우진 스님은 1986년 동국대를 졸업했다. 1991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1998년 종범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통도사 중강 및 강사, 교육원 교재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서축암 감원으로 주석 중이다.

화엄문화로 풀어내는 한국사회의 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할 이념과 생각들이 화엄이란 이념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신라가 의상대사에 의해 화엄십찰을 만들면서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통도사, 황룡사 등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화엄의 문화입니다.

통도사의 법당은 12개가 있는데, 산신각, 응진전 등 법당 하나하나가 각각의 세계입니다. 이들이 모여 통도사라는 하나의 가람 속에서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거에요. 이게 화엄이고 다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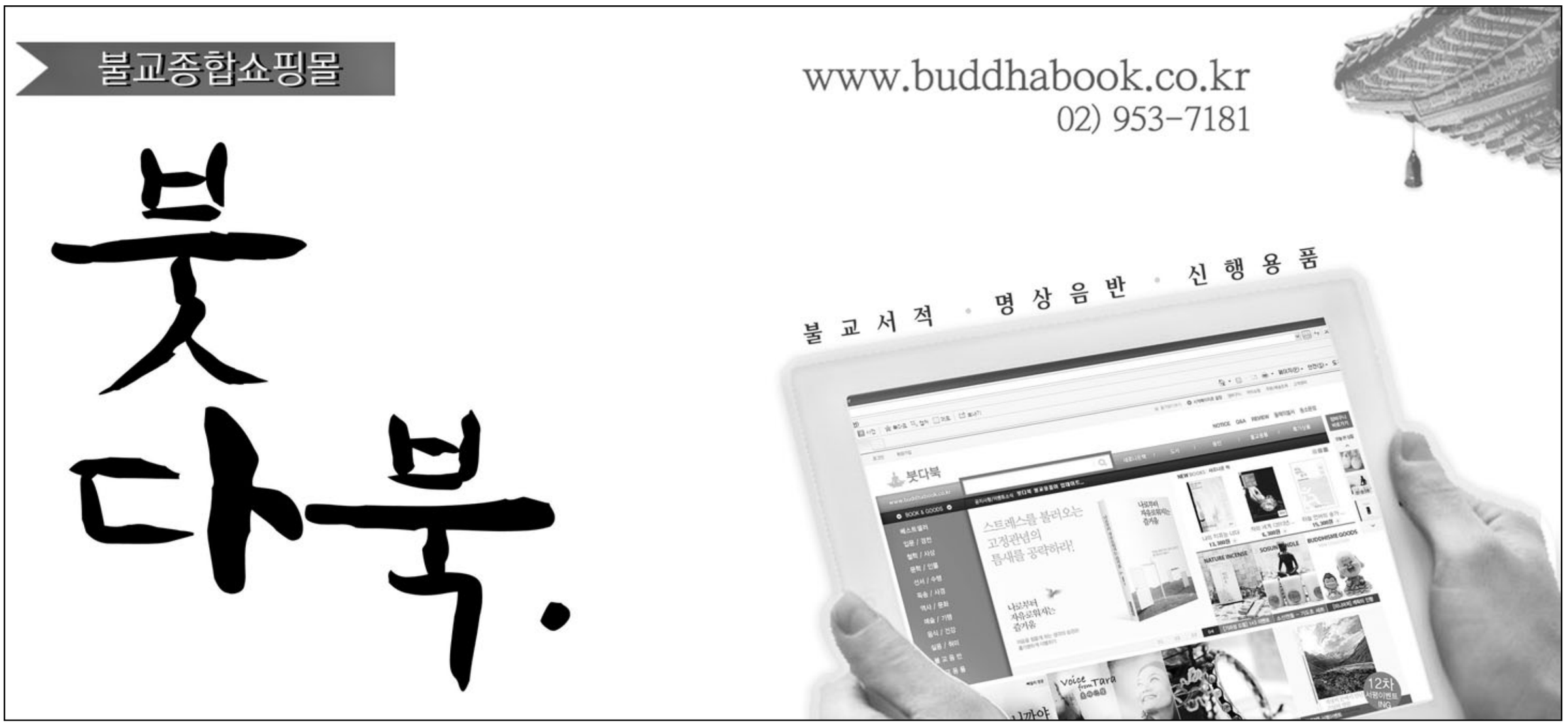
요즘은 결합의 시대, 융합의 시대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앱이 각각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로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각자가 통할 수 있는 통합의 문화에요. 그러니 국론을 통일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현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도 화엄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문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선불교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화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화엄이 시작되었지만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꽃을 피웠고 그 속에서 피어난 열매가 선불교입니다. 화엄을 떼어 놓고는 한국불교의 위대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깨달은 이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써서 끊임없이 10바라밀을 실천하는 그 속에 깨달음과 세계 평화가 있습니다. 공존이념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은 끝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갖는다는 말 속에서 소득, 문화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불균형의 세계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통합의 문화에 있습니다. 30년 압축 성장 과정 중에 우리는 문화 등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되찾아서 문화적, 정신적, 공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불교도 세계도 공멸합니다.

의상 스님의 사상과 삶이 사회에 구현될 때, 한국은 문화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연선교착여의 귀가수분득자량(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이라는 화엄경 속 말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조건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엄산림을 통해 마음 속에 믿음을 갖고 초발심시변성각(初發心時便覺)하셔서 여래의 보광명지(普光明智)를 얻기를 발원하며 법회를 마칩니다.



불교계, 출토문화재 소유권 '시금석' 마련

월정사 12월 9일 출토 유물 소유권 2심 재판서 승소

사찰 앞마당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사찰 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월 9일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작업 중 발견된 송나라 화폐 성송원보와 고려 금동불상 등 13점의 국가귀속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월정사가 진행한 소유권 2심 재판에서 월정사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출토유물은 2000년 12월 대적광전 앞 석조보살좌상 보전처리 과정 중 좌상 하단에서 발견됐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주변 500㎡ 토지를 시·발굴 조사해 1000여점 이상의 유물들이 수거했다.

문화재청은 출토 유물 중 고려시대 성송원보, 숭령중보, 금동제 보주, 수막새, 법수편, 명문 암막새편 등 10건 13점을 매장문화재발굴조사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를 거친 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킨 바 있다.

월정사는 이에 2003년 2월 국가귀속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1년 반환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2012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은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문화재청은 곧바로 항소했다.

출토 문화재 소유권, 출토지 연관성 따라 귀속 판가름

월정사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송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소유권에 대한 공고과정에서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김형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사찰 소유 문화재에 대해 공고 절차 이후에도 사찰 소유이면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월정사가 이전하지 않았으며 실제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란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측으로부터 사찰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을 받은 송나라 동전 등의 반환도 결정됐다.

재판부도 "유물이 발견된 자리는 사람이 살면서 쓸거나 정리해온 곳으로 발견 당시부터 월정사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30일 소유권 공고 기간 압박에서 벗어나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사찰이나 불교법식과 전혀 관련없는 문화재가 아닌 이상 불교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 해당 사찰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공고 기간에는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더라도 30일동안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 사찰이 문화재 당시의 사찰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해당 사찰이 직접 입증하게 돼 있어 짧은 기간동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월정사 1차 출토문화재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출토유물 전시전 모습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공고 기간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월정사의 경우 1차와 2차 출토 문화재 중 2차의 경우에는 30일 공고기간 동안 소유권 사유를 밝혀 이를 인정받았으나 1차는 공고기간을 넘겨 소송으로 번졌다.

홍은미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사는 "월정사의 경우 2차 건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받은 상태이기에 1차 건에 대해 협의가 미리 진행됐다. 출토유물들은 현재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관사 등 소송에 영향 미칠 듯

현재 불교계에서는 2004년 양주 회암사가 옛 회암사터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문화재청과 벌여 승소한 이후 진관사 등이 출토문화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관사의 경우 2009~2010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경내에서 조선시대 유물 272점을 발굴했지만,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찰 출토문화재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종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무관은 "국가 소유로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장기간 보존·전시 중인 문화재가 많은데 사후 소유권 주장으로 모두 사찰로 가져간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사찰문화재는 사찰 소유이면서도 국민 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협의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불교, 우경화 침묵은 반불교"

이성수 불교신문 부장, 〈불교평론〉 논단 통해 주장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정부와 보수단체에게 침묵하는 일본불교계의 모습은 불교 가르침에 배치되는 '반불교적' 태도다. 이를 보며 한국불교는 타산지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 부장〈사진〉은 최근 〈불교평론〉 겨울호 논단을 통해 "일본불교의 침묵은 국가주의에 대한 방조, 방관"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불교계는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불교 근본 가츠침인 비폭력 평화에 입각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부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 가톨릭, 기독교와 달리 불교계는 '무관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략전쟁에 동조한 근대 일본불교의 과거사를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종교인 또는 불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불교인은 불살생의 계율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 침략전쟁으로 숱한 생명을 희생시킨 과오를 저지른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막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바로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개성 영통사·관음사 담은 '사진집' 발간



개성 현화사지 7층 석탑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최근 고려 수도 개성의 중요 유적 16개소를 소개하는 〈개성의 문화유적〉 사진집을 발간했다.

〈개성의 문화유적〉 사진집 올해 개성 영통사 등 개성 중요 유적군 12개소가 '개성역사유적지구(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한 것이다.

사진집에는 개성 영통사, 관음사를 비롯해 현화사비와 7층 석탑, '만월대'로 알려진 고려궁성, 왕건왕릉, 공민왕릉,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표충비, 선죽교, 개성 남대문, 대흥산성, 개성 첨성대 등 국보유적 12개소가 담겼다. 이와 함께 목청전, 명릉, 칠릉 등 보존유적 3개소와 서경덕묘 일반유적 1개소에 대한 자료도 사진집에 실렸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사진집의 발간이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알고 살펴보는 계기와 민족공동자산인 북한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2월 10일 국내 주요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성과와 최근 연구동향을 수록한 '2005~2010 한국고고학집간(韓國考古學集刊)' 중국어판과 '2012 한국고고학저널(Journal of Korean Archaeology)' 한글·영어판을 발간했다.

노덕현 기자

고흥 탑쟁이골서 고려 후기 석탑 발견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서 고려 후기인 13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발견됐다. 남도석조불상연구소(소장 이홍식)는 12월 3일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최인선 교수, 부산문화재연구소 민학기소장과 함께 시행한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여산 송씨 선산 현장 조사에서 240㎝ 높이의 석탑을 발견했다.

발견된 석탑은 1층 탑신석이 고준(高峻)한 백제계 석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 위에 각각 2개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쌓여 있는 상태로 기단부는 모두 망실되고 지대석, 혹은 기단갑석으로 추정되는 네모난 부재 위에 1층 탑신석이 서 있는 형태다.

최인선 교수와 민학기 소장은 하지만 탑의 층급받침이 생략된 점이나 치석술이 미숙한 것에 대해 백제계 석탑의 한 특징인 초층 탑신석이 매우 고준해지는 양식의 마지막 시기인 13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했다.

석탑을 처음 발견한 이홍식 소장은 "이곳은 주민들이 '탑쟁이골', 혹은 '절터골'로 부르는 곳으로 두원면 일대 불교문화재를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고흥군 및 관련 학계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석탑과 용산리석조보살좌상 및 고흥군 내 고려시대 불교예술과의 관계를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숭산 스님은 '회통 사상' 실천한 포교의 화신"

최용운 서강대 교수, 12월 7일 화계사 집중세미나서

"숭산 스님은 대중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란 회통의 관점에서 포교활동을 펼쳤다. 해외포교와 종비생 지원 등의 모습은 모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최용운 서강대 외래교수는 12월 7일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삼각산 화계사 역사의 안팎과 인물의 앞뒤' 학술세미나에서 숭산 스님〈사진〉의 포교관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 교수는 이날 '숭산 행원의 업적에 대한 포교적 관점의 연구' 발표를 통해 "숭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회통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세계포교에 뛰어 든 것은 새롭게 보여준 회통의 실천적 의지"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한 평생을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를 위한 삶을 살았던 포교의 화신이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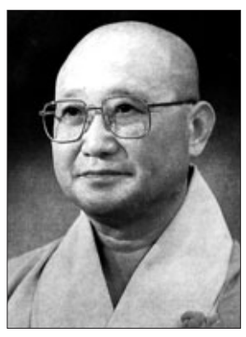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가 창립돼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단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으며 화계사 큰방을 기숙사로 내어 지원에 앞장서는 등 종비생 지원에 나섰다"며 "스님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불교에서 승가공동체가 전문적 소양을 지닌 인재들로 변모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이 화계사 조실로 있는 동안 해외제자들이 빈번하게 출입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화계사는 대중포교 구심점을 찾게 됐다"며 "또 〈불교신문〉의 창간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포교범위를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숭산 스님이 관음선종을 창건해 포교적 측면에서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숭산 스님은 관음선종 내 계율을 제정해 서구문화에 적합하게 토착화했다. 또 한국 간화선 수행법과 일본 임제종 수행법을 연결한 새로운 수행법을 적용시켜 두 나라 불교 수행법의 통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불교연구소 소장 고영섭 교수는 "화계사는 신학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불교연구회를 창설하고 근대적 교육기관인 동국대학 전신 명진학교를 개교한 월초 거연(月初 巨然, 1858~1934) 스님, 선찰로서의 위상을 확립시킨 고봉 경욱, 덕산 종현, 숭산 행원 스님 등이 머무르며 서울의 대표 사찰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국내외 '인물의 중심부'를 형성한 사찰'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앞으로 서울 화계사를 넘어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호흡을 함께 하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빛고을 불교 발전에 사부대중 힘 모은다”

광주불聯, 광주불교 미래 비전 선포 및 계획 발표

광주불교연합회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12월 5일 광주시 공무원불자회, 11일 광주지역 불교단체, 12일 광주시장 · 시의장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연합회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승가화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지역사회에 불교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사업 △광주불교의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 등을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장기계획으로 ‘광주불교회관’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광주불교회관 불사는 현재 상무지구 무각사 안에 위치한 불교회관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도심으로 이전해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불교연합회는 단기계획으로 △연합회 운영체계 확립 △연합회 상근 인력 등 실무진 확대 △지역 불교계 및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회복 등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첫 행사로 12월 27일 연탄 1만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1월 7일에는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기념법회도 연다.

12월 27일 연탄 1만장 나누기 행사
내년 1월 7일 대규모 성도재일법회
광주 특색 반영된 봉축행사 준비
장기적으로 ‘광주불교회관’ 건립

회장 연광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관련해 기존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행사를 연합회 차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광주지역 특색을 반영한 봉축행사를 위해 12월 중 봉축기획단을 발족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12일 열린 광주시 간담회에서 강윤태 광주시장(사진 첫열 가운데)과 광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이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며 웃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 18명을 공개했다. 연광 스님은 “이전에 몇 명의 임원스님들에게 치우쳤던 의사결정과정을 개편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합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위원회 실무진을 통해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운영위 추인 후 행사가 진행되도록 체계를 변화시켰다.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위원 또한 광주지역 젊은 활동가 스님들을 위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에 광주지역 불교단체들도 환영의 뜻과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

광주지역 대표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의 김영섭 사무처장은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연합회가 리더쉽과 포용성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반갑다”며 “향후 광주불교계를 대표해 지역사회에서 불교계가 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사랑의 김치 나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12월 12일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고창 강호 항공고등학생과 어르신 자원봉사자 60여명이 2,5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복지관 경로식당과 저소득층 62가정에 각각 전달했다.

도완 스님은“어려운 이웃들이 추운겨울을 보내는데 전달된 김치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배추와 배추절임을 고창 흥덕농협과 (주)풍성식품에서 후원하여 지역사회에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계사년 동안거 포살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3일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불기2557년 계사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폭설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끝에 전북불교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된 동안거 포살법회에서 동참대중들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조계종 제17교구 종회에서는 불기2558년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의 심의 · 의결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불자 800명 모여 ‘불교인의 밤’ 성료


12월 8일 열린 일산 ‘불교인의 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800여 대중이 모여 활발한 전법회의를 다짐했다.

익산지역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사년 한해 신행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익산불교의 도약을 다짐하는 ‘익산 불교인의 밤’ 행사가 12월 8일 익산 연리지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덕림 스님, 숭림사 지광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택희 익산신도회장, 김진수 前전북포교사단장 등 신행단체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전정희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을 비롯한 대중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풍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송년법회, 케이크 점촉 및 커팅, 사찰 신행단체 간 여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한 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 등에서 활동한 지역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새해에도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되고 윤리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화쟁논리를 바탕으로 여야간, 계층간, 지역간 나눔과 배려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쟁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노고가 큰 익산마한 거사림과 대원회에 격려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익산사암연합회장 덕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양보하는 정신이 절실하다” 며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2013나눔의 날’



광주지역 생명나눔활동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나눔의집 봉사 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나눔’을 주제로 광주지역 불교단체의 잔치 한마당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생명나눔)은 12월 12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2013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나눔의집 봉사자와 회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를 맡고 있는 ‘나눔의 집’ 회원들이 1년간 모금을 한 금액과 헌혈증을 생명나눔에 전달했다. 또 헌신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 ‘미스A’ 수지를 비롯해 홍보가수 양주호, 배훈 아이사랑 안경원 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이영임, 남경미, 신재호 학생에게 자원봉사자상이 수여됐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회원님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지각스님(동원사), 일명 스님(금선사)을 비롯해 200여명의 회원과 봉사자, 25개의 나눔의 집에서 동참했다.

생명나눔은 2013년 1년 동안 캠페인 활동을 통해 조혈모세포 124명, 장기기증 116명의 희망등록 활동을 펼쳤으며, 전체 708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지난 11월 27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생명나눔 치료기금과 헌혈증 1000매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해우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부안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 내소사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는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으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소사의 ‘여운이 넘치는 해우소’는 전통 한식 목조 기와집 형태의 구조로 육송이 사용됐고, 지붕은 한식 기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 게 특징이다.

또 외벽에는 내소사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효사, 저소득계층을 위한 나눔행사

추운 겨울에 힘든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온정이 전달됐다.

광주 원효사(주지 현지)는 12월 8일 경내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김장 행사를 갖고 광주 동구와 북구지역 저소득 계층 100가구에게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매년 저소득층에게 자비의 온정을 전달하고 있는 원효사는 이날 100가구에 김치 700kg과 연탄 4000장, 쌀 30포대, 이불 10채 등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원효사 신도회, 청년회 회원을 비롯해 송광운 북구청장과 직원,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은희 원효사 신도회 회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과 나눔행사를 갖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겨울이 춥다고 해 음식과 난방 등을 같이 지원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말했다.

이날 전달된 나눔용품은 북구청과 자비신행회를 통해 각 지역별 차상위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수행으로 찾는 일상의 행복

보리선수 부산 약사 선원 대규모 대중법회 개최


보리선수 부산 약사선원은 12월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제2회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를 개최했다.

티베트 밀교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대중법석이 마련됐다. 보리선수 부산 약사선원(주지 법생)은 12월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제2회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법회에는 '수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란 주제로 가피법회 외에도 다양한 체험행사와 시연이 이어졌다.

3천 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보리선수 약사선원의 건강수련법 중 하나인 오체투지, 대광명수지법 등의 명상법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부스가 로비라운지 전체에서 펼쳐졌다. 동시에 법회장에선 보리선수행체험담, 서울 약사선원 주지 각성 스님의 음악치유 법회도 마련됐다.

오후에는 본법회인 부산법당 주지 법생 스님의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가 3시간 동안 펼쳐졌으며, 약사여래심주 염송, 법문, 건강과 치유를 위한 가피 기도, 모든 참석 대중들의 축복을 염원하며 감로수를 머리에 적시는 감로가피와 마지막으로 부귀한 삶을 기원하며 길상복주머니를 나눠주면서 회향했다.

법생 스님은 법문에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 지극할 때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해 수행하기보다 아프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돕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라며 약사여래의 자비법문에 대해 말했다.

12월 10일 부산 벡스코서 티베트 수행법 지도

조희진 씨는 "박람회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보리선수의 수행법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불교도 이렇게 쉽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희연 불자는 "바쁜 일과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의 하나인 '팔괘'란 수행에 흥미가 많았다"며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했다. 김병기 씨는 "함께 박수도 치고, 몸도 두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염불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행복감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30여개 지역에서 선원을 개원해 불법수행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정기법회는 3월 8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지역 다문화 인식 개선 기원"

삼광사 '결혼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다문화 포럼'



'결혼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다문화 포럼' 장면

천태종 삼광사 힐링광장 다문화지원단(상임대표 무원)이 12월 11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부산 다문화 실태와 결혼 이주 여성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언어 소통,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성대학교 천성문 교수의 '부산시 다문화가정의 지원방향과 과제'란 내용으로 기조 발제하고, 김정원 힐링광장 문화예술단장의 사회로 김희영 부산시 여성정책 담당과장과 김길용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박은숙 동아대 인재뱅크 다문화지원단장과 로이알록 부산외국어대 교수, 막티흰 베트남음식전문점 투희엔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부산 다문화 가정의 현 위치와 다문화 관련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상임대표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문화 정책의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창립 1주년 부불승연 '108고승 법회'

부산 · 경남 27개 종단 참여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 회장 법민)가 창립 1주년을 맞아 12월11일 KBS 부산홀에서 '전국 108고승불자봉정사자후청법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혜총 대종사가 증명대법주로 전국 27개 종단의 종정스님을 비롯해 부산 · 경남 275개 사찰의 스님과 불자 5천 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는 "호국안보와 국가 경제발전, 국민 화합을 기원하며 전국의 불교 고승 108명을 초청해 탐 · 진 · 치 삼독 제거의 상징인 불자를 봉정하고 국론 통일과 경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법회"라며 취지를 전한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 이사장 조연 스님은 "불교 본래의 진면목을 표출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음악회와 한복 패션쇼도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소외이웃 위한 쉼터 운영

수산자비선원 이사장 법상 스님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수산자비선원(이사장 법상)은 '청소년 어르신 쉼터'를 운영한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숙식이 가능하며 자유의사로 언제든 가고 올 수 있다고 이사장 법상 스님(사진)은 말한다. 그는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니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고 2013년부터는 경남 수호천사 1004명의 일원으로 임명되기도 한 법상 스님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보금자리와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목욕봉사 등 실천하는 자비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있으며 농촌 노인들의 병원비 부담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소형버스나 봉고차량으로 목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도심 속 포교당인 수산자비선원에는 대법당과 주방, 목욕시설을 갖춘 20개의 방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5대의 봉사차량 등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봄을 준비하는 겨울철 조경관리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눈 오는 날이 잦아지고, 날씨도 영하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기상예보로는 올해 겨울은 날씨변동이 심하고 추울 것이라고 한다.

산사의 겨울은 도심의 겨울보다 더 춥다. 그나마 우리 사찰들은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있어 바람이 강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이 많아 덜 추운 편이기는 하다. 풍수적으로 좋은 땅은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해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따듯해서 좋다. 미기후적으로 볼 때, 온도변화가 적은 탓이리라.

예전의 산사는 자연환경이 좋아 특별히 나무를 심거나 못을 파서 연을 심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산사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신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 탓에 사찰마당에 나무나 꽃을 심기도 하고, 못을 파서 연을 심어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경의 결과는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특히 땅에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나무들의 경우에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추위에 약한 배롱나무(목백일홍)나 모과나무는 짚으로 나무줄기를 감싸주어야 하며, 장미같은 줄기식물들은 왕겨나 낙엽 같은 것을 뿌리부분에 덮어주는 것이 좋고, 다년생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왕겨를 덮어두어 보온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나무같이 바람에 약한 나무들은 주위에 장대나 철사로 지주를 세우고 비닐, 짚으로 찬바람이나 눈이 대나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방풍법을 쓰기도 한다.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아름답게 하고,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꽃눈을 관리하는 것도 겨울철에 해야 할 일이다. 가지치기는 겨울철 나무가 휴식기에 들었을 때 해야만 나무의 성장에 무리가 없다.

최근에는 눈이 오면 연화칼슘을 포설하여 눈을 제거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나무가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고 울력으로 눈을 치우는 것이 좋다. 염화칼슘은 나무의 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찰 못에 심은 연은 겨울철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요즘에는 플라스틱 통이나 토기로 만든 통에 물을 채워 연을 심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비닐을 덮고, 못 쓰는 이불 같은 보온재를 덮은 다음 천막을 덮어두면 이듬해에 아름다운 연꽃을 볼 수 가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동계에는 물확에 심어놓은 초화류나 연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경기도 ㅂ사찰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불상의 호상과 지면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있어 조각이 훼손되지 않아 '5cm의 기적' 이라고 불리운다.


신라 호국 가람 천룡사지 삼층석탑.


열암곡 석불좌상에 대해 최민희 소장이 답사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

남산의 수많은 성보들, 고요히 法悅 이루니…

신라 호국 신앙을 찾아서

완연한 겨울이다. 남도에도 찬바람이 거세다. 경주 남산도 녹음을 벗어내고 그 속살을 내보였다. 옷깃을 절로 여미게 하지만 답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울창한 녹음을 벗어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문화재와 주위 풍광의 조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마지막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신라 호국 신앙을 찾아서' 를 주제로 열렸다. 가장 먼저 답사단이 찾은 곳은 가장 최근 유명세를 탔던 '열암곡 마애불' 이다.

마애불, 왜 차양막으로 가렸나

2007년 발견된 마애불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의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 중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불상은 앞으로 넘어져 있었으나 불상이 조각된 면이 지면과 아슬아슬하게 이격돼 있어 그 모습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들어 세간은 '5cm의 기적' 이라고 찬탄하기도 했다. 마애불은 그 무게만 약 70t에 이르면 암석을 이용해 고부조(高浮彫)했으며 현재 암석의 남쪽 면 바위틈을 통해 대좌와 왼쪽 다리와 가슴?어깨 일부를 볼 수 있는 상태다.

본래는 바로 세우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세우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대로이다. 현재는 보존을 위해 암석 전체를 철제 울타리와 검은 차양막으로 둘러쌓여 있다. 성보를 검은 차양막으로 둘러친 모습이 왠지 흉몰스럽다. 마애불의 모습도 차양막 사이사이 구멍으로 겨우 확인할 수 있게 한 점도 아쉽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상의 규모는 대좌에서 목까지가 430㎝이며, 지면에 묻혀있을 불두(佛頭)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크기는 약 500㎝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상의 형태와 주변 유적인 열암곡 석불좌상과의 관계로 미뤄 마애불의 조성시기는 석불좌상과 같은 시기인 8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애불들이 수많은 세월의 풍화를 겪으면서 마모와 박락이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열암곡 마애불은 기적적으로 상태가 온전히 보존돼 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양막 구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불상의 측면 호상을 보아도 예술적 가치가 높음을 문외한도 쉽게 알 수 있다. 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눈매, 풍부한 양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에 갇힌 부처님… 문화재 복원 현주소

마애불 바로 위에는 열암곡 석불좌상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열암곡석불좌상은 8~9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2005년 10월 불두(佛頭)는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광배(光背)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경주시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7년 열암곡석불좌상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작해 2009년 마무리했다. 현재 상태를 보면 불두와 깨진 광배, 하대석(下臺石) 조각들을 접합 복원됐고, 대좌(臺座)의 부재 중 유실된 중대석(中臺石)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 형식에 따라 재현해 3단의 8각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석불좌상이 안치됐다.

불두는 보존처리 후 불신(佛身)에 붙이고 10여 조각으로 깨진 광배는 구조보강 작업을 거쳐 접합됐다.

불상에 대한 복원은 잘 이뤄졌지만 문제는 주위 경관과의 조화이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은 열암곡석불좌상이 가지는 위치와 환경이 남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산의 불상과 탑은 세상을 굽어보거나 부처님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산 자체가 탑의 기단이었으며, 수미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열암곡석불좌상의 주위를 보면 축대를 쌓아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남산이 가지는 신앙적 상징성을

'5cm 기적' 찬탄 열암곡 마애불
날렵한 콧날 · 눈매… 아름다움 감탄
축성으로 주변 복원 아쉬움 커
호국도량 천룡사, 탑만 덩그러이
국운을 좌우했다는 전설만 남아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법문을 설하실 부처님을 성 안에 가둔 행위입니다."

남산이 감춰놓은 절터와 불상

열암곡을 나와 심수곡으로 향했다. 수북히 쌓인 낙엽들이 미끄럽다. 미끄러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낙엽들로 인해 땅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점이다. 실수로 발을 잘못 딛으면 땅이 푹 꺼지는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생사, '조고각하(照顧脚下, 발 밑을 살펴 그 자리를 돌아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백운계와 심수곡 사이에는 절터와 유구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 온전하게 살필 수 있는 문화재 중 하나가 경주침식곡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2호)이다. 심수곡 평지에 위치한 석수암 사지에 있는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불은 석굴암 본존불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여래좌상으로 머리와 광배가 없어졌지만 전형 형식의 삼단대좌를 갖추고 있다. 목에 삼도(三道)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대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착용했고 옷 주름은 금속판을 포개놓은 듯 폭이 넓다. 양다리 사이의 부채살 주름도 부처의 신상(身上)과 한 몸으로 조각돼 있다.

블상 전면에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어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룡사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백운계를 지나면 고위봉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나온다. 고위봉 아래에는 신라 호국의 대가람이었던 천룡사가 있던 터가 나온다. 기록에 따르면 천룡사는 고위산을 뒤로 하고 약 20만평의 대지로 넓게 조영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는 따로 천룡사편이 마련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천룡사는 신라 문무왕 이전에 이미 건립돼 있었으며, 사명(寺名)은 절을 지은 사람이 딸의 이름인 천녀(天女)와 용녀(龍女)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천룡사는 국가의 명운과 관련이 있던 신성한 사찰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당나라 사신 악붕구(樂鵬龜)거사가 와보고 말하기를 "고위산 천룡사가 파괴 되면 곧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했다. 실제 신라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되니 신라가 망했다고 한다.

지금 천룡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천룡사지 삼층석탑이다. 석탑 인근에는 최근 새로 개설한 천룡사 임시 법당이 있다. 답사를 간 날에도 현재의 천룡사 신도들이 탑 주위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천룡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1188호로 지정됐다.

1990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주관해 탑지 주변을 발굴하고, 무너져 있던 탑을 정영호, 장충식 등 고고학자들이 1991년 복원했다. 당시 조사 결과 기단이 1단임이 밝혀졌다. 없어진 기단 면석 8매 중 7매, 기단 갑석 4매 중 3매를 기존 석탑과 같은 재질의 돌로 보완했다. 상륜부는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남원 실상사 석탑의 상륜을 모본으로 해 만들었다고 한다.

천룡사지를 지나 남산 아래에 도착했다. 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과 부산한 사람들이 있다. 신라 불교의 면면이 남아있는 남산을 현대인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옛날 장인들이 보여준 삶의 치열함과 부처에 대한 애경심에 종교를 떠나 무한한 존경을 느끼기 때문이다.

겨울 해가 뉘엿히 저문다. 연재의 마지막은 강인숙 시인의 시 '남산-사사성장 탑탑안행' 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신라인들 /신이 내려온 산기슭마다 마을을 이루며/ 곱고도 아름다운 원을/ 연꽃 같은 마음으로 새기니/ 산굽이 굽이마다 절은 밤하늘 별처럼 많고/ 탑은 기러기 날 듯 줄 지어 서고/ 불상은 바위마다 그림자를 드리워/ 천 년 전 남산, 얼마나 화려 장엄했을까 〈중략〉/ 어머니 품 속 같은 달빛 아래/ 절과 탑과 불상은 고요히/ 법열을 이루어/ 남산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으리" 〈끝〉

경주 남산=신중일 기자

봉 법왕 즉위 10주년 기념 평화 대법회 행


미산 천강

귀의삼보하옵고
(사)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용호사에서 법왕 즉위 10주년 기념 평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종정, 총무원장,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 소 : (사)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용호사 법왕청 법왕궁
일 시 : 불기 2557년 12월 24일 (화) 오후 2시

■법왕청 최고위원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법광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해동불교조계종	종정	지현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총남불교조계종	종정	청암	
대각교단총재		태화	
해동불교화엄종	종정	지엄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당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향운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혜성	
(사)수산자비선원	이사장	법상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법왕종	종정대행	보문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금조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정일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호국호국사 지도법사	대정	영월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대천	
한국불교법륜조계종	종정	법륜	
통합불교아마타종	종정	법안	
해동불교달마종	종정	죽암	
대승불교달마종	종정	청원	
극락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오작교	
대한불교대광명종	총무원장	철암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종정	은곡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불일조계종	총무원장	고석	
대한불교일월종	총무원장	대원	
생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진관	
전통불교조계종	천룡암주지	혜운	
한국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법상	
대한불교극락지장종	총무원장	청해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주지	세정	
사)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월	

(사) 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용호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49-1 / 전화 043)253-7657, 011-469-2917(천강 직통)

불교와 미학

'관무량수경'의 16관법

'마음 청정'이 극락 관상하는 16관법

현대를 이미지 범람의 시대라고 한다. 매일매일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디자인, 광고, 게임, 만화, 유튜브, 인터넷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길을 가든 지하철을 타든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고, 젊은이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나 디지털이미지를 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이제 가상과 진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고 더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논리적인 사유나 반성적 성찰보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는 디지털적인 감수성이 더 호소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이미지들은 감각을 깨어나도록 하여 풍부하게하기보다 과도한 이미지 속에서 오히려 전례에 없던 감각의 혹사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이미지는 '파편처럼 단편적인 양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이다. 그렇다면 범람하는 이미지 한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감각을 구제하는 길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감각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의 지멸이다. 따라서 아사세에 의해 궁전에 유폐된 위제희 부인이 부처님이 왕림해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수행법으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저무는 해를 관상하는 일몰관(日沒觀)이었다.

일상관(日想觀)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법은 감각을 통해 감각을 사라지게 한다. 빛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삼라만상의 현상적인 차별을 드러내기 때문에 태양의 저묾은 곧 각양각색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현상세계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지는 해와 함께 조용히 어둠이 찾아오면, 감각도 사라지고 수많은 이미지로 형성된 차별적인 현상세계도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마음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적멸의 세계로 들어가 깊은 휴식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는 위제희 부인에게 부처님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말없이 관조하도록 하였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의식을 집중하자 위제희 부인의 들끓었던 마음도 가라앉았다. 그의 고통과 원망도 사라졌다.

그런데 위제희 부인이 왕생하기를 희망했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모든 차별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세계가 아니다. 그곳은 가장 즐거운 세계, 따라서 무의식에 침잠한 무(無)의 경계가 아니다. 따라서 감각이 잦아들고 맑고 명징한 정신이 깨어나면, 태양이 저문 그곳이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빛의 세계였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로 맑고 투명한 물을 관상하는 수상관(水想觀)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로 통일되면, 명징한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투명하게 안팎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극락세계의 유리 같이 투명한 땅 아래로 금으로 만든 당번들이 대지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당번이 칠보로 장식되어 있으며 여덟 면에 달려 있는 백가지의 보배구슬이 일만 사천 가지 색으로 광채를 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빛으로 가득 찬 아미타불의 세계, 극락정토는 모든 존재가 찬연하게 빛나는 세계이다. 하나의 근원에서만 빛이 유출되는 우리들의 사바세계와 달리 극락세계는 무한한 빛의 부처님인 아미타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빛을 방출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빛 물결 가운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일미평등한 법계가 펼쳐진다.

네 번째 지상관은 수상관을 분명하게 관하여 그 영상이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이 땅을 관하는 사람은' 이 관법을 통해 삼매를 얻으면 불국토를 분명하게 보게 되어 "80억겁 생사의 죄를 면하게 되고 죽은 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극락세계에서 감각은 억제되거나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비추는 진실한 것이다. 유리로 만들어진 땅 위로 난 황금의 도로와 그 위로 쏟아지는 무한한 빛,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누각과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소리. 나무와 연못, 누각까지도 모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백억의 태양과 달이 한데 모여 비치는 것'과 같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감각은

이미지 범람 시대서 '나 지키기'
감각이 나고 사라짐을 관상하는
'관무량수경'이 해답 줄 수 있어

극락세계 이미지와 소리 표현은
수행 방해물 아닌 깨달음의 방편
일반 수행과 달리 감각들을 수용

맑고 미묘한 물소리와 누각에서 천인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을 섬세하고 또렷하게 지각한다.

감각은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맑고 또렷하게 꿰뚫어보고 현상세계에서 '무상', '고', '무아'를 깨닫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자를 기억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극락세계에서 소리와 이미지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흐리는 방해꾼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수단이 된다.

제7 화좌상관(華座想觀)과 제8 상상관(像想觀)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관상하고, 좌우에 있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이 때 무량수불이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형상은 실재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다. 하지만 한번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한 번 부처님이 되고 두 번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두 번 부처님을 닮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처님과 국토를 상상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부처님을 맞으러 가면 부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제9관을 통해 마침내 아미타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고, 이어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진신도 친견한다. 아미타불을 뵈었을 때의 감격과 아름다움을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 서복사에 소장된 '관경십육경변상도(202.8 × 129.8cm, 비단에 채색, 고려 시대)'.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관무량수경〉의 〈정종분〉을 도해한 장면이다. 불교의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열여섯 가지 관상법과 그 이후 나투는 아미타 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자세하게 풀어 그렸다. 가운데가 삼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품, 중품,하품의 중생들이 연못에 연꽃으로 태어나고 있다.

"키는 육십만억 나유타항하사유순이며, 미간의 백호는 바른쪽으로 우아하게 돌아, […] 다섯 개의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사해의 물과 같이 푸르고 빛난다. […] 온몸의 모공에서 빛이 흘러나와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의 원광은 백억 삼천대천세계와 같다. 그 광명 속에 백만억 나유타항하사의 화불이 있고 낱낱 화불마다 무수한 화보살이 있다."

열두 번째 관상법인 보관상관(普觀想觀)은 관상자 자신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연꽃 속에 결가부좌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연꽃 속에서 하늘에 가득찬 불보살님을 뵙고 목소리를 듣는다. 이 단계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열세 번째 잡상관(雜想觀)은 아미타불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어떤 때는 큰 몸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일장육척의 작은 몸으로 나타난다. 상상의 이미지와 진짜 부처님이 진실로 하나가 되는 단계이며, 극락세계가 모두 아미타불의 광명에 조응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 광명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로써 극락세계에 대한 관상이 끝나는데, 이를 정선이라고 하여 일정한 수행을 거친 자들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

남은 세 가지 방법은 삼관구품에 따라 염불하는 것인데, 오역이나 십악을 저지른 흉악한 자들도 임종 때 지극한 마음으로 십념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80억겁의 죄악을 용서받고 극락왕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 후 12대겁이 지나면 비로소 연꽃이 피는데, 그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대비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얻는다. 이를 산선(散善)이라고 한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지극한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무량수경〉에 소개된 극락세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열여섯 가지 관법은 일반적인 명상수행과 달리 감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형상을 관해야 한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잠무강에서 나는 금빛 같은 보석의 형상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손바닥을 펼쳐 보이듯 그 영상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 이렇게 관상을 하면 부처님과 보살의 상이 다 광채를 발한다. […] 선정에서 나왔을 때 선정 속에서 들은 것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경전에 기록된 것과 대조해보라. 만약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망상이고 들어맞으면 거친 세계로 극락세계를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된 영락, 일산, 당번, 꽃, 누각 등으로 법당을 꾸미고 도량이나 국토를 엄숙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행위를 '장엄(莊嚴)'이라고 한다. 극락세계가 이토록 아름답게 장엄된 것은 아미타불이 전생에 비구였을 때 발원한 48가지의 서원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국토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룬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래의 목적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이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장엄'의 뜻에는 '무구(a-mala, mala-visuddhi)'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불교는 번뇌에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관무량수경〉의 16관법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량수부처님의 저 아름다운 세계를 관상함으로써 위제희 부인의 죄업이 청정해졌던 것이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약사여래부처님은 계십니다!! 병고가 치유되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약사여래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허리통증이 치유되다

저는 허리통증으로 근 30년 가까이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 혜명스님께서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날짜를 빨리 잡아주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약사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만같게도 서 있지도 못한 제가 조금씩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리병을 지금까지는 내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해서 아프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병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업으로 인한 업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 대구에서 정영순 불자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법 : 매일 〈약사여래본원경〉을 읽고 '약사다라니'를 하고 참회 · 발원을 한 다음 '약사여래불'을 간절히 정근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현신해서 당신의 병고와 관련된 업장을 소멸해주시고 병고를 치유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청정수를 준비했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십니다.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 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⑫ 형제봉



언젠가 두 형제가 마주하고 살 수 있기를…

형제봉 능선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로 큰 봉우리의 높이는 해발 463m, 작은 봉우리는 해발 641m로 기록되어 있다. 보현봉의 지맥으로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평창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등산 안내서에 이름의 유래와 시원을 알 수 없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숙종실록〉 49권, 〈정조실록〉 47권에도 형제봉이라는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유래에는 온조, 비류 형제가 나라 터를 잡기 위해 올랐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학자들도 부정하는 견해이며, 양명학의 학풍과 도가적 술법을 계승한 정길준 형제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형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단순히 산의 모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주한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우애롭게 보인다하여 그렇게 불렀을 것이며 이러한 이름은 전국에 적어도 30개 이상 된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

아주 옛날 북한산에는 많은 호랑이 가족이 살았다. 그 가족 중에 건과 곤이라 불리는 형제가 있었다. 형 호랑이 건은 용맹스럽고 강인하여 산중의 왕이었으나 곤은 생각이 많아 사냥도 하지 않았다. 건은 항상 넉넉하게 먹이를 준비해 주었지만 곤이 잘 못될까 염려스러웠다. 건이 어찌하여 사냥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느냐 물었다. 곤은 지난번 토끼 사냥을 한 후에는 가엾은 토끼가 살려 달라 애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찌하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건 모든 생명이 다 마찬가지지.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누군가는 잡아먹으면서 사는 게 생명의 법칙이란다. 특히 우리 같은 동물들은 더욱 그렇다."

형이 말하는 생명의 법칙을 동생 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곤아, 그럼 문수봉에 가서 놀아라. 문수동자가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거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문수보살도 뵐 수 있겠지."

한없이 선량한 눈을 한 곤이 더 이상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 토끼를 사냥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건은 그렇게 말했다. 곤이 문수봉에 가서 있는 동안 건은 커다란 바위에 늠름한 몸을 쭉 펴고 두 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문수봉에서 놀고 있는 곤을 지키는 한 편, 자신의 존재를 산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강한 힘을 가진 숲속의 제왕인 자신을 보고 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랐지만 곤은 말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힘이 싫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싶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건은 그런 동생이 부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다. 어느 날 큰 산불이 나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과 곤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형님, 육십갑자가 열 번 정도 지나면 우린 사람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 다시 사람형제로 만납시다."

둘은 꼭 끌어안고 다음 생을 약속했다.

때는 고려 말,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두 형제, 천(天)과 지(地)는 큰 뜻을 세우고 부모님을 떠나 삼각산에 들어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개경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고려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형제는 당장 산을 내려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당부가 있었기에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다. 형 천은 바위산에 올라가 앞날에 대해 생각했고, 동생 지는 문수봉에 올라 기도를 했다. 천과 지는 삼 일 만에 만났다.

"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형님, 우리는 고려의 재상이 되겠다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둘은 의견이 달랐다. 그러나 누구 하나의 의견만을 따를 수는 없었다. 대신 각자의 길을 가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생각했다. 동생 지는 형에게 말했다.

"형님, 저는 송악산으로 들어가 수도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뵙지요."

"그때가 언제란 말이냐?"

"육십갑자가 열 번 지난 후입니다."

"육백년 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형제가 힘을 합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육십갑자가 지난 후에 우리가 형제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는 가슴에 총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형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면 비로소 태평성대의 기운이 이 강산을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형님이 다시 만나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동생 지는 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송악산으로 떠났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바위에 서서 다시 만나길 기다리겠다는 형의 절규가 삼각산에 메아리쳤다. 그때 삼각산 봉우리의 수많은 바위들도 언젠가 두 형제가 이 산에서 마주하고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다.

육십갑자가 열 번 지나는 날이 언제냐구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기운과 세상만물이 만들어 내는 기운과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개개인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가 찾아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겠지요. 세상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정확하게 대답 할 수 없는 일들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얘기꾼〉 조형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고 싶다는 순례지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⑫ 고야산 ㊦





고야산 곤고부지(金剛峯寺)의 입구(사진 왼쪽)와 경내의 석정 '반류정'. (사진 오른쪽) 곤고부지는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고야산 사찰을 대표한다.

고야산은 과거 7000개 이상의 사원이 존재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원이었고 불교도의 성지였다. 현재 고야산에는 진언종 총본산인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해 117개의 사찰이 상존한다.

곤고부지는 진언종의 시조인 홍법대사 구카이 스님이 포교 활동의 거점으로 삼은 사찰이다. 그런 이유로 곤고부지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곤고부지라는 명칭은 구카이 스님이 불경에 나오는 '금강봉루각일절유가유기경(金剛峯 閣一切瑜伽瑜祇)'라는 대목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곤고부지는 원래는 고야산(高野山)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기도 했다. 하지만 1869년 2개의 사원이 통합되면서 사찰의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곤고부사의 전신인 세이간지(靑巖寺)는 159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건립했으며, 1863년 재건되었다. 이곳에는 역대 일왕이나 진언종관장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사찰 내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동서 길이 약 60m, 남북 길이 약 70m의 본당을 비롯하여, 종루, 서원 등 여러 채의 전각들이 있다. 류로도(柳鷺圖)가 있는 야나기노마(柳の間)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할복 자살한 곳이기도 하다.

곤고부지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반류정(蟠龍庭)'이라는 정원이다. 약 2,340㎡ 규모의 반류정은 일본 최대 석정(石庭)으로 140개의 화강암의 배열은 구름으로부터 나타난 두 마리의 용이 절을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야산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공동묘지인 '오쿠노인(の院)' 참배이다. 곤고부지에서 오쿠노인까지는 버스로 10분정도 이동해야 한다. 오쿠노인을 일본인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꼭 한번은 가봐야 하는' 일본 최고의 성지라고 말한다.

홍법대사 구카이 스님의 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2㎞ 참배로에는 20만기 묘비들이 상존한다. 그 옆에는 500년 가량의 삼나무 숲과 함께 펼쳐져 있다. 이들 묘비는 황실, 귀족, 다이묘(大名) 등의 묘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야산 순례의 백미 오쿠노인(の院).



일본 진언종 종립 고야산 대학.

日 진언종 본산 곤고부지서
구카이 스님 발자취 느껴
20만기 무덤있는 오쿠노인
전나무 숲길 걸으며 '힐링'

최근에 만들어진 오쿠노인의 비석들은 재미있다. 석탑은 기본이고, 커다란 구슬, 커피잔, 심지어는 로켓까지 있다. 실제 커다란 구슬은 빠징코 회사 회장의 묘이며, 커피잔은 유명 커피메이커 대표 가문의 묘이다. 고베, 동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위령탑과 묘도 있었다.

구카이 스님의 묘가 있는 곳은 모자를 벗고 예를 갖춰야 할 정도로 성지로 극진히 모셔져 있다. 카메라 촬영은 일절 금지이며 말 소리도 낮춰야 하는 '침묵의 장소' 이기도 하다.

고야산에는 따로 숙박업소가 따로 없고 사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예부터 참배객들이 쇄도했기 때문에 발달한 문화로 숙박을 운영하는 사찰을 '슈쿠보(宿坊)' 라고 한다. 현재는 53개의 슈쿠보가 운영중인데 참배객이 임의로 골라서 묵을 수가 없고 와카야마현에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고 알려졌다.

슈쿠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의 사찰 음식인 '쇼진(精進)요리' 이다. 고기와 생선류를 사용하지 않고 산나물과 야채로만 만든다. 파, 양파 등 향이 강한재료 또한 사용하지 않으며 제철 식재료만 활용해 맛이 담백하다.

고야산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학교이다. 고야산 영지 내에는 고야산 대학을 비롯해 소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야산 대학의 경우 진언종 수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다.

홍법대사 구카이 스님이 개창하고 일본 최고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고야산은 2015년 창건 1200주년을 맞는다. 전통을 지키며 시대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본 불교의 단면을 고야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 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모든 견해 내려놓으면 그곳이 불국토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무름에 자유를 잃게 된다. 깨달음[菩提]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4〉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정토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놓고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여 국집하게 되고, 국집하면 인과에 구속되어 괴로움이 발생한다. 본래 당처에는 중생은 물론 부처도 없고, 생사는 물론 열반도 없다. '있다, 없다' 하며 분별하는 것은 다만 허물을 짓는 것이지, 실상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도 부득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 실체는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체득한다는 것도 한 번 흘깃 본 것만 가지고는 여기 배휴처럼 힘이 약해서 경계 따라 차별된 모습에 자꾸 달리게 된다. 따라서 한 번 본 후에도 계속 정진하며 세월을 잘 보내야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여래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근기에 응하여 자비심으로 부처니 중생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하며 온갖 말로 설파해 놓으셨다. 이런 방편 설법을 보며 뭔가 반짝했더라도, 그것은 임제스님이 얘기한 삼구법문(三句法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삼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제도 못한다."고 한 것이다.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짐짓 설명해 놓은 것을 이해하여 그 말을 배워 익힌다고 해서, 일구(一句)의 낙처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확 뚫리지는 않는다. 아무리 잘 이해해도, 그것은 생각 속에서 알음알이를 짓는 것이어서 결국 다시 답답해지고 만다. 구름이 걷혀야 청산이 드러나듯이, 알음알이의 밑창이 한 번 확 터져야 한 법도 세울 수 없는 그 자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법이다. 조사들이 시설해 놓은 관문인 조사관(祖師關)을 뚫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명하고 확철하게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그러므로 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아뇩보리라 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으면, 마음속은 밝고 또 밝아질 것이다.

번뇌는 본래 허망한 것이어서, 다만 사라지면 그뿐이지 따로 법이라고 세울 게 없다. 번뇌가 없으면 따로 보리라 할 것도 없다. 본래 청정하여 얻을 게 없음을 일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였다. 이 뜻을 알아듣고 더 이상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말에 속지 말고 다만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이면서 세월을 잘 보내다보면, 나날이 마음속이 밝아져서 기필코 오늘 보다 나아진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번뇌는 본래 허망하여
다만 사라지면 그뿐이지
법이라고 세울 게 없다.
본래 청정해 얻을 게 없음을
무상정등각이라 했다.

중생은 상(相)을 좋아하여
애지중지하는 것을 붙잡아
결코 놓으려 하지 않는다
불국토에 들어가려면
모든 견해를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아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알음알이를 채우려들지 말고 기존에 붙잡고 있던 모든 악지악각(惡知惡覺)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마음 비우고 살면 그것보다 가벼운 게 어디 있겠나?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머리이면서 밖으로 머리를 찾아 헤매지 말고, 단지 이 마음을 인연 따라 잘 쓰면서 임운등등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유마거사가 말했다. '가진 것을 없애 버렸다.'「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게 하였다.'

중생은 상(相)을 좋아하여 각자 애지중지하는 뭔가를 붙잡고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 그것이 냄새나는 똥인 것이다. 장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나, 오래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은 거지생활을 너무 오래하여 본래 자기 집인 이 부자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중생이 무상(無相)의 본지풍광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냄새나는 똥인 상(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자는 거지 아들로 하여금 먼저 변소에서 똥을 치우게 하였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도록 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희론(戱論)의 똥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래장은 본래 스스로 공적(空寂)하여, 한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경에 말씀하셨다.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있다.'

가장 냄새나는 똥은 마음속에 지은 견해다. 희론의 똥인 법상(法相)이야말로 제거하기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중생은 그것이 곧 진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고 익혀서 얻은 것은 모두 희론의 똥이다. 진정한 보물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뭔가 밖에서 배우려고 본성의 집을 나가 떠도는 모습이 곧 거지요 외도다. 우리 모두는 본래 장자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이 뜻을 알아채야, 비로소 조잡한 외도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불조께서 한결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수용해야 비로소 불법 공부가 바른 방향을 잡고 진행될 수 있다. 실로 이 대목이 바른 공부의 갈림길이다. 유마거사가 분명히 말했다.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국토에 들어가려면, 모든 견해를 놓아야 한다. 만일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면, 선 자리가 즉각 불국토로 화할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⑩



자기 장점 드러내고 타인 장점 숨기면…

〈범망경〉

원효를 위한 변명

"원효스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로 할까?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가령, "좋아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널리 알려진) 스님이 원효 스님이라는 데에는 이견(異見)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일까?

사실은, 우리 불교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효 스님이 가장 널리 알려진 데에는, 어쩌면 그가 파계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석공주와의 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았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 그는 분명 그랬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소성(小姓)거사"라 자칭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효가 있다. 그가 파계했다고 해서, 그에게는 지계의식(持戒意識)이 없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파계를 했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다른 어떤 스님들보다도 더 깊은 지계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금 전하는 저술들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효는 몇 권의 중요한 계율관계 저술을 남기고 있다. 고백하자면, 나는 원효 스님 글을 읽은 것이 별로 없다. 다만 몇 권의 책을 편독(偏讀)을 했을 뿐인데, 그것들은 모두 계율관련 저서이다.

하나는 그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이고, 다른 하나는 보살계와 관련한 논문이라 할 수 있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이다. 이 중에 특히, 내가 좋아하는 글이 〈보살계본지범요기〉이다. 그 제목의 뜻은, "어떻게 하면 보살계를 지킨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범한 것이 되는가에 대한 요점 정리" 정도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율

놀랍도다, 원효의 안목이여! 놀라운 것은, 그가 보살계의 총 58개조나 되는 계율 중에서 단 하나의 계율만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안목이 높다는 것은, 그가 "불자찬훼타계(不自讚毁他戒)"를 가장 중요한 계율(第一戒)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불자찬훼타계는, 〈범망경〉의 보살계본에서는 10가지 무거운 계율 중의 일곱 번째이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욕됨을 당할 것이며, 나쁜 일은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할지어다. 자기의 장점(德)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한마디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이다. 원효는, 어찌 보면 간단할 것도 같은 이 계율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책을 한 권 집필했던 것이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는 이 계율을 그렇게 중시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구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사상은 결코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효는 결코 자기 삶을 떠나서, 경전을 읽지 않았다. 자기 삶과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불교교단을 모두 헤아리면서 경전을 읽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뒷날 "화쟁(和諍)국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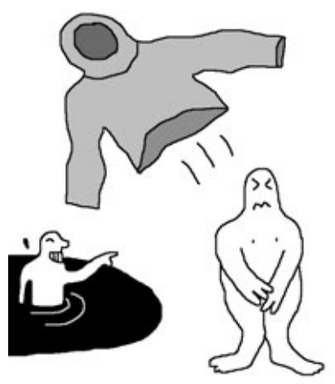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호(號)가 주어졌다. '국사'는,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과 사상을 '화쟁'으로 정리한 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화쟁! 그렇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 역시 화쟁이다. 어떻게 화쟁을 이룰 수 있을까? 또한 과연 무엇이 화쟁을 방해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원효는 그 해법을 '자찬훼타계'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 말이다.

보라! 싸우는 사람들을 … 언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저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들 훌륭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런데 우리의 자아의식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나는 훌륭하고,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 말하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

강원도 동해안 조그마한 암자 향운암은 약사기도 도량으로 불자님의 심신의 건강과 기도 정진의 귀의처였으나 진입 통행로의 임야를 경기도의 어느 재력가가 2억 미만에 매입하여 약 8억 원에 매입을 하라고 해서 너무 고액이라서 매입치 못한다고 하니 진입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철조망으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 하였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금까지 무주상 보시한 불자님들의 간곡한 성원으로 법원 승소 판결 및 산주의 협조로 진입로 소통 및 일부 포장까지 하였습니다. 무주상 시주한 불자님의 연락을 꼭 바랍옵고 항상 불은이 함께 하시길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향운암 대웅전이 퇴락하여 대웅전
중창 불사를 발원 합니다.

향운암에 원기둥 10개 대들보 2개가
있으면 중창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 할 수 있게
불자님들의 동참을 발원합니다.

심신의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약사기도 도량 약수가 있고 약쑥 뜸 식이요법 및 요양으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및 방문 바랍니다.**

여생을 절에서 생활 하실 분1인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양주 구함. 노보살님(불심 있는 분)

연락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향운암 주지 무진
☏ 033) 532-1773. 010-2873-2888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누워서 허리뜸 · 배에는 단전뜸 · 앉아서 좌훈뜸 · 편안히 무릎뜸
악성피부 · 아토피 · 버거씨병 · 파킨스병 · 통풍 · 관절 · 무좀
고통 · 통증 · 허리디스크 · 협착증 · 건선 · 수족냉증 · 비염
황토 · 상황 · 훈증 · 좌훈 · 쑥뜸 · 침대 (특허번호 제 10-2011-011722호)

대구 수성구 두산동 82번지 건장사(스님은 무보시 치료)
011-573-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新 영성 향상법

제 1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불법 포교와 평안을 찾아 활기찬 인생을 살려는 분.
- **수련기간**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부터**
매주 화요일
3개월간 (하루 2시간씩, 18시 ~ 20시)
선착순 10명
- **수련내용** 순수자각 – 행복감 솟아나게 하기 연습.
영성중심 기둥 세우기 실습.
웨이스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 – 듣는 명상 실습.
- **학습내용** 프랭크 칸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코스몰로지(우주생명관)의 확립을 위하여
연기론과 6바라밀의 실천
구르지에프의 다중 아이덴티론과 셀프 리멤버링론
화이트 이글의 힐링과 실버버치의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오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학 등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레이키
교육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사모하는 情’ 안타까운 속내 드러내

〈완당척독(阮堂尺牘)〉은 추사의 편지를 모아 상, 하(上下)로 편집한 책이다. 1867년 〈담연재시고〉와 함께 간행된 〈완당척독(阮堂尺牘)〉은 추사와 교류했던 당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백파와 초의 같은 승려들에게 보낸 편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추사의 학맥이나 교류 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답초의상인〉장에 분류, 총 12신이 수록되었는데, 12신의 편지 중에는 〈완당전집〉 ‘여초의’와 〈벽해타운첩〉, 〈영해타운첩〉에 중복된 편지가 무려 11신이나 되고, 여기에 소개할 편지만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강상(江上)에 머물던 시기에 보낸 편지라 추정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우 읍내에서 온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 승려가 가져온 그대의 편지를 받고, 돌아간 후에도 참선과 독송(讀誦)이 길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편지를 받은 후에도 수행이 가볍고 편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 세간에도 맑고 신성한 부처님의 은택이 내려져 (세간의) 사람을 다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행차는 모레쯤 길을 떠난다하여도 그대와 함께하기는 또한 멀 것입니다. 강상의 구름과 안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생각으로만 사모하는 정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설령 생각과 마음을 놓아버린다하여도 일종의 속진 뿌리를 반드시 갈아 없앴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금강의 영신에 의거하여 논한다 해도 이는 들쭉날쭉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케 합니다. 만약 나의 행차가 잘못된다하여도 멀리 밖의 일이니 어찌 반드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곧 달 승려를 선사(仙寺)로



추사의 편지를 모아 상 · 하로 편집한 책 〈완당척독〉.

〈완당척독〉 추사 편지 모은 책
추사의 학맥과 교류 자료
초의에게 보낸 편지 12신 수록

돌려보내더라도 찾아 온 곳이니 그대는 당연히 나의 습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웃겠지요. 껄껄… 응언(應彦)과 정 두 승려가 만일 읍의 역참(驛站)을 따라온다면 마침내 지난 일을 보답할 수 있으리니 미리부터 기다려지고 기다려집니다. 여기 복 승려가 돌아간다기에 잠시 이곳의 소식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從邑便有書 未知收照歟 達衲之來 承獲梵緘 知歸錫吉利 想於書後 禪誦輕安 不覺此世間 梵雨 人甚善甚善 此行以再明起程與師亦遠矣 江上煙雲能無頭依依戀否 雖遣想遣心 一種根塵必有不可磨滅處耳 金剛依領信論之 又此參差 令人可歎 如失此行遠外事 又何可必也 卽使達衲轉送仙寺爲推來地 師當笑我習有未除矣 且呵且呵 彦靜兩衲若往邑站來會可酬夙昔 預企預企玆因福衲之歸 暫此申復 都留不式)

추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나의 행차는 모레쯤 길을 떠난다하여도 그대와 함께하기는 또한 멀 것입니다”라 한 것으로 보아 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경황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강상의 구름과 안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생각으로만 사모하는 정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초의에게 되물어 자신의 안타까운 속내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세속에도 맑고 신성한 “부처님의 은택이 내려져 (세간의)사람을 다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기원했던 그였지만 생각과 마음을 “놓아 버린다하여도 일종의 속진 뿌리를 반드시 갈아 없앴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 있다”는 현실을 탄식하였다. 언과정 승려는 추사에게 도움을 준 인물인 듯, 정 승려와 편지를 전한 달 승려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응 승려는 만덕사에 주석했던 혜장의 제자, 체경(鯨)인 듯하다. 〈동사열전〉에 “그는 영암 사람으로, 만덕사에서 출가하였고, 어려서부터 강개(慷慨)한 뜻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읍의 역참을 따라 온다면 “지난 일을 보답할 수 있어서” 미리부터 기다려진다는 추사의 말은 이들에게 보인 그의 우정과 살가운 인간의 정이 느껴진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효도 받으려면, 효도 가르쳐야죠”

무구 스님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 우리출판사 대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6번지. 1983년에 문을 연 수효사. 그곳엔 복지관이 함께 있다. 8층짜리 건물엔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란 간판이 걸려 있다. 12월 11일, 대표이사 무구 스님을 만났다.

1층 법인사무국, 우리출판사, 2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층 실버하우스, 5층 수효노인요양시설, 6층 효림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연꽃간병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자원봉사실, 수효사회복지대학, 7층 요사채, 따주기 공덕회, 그리고 8층이 수효사다.

스님은 아직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다. 주인 없는 방에서 스님을 기다려야 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앞에 사진 한 장이 놓여있다. 백발의 할머니 일고여덟 분이 앉아있고 그 사이에 무구 스님이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할머니들과 스님이 함박 웃고 있다. 왠지 준비해간 질문들의 대답들이 그 사진 속에 있는 듯 했다. 수첩에 적을 수 없고, 녹음기로는 담을 수 없는 대답들이 거기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스님께 들어야 할 대답들이 그 사진 속에서 시작될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이 되자 사진 속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역시 사진 속에서 보았던 웃음 그대로다. 그토록 환하게 웃고 있는 스님에게도 어두운 시간은 있었다.

두 번의 출가

청소년 시절부터 여느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던 스님은 어른들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 스님이 되고 싶다고 했단다. 중학교 때 해남 대흥사 근처 이모님 댁에서 지냈던 스님은 이모부와 이모를 따라 대흥사에 갔다가 한 스님을 뵙게 되는데, 맑고 곧은 스님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불교’라는 씨앗이 가슴 속에 뿌려진 순간이었다. 중학생 소녀에게는 그 ‘스님’이 곧 ‘불교’였다. 스님은 그 뒤부터 막연하게나마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연’이었다. 무구 스님은 그 영향으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다.

스님은 청소년 시절부터 삶에 대해 남달리 진지했다. 마냥 즐겁고 해맑아야 할 중학생 소녀의 마음속엔 늘 ‘산다는 것’이 들어 앉아 있었다. “산다는 것이 과연 무얼까?” 소녀는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학생 소녀에게 그 의문은 버거운 것이었다. 교실 칠판에도, 세상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 속에도 그 버거운 의문의 대답은 없었다.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들은 이십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삶은 공허하기만 했다. 스님의 마음은 산다는 것, 즉 생사(生死)의 문제로 가득했다.

부처님을 비롯해 많은 불제자들이 그랬듯이 결론은 출가였다. 출가한 스님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가를 후회했다. 스님은 출가만 하면 생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 수행하고 또 수행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행자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행은커녕 하루 종일 절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수행자의 생활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첫 출가를 접은 스님은 다시 몇 년의 세월을 의문 속에서 보낸 뒤 다시 발심하게 된다. 스님은 ‘불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첫 출가를 너무 쉽게 접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출가했고 알게 됐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일 속에 수행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대문 없는 절(포교당)

출가자 본분의 회향은 전법이다. 스님은 도심에서 포교당을 하고 싶었다. 1983년 스님은 지금의 자리에 수효사를 세운다. 그런데 수효사엔 대문이 없었다. 스님은 도심에 있는 절이라도 절에 대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절이란 누구나 언제라도 오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문 없는 절, 수효사는 절이라기보다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자기 집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으면 수효사에서 가족을 기다렸다. 약속도 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수효사에서 만났다. 어려운 이들도 수효사를 찾았다. 수효사에 가면 하루에 밥 한 끼 값을 받아갈 수 있었다.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수효사를 찾았다. 수효사는 배고픈 사람은 허기를 달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안을 받아가는 곳이었다. 그렇게 수효사는 불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들르는 곳’이고, 힘든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수효사와 무구 스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곳이었고, 그런 존재였다.

이미 시작된 복지

많은 사람들이 수효사를 찾았고, 스님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효사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고단함을 듣고 싶었다. 스님은 1983년부터 ‘자비전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스님은 더 많은 중생의 아픔을 듣게 됐다. 스님은 앉아서 오는 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찾아가는, ‘봉사’를 생각했다.

명절 때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제수음식을 만들어 배달했고,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반찬 배달을 간 봉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던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의 양로원을 찾았다. 보육원을 찾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전했고,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첫 출가 접은 후 ‘일=수행’ 알게 돼
1983년 상담전화 ‘자비전화’ 개설

독거노인 대상 제수용품 · 반찬 배달
양로원 · 보육원 · 군부대 방문 봉사
2004년 법인 수효사효림원 설립
효림데이케어센터 등에 50여 명 수용

1980년 출판사 설립 200여 종 출간
남은 원력 복지인력양성과 교육
묵언 · 단식 등으로 수행자 본분 재발심

그렇게 수효사와 무구 스님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노후’를 부탁하기 시작했다. 기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자신들의 말년과 죽음을 거두어 달라며, 적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스님에 의탁했다. 그런 어르신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꽤 많은 어르신들과 기탁금이 쌓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어르신들이 힘든 시기를 맞기 시작했다. 거동이 힘들어지고 치매가 찾아왔다. 스님은 그 어르신들을 거두어야 했다. 하지만 ‘수효사’와 ‘무구’라는 이름만으로는 그들을 거둘 수 없었다.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사회와 제도로부터의 인정과 지원이 필요했다.

스님은 2004년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을 설립한다.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2개월만에 설립 인가가 났다. 실사가 필요 없었다. 따질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수효사’와 ‘무구 스님’이 오래 전부터 복지를 해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인’이란 간판은 뒤늦게 달았지만 수효사가 문을 연 그날부터 복지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 수효사효림원 산하에는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용과 방문을 병행해 운영하는 주 · 야간보호서비스 효림데이케어센터와 효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운



복지관을 둘러보며 어르신과 담소하는 무구 스님.



무구 스님은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했다.



무구 스님은 … 재출가한 스님은1990년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삼선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1983년 수효사를 열었고, 2000년부터는 남양주 백천사 주지도 맡고 있다. 2004년 복지법인 수효사효림원을 설립해 노인복지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 복지부 장관상(복지부분)과 문화체육부 장관상(훌륭한 출판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여말선초 불교의 사회복지사업 연구〉와 〈사람들아 길 가기 어렵다 마오〉 등이 있다.

영되고 있으며,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케어기술 습득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시설로는 구립서대문전문요양센터가 있고, 정규와 비정규를 합해 300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와 효

수효사효림원은 첫 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시작했다. 스님은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효림원을 운영하겠다는 원력을 밝힌 바 있다. 수효사의 '효' 자가 왜 효도 '孝' 인지 알 수 있다. 스님의 '노인복지'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대로라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스님은 "오래 사는 것이 '재앙' 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고, 해법은 복지이며 그 복지는 단순히 시설과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회의 관심, 즉 가족의 '효' 와 사회의 '효' 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점점 효사상이 희박해지는 것은 효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른들이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효를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인 것이며, 효를 받기 위해서는 효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 설립과 출가 본분사

출가자의 본분, 앞서 말했듯 그것은 전법이다. 스님은 수효사를 열면서부터 '노인복지' 의 원력을 세웠고 오랜 세월 노력해 왔다. 스님은 수효사를 열기 전인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했다. 오랜 세월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성훈 스님의 뜻을 받든 것이다. 스님은 많은 경전과 고승열전 등 불서 출판을 통해 출가자의 본분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었다. 지금까지 우리출판사는 약 200여 종의 불서를 출간했다.

스님의 남은 원력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이다. 상담심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노후를 맞는 당사자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끔 묵언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잠적(만행)도 한다고 했다. 스님에게는 여전히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사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묵언을 하고, 단식을 하고, 세상과 떨어져 세상을 보고 오면 지금의 자리가 본분사로 다가온다고 했다. 스님은 '복지' 와 '출판' 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쉽지만은 않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임종을 맞으며 "그동안 고마웠어요."라며 눈물짓는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힘들었던 시간의 기억을 지워냈다. 스님이 일어서며 책장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저 분들 보면, 저 환하게 웃는 얼굴 보면 저에겐 여기가 선방이에요." 스님의 대답은 그 사진 속에 있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수효사효림원' . 복지법인설립 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수효사에도 대문을 달았다.

전법일기

찬불포교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박수를…

LMB 싱어즈와의 인연

2005년 겨울. 인도네시아 해외포교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팔공산 은해사 백흥암에서 동안거를 나고 있었다.

오후 입선에서 달려드는 수마는 망상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잡아먹는다. 모두 내쫓으며 화두를 드는데 갑자기 LMB 싱어즈가 떠오른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혼성4부 중창단. 한 번의 공연을 보고 나는 그만 반해버렸다.

2~30대로 구성된 전문 성악인 불자들로 구성되어 현대감각에 맞게 찬불가로서 씩씩하게 법음을 널리 펴고 있었다. 그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조금씩 그들을 알게 되면서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언젠가 내가 한말이 떠오른다.

"혹시, 해체를 해야 하는 위기까지 온다면 나에게 꼭 연락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도 소중한 단체였기에 열악한 사정을 감지한 염려였던 것 같다. 나는 오후입선 3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LMB 싱어즈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들었다. 아무리 나의 본참화두를 들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지도법사가 되어서 후원회를 조성하고 법문을 해주어야 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시간을 망상으로 보내고 방선을 하고 나오니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전화를 부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황영선 LMB 싱어즈 대표다. 전화를 해보니 5명의 단원이 탈퇴하여 단체의 존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 이것은 무슨 우연인가' 걱정과 환희심이 동시에 느껴진다. 얼마나 염려가 강했으면 그 에너지가 이곳까지 전달되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생각하게 했을까? 마음의 힘이란 정말 굉장하다. 함께 의논한 끝에 음악법회라는 것을 만들어 다시금 일어서 보기로 했다.



그림 · 박구원

이렇게 나는 이들의 지도법사가 되었다. 음악법회는 모든 의식은 간소화하고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끝나는 쉽고도 재미있는 법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니 2년이 되어도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산하에 만든 아마추어 합창단이 우빼까 합창단이다. 누구든지 찬불가를 배우고 싶으면 남녀노소 연령을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합창단원들이 조금씩 늘게 되면서 무대에 25명을 세울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나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낙성대입구 그들의 음악당으로 간다. 저녁 7시가 법회시작이라 법회시간을 맞추어 가려면 퇴근시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교대역에서 갈아타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사람들 숲속에 스님으로서 밀치고 올라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덧 그들과의 인연을 이어간 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젠 그만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누군가 능력있는 스님이 맡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으로 되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문이 끝나고 우빼까 합창단과 LMB 싱어즈의 노래를 듣고 나면 나의 피로감은 환희심으로 변한다.

지난 12월 6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창작찬불가 4집 출반기념 및 후원의 밤 음악회를 했다. 그동안 연습한 것을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발표하는 날이다. 오늘따라 우빼까 합창단의 음성이 청아하다. 이어서 13명의 혼성4부 중창단과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에 사람들은 감동과 감명으로 눈가가 촉촉해 진다. 거침없는 하모니에 속이 다 후련하다.

요즘 산사음악회에는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보다는 유명연예인이 많이 초대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난다. 찬불가가 더 많이 불려져 진정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 음악회가 되면 좋겠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축제였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흐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찬불가로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겠다는 찬불포교의 길을 선택한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매일신문사 사장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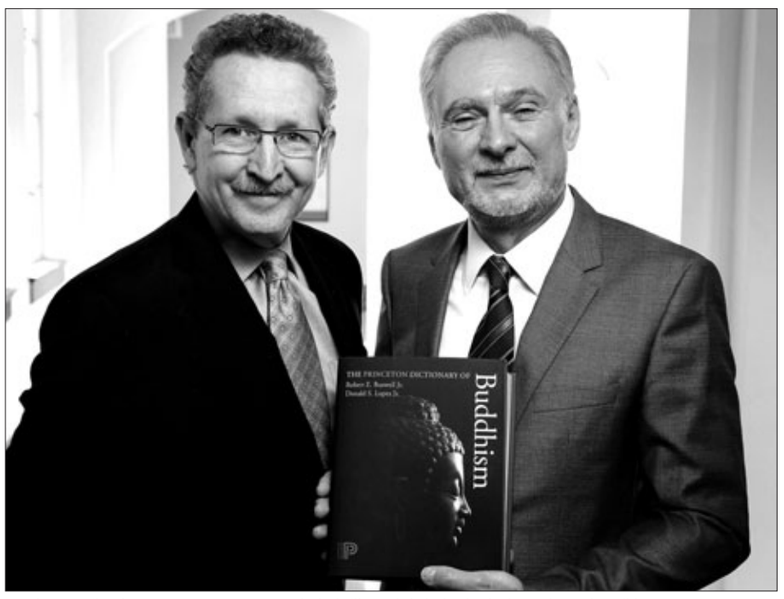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불교英사전 〈프린스턴 불교사전〉 출간

120만 용어 · 1,304쪽 분량
로페즈·버스웰 교수 12년간 작업
'불교 타임 라인' 섹션 차별화



도날드 로페즈(Donald S. Lopez Jr, 미시간대) 교수(사진 왼쪽)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UCLA대) 교수가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을 들고 있다.

영어권 최대 불교사전이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12월 11일 출간됐다. **〈본지 963호 10월 23일자 1면 보도〉**

〈UCLA Newsroom〉지는 12월 13일(현지시간) "120만 용어가 수록된 영어권 최대 불교사전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이하 '불교사전')〉이 출간됐다"고 보도하고 "여기에는 전통의 불교 용어 외에도 동시대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불교 용어도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교사전은 도날드 로페즈(Donald S. Lopez Jr, 미시간대) 교수와 로버트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UCLA대) 교수가 함께 엮은 것으로 총 1,304쪽 분량이다. 이는 앞서 출간된 불교사전의 5배에 이르는 분량으로, 영어권 불교사전으로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인 셈이다.

"앞서 출간된 불교사전은 한 두 언어와 그 전통의 불교 용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제한 로페즈 교수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으로 표현되는 용어, 개념, 경전, 저자, 신성(deities), 학파, 사원, 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태국어, 버마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크메르어, 싱할리어, 몽골어 등의 불교 상용 용어도 선별적으로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불교사전은 5,000여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 외에도 '백과사전' 식의 정보를 덧붙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mind(마음)'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산스크리트 경전 상에서의 정의는 물론, 중국 · 한국의 선불교와 티베트의 밀교에서의 정의도 제공해, 한 용어를 언어권별로 살피고 비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전에 안배한 언어권역별 상호 참조 기능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불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유추하게 할 것"이라는 버즈웰 교수는 "불교는 지금까지 '세계화'의 여정을 밟아 왔고, 지금도 그런 여정에 있는 종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불교사전은 그 여정의 안과 밖을 여실히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UCLA Newsroom〉지에 따르면, 이번 불교사전에서 불교의 '타임 라인' 섹션이 다른 사전과 비교해 특화된 점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타임 라인' 섹션에는 8개의 지도가 나오는 데, 여기에는 불교의 우주관, 주요 사원, 신성 장소, 각 불교권역의 주요 순례 경로 등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된 불교 포교의 마지막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권역에서의 불교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전제한 로페즈 교수는 "영어권 불교사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이해를 높이는 방편을 담고자 노력한 여러 불교계 인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영어권 불교계가 균형과 발전이라는 가치로 새롭게 세워야 할 또 다른 불교전통에 이번 불교사전이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UCLA대 산하 아시아 연구소(Asia Institute)는 〈프린스턴 불교사전(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의 예약 · 판매를 시작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 알츠하이머에 효과 있다

치매 위험 환자 8주간 실험…명상이 인지 · 기억 능력 퇴화 늦춰



마음챙김 명상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졌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머릿속의 재앙' 알츠하이머. 그러나 명상이 신경학적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11월호 뉴로사이언스 레터(Neuroscience Letters) 저널은 장기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화학적 성질과 기능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실었다.

이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MCI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치매를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이들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50%는 5년 이내에 치매로 이행된다고 밝혔다.

하버드 의대 베스 이스라엘 데코니스 의료센터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기존 치료법을 받는 쪽과 일주일에 두시간씩,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로 분류했다. 후자 그룹은 명상과 요가를 주로하며 하루에 적어도 15분씩 일상에서 마음챙김 연습을 하도록 지도받았다.

8주후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다.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해 참여자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실험 시작 전과 후의 뇌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 것.

마음챙김 명상을 한 그룹은 해마 부위와 기억과 인지,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퇴화가 타 그룹에 비해 느렸다. 또한 내측 측두엽, 내측 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등 일명 DMN(Default Mode Network)이라 불리는 부분의 기능도 향상됐다. DMN은 뇌가 휴식할 때 활성화되며 공상과 기억 복원과 관련된 부위다.

레베카 어윈 웰 박사는 "이번 연구는 명상과 요가가 치매와 직결된 뇌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단순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면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웰 박사의 저서 〈마음챙김의 기적(The miracle of mindfulness)〉이라는 책에는 틱낫한 스님이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을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연민이나 짜증 어느 감정이든 환영하고 같은 크기로 받아들인다. 내가 먹고 있는 오렌지가 내 자신이고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과 정신을 심는다. 마음챙김안에서 연민, 짜증, 오렌지는 모두 신성하다."

명상을 오래 하면 뇌 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규명된 바 있다. 한국뇌과학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뇌파진동 명상을 3년 이상 한 사람과 일반인의 뇌 전체 피질 두께를 비교해본 결과, 명상을 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 두께가 더 두껍고 주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통상적으로 뇌에 주름이 많고 두꺼우면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두엽은 특히 사고 기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등 인지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中, 1400년 전 석굴 사원 발견

벽면에는 높이 20M 부처 조각돼


중국에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굴사원이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원은 불상으로 조각된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에서 가장 큰 석굴사원인 운강석굴.

지어진 지 1400년 된 석굴사원이 중국 산시(山西)성 북부 지방에서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불교 조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불상으로 조각된 벽으로 둘러싸인 사원은 불교 유적의 중심지인 타이위안(太原) 주변 산에서 발견됐으며, 퉁쯔사(童子寺)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내 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12월 8일 신화통신이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원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북제 시대(550~557) 조성된 것으로 556년에 지어진 걸로 추정된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리 유뤈씨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절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초기 불교 조각에 대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원은 1117년 전쟁 중에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벽에 새겨진 부처상 중 하나는 길이가 20미터에 달하기도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그러나 나머지 조각상들은 비교적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에서는 당나라 시대의 2.6미터 벽화도 발견됐다.

배현진 기자

일본 불교계, 장례 서비스 개혁 시동

낮은 비용으로 대중 감동 꾀할 터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최저 30만엔(약 300만원 상당)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각종 부가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불교 세속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불교계가 장례 서비스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고 있다고 〈일본 타임즈(The Japan Times)〉 지가 12월 4일 보도했다.

〈일본 타임즈〉 지는 "지난 3일 나라의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에서 일본 불교계 최고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불교 장례 서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고 지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가 정신 · 재정적으로 사찰 존립의 근원'이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본 타임즈〉 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교계 장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고 비용'이라는 이유로 비판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최저 30만엔(약 300만원 상당)에서 시작되는데, 실제 장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각종 부가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그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본 불교계의 장례 서비스에 대해 '불교 세속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타임즈〉 지는 준신 하시모토(Junshin Hashimoto) 스님의 말을 인용, "장례 서비스는 지금까지 일본 불교계의 대 사회적 역할로서 대단히 주목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불교계는 대중의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평가했다.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 주지인 하시모토 스님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란 산 자와 죽은 자의 마음을 소통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장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토 주린-인 사원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16만엔(약 160만원 상당)으로, 일본 불교계에서 최저가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타임즈〉 지는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합동 위령제를 마련해 왔는데, 이는 대중의 신심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주목하고 "대중들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일본 불교계가 보다 저렴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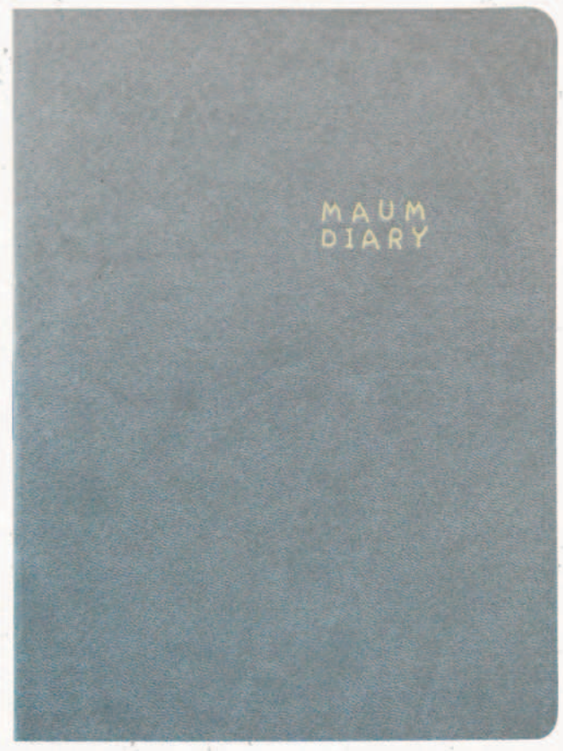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푼
경전의 소중함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 크기 : 가로 14.8㎝ × 세로 20㎝
♥ 가격 : 12,000원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종무소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 조명

대곡박물관 특별전…2014년 2월 6일까지





울산 대곡박물관에 전시된 간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통일신라 · 사진 왼쪽)과 석남사 목조 업경대(조선 후기)

울산대곡박물관(관장 신형석)이 울산 불교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열었다. 간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석남사 사적기, 불화 등 80점의 불교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佛敎)' 전이 2014년 2월 6일까지 대곡박물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울산의 불교문화 가운데 서부지역에 한정해 △울산의 불교문화를 주목하며 △간월사와 간월사지 △장천사와 장천사지 △방리 폐사지-백련사 △석남사 등 5부로 나뉘어 구성됐다.

주요 전시물로는 '언양현 호적대장'(울산시 유형문화재 제9호) 간월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 '석남사 사적'을 비롯한 전적류, 업경대 · 용가 등의 불교공예품, 석남사 소장 신중도 등의 불화, 월하 계오 스님(1773~1849)의 문집 목판 등 80점이 전시된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전시의 이해를 위해 150쪽 분량의 전시도록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울산지역 사찰에 관련한 내용들이 소개된다.

방리 폐사지가 백련사라고 하는 문헌기록을 찾은 것을 비롯해, 석남사 월하 계오 스님과 대곡천 유역에 백련정(백련서사)을 짓고 백련구곡(白蓮九曲)을 경영했던 도와 최남복(1759~1814)과의 교유 관계를 조명한다. 여기에 〈언양현 호적대장〉에 석남사와 간월사 승려 호적이 수록되어 있는 점, 울주 석남사 승탑(보물 제369호) 하대석에 코끼리상이 조각되어 있음을 확인한 내용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전시도록은 울산지역의 불교문화를 다룬 또 하나의 성과물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55)229-4781

정혜숙 기자

지화 장엄은 부처님 만나는 또다른 길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원전 '염화미소' …12월 18일까지





제 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원전 '염화미소'가 12월 11~18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정명 스님의 불단 지화 장엄(사진 왼쪽)과 법해 스님의 수륙재 등.



정명 스님

"법화경, 제2 방편품 3장 26절에 '꽃 한 송이 정성 다해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부처 뵙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름과 꽃 공양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화는 만드는 이의 정성이 들어가는 꽃이니 지화 공양은 그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불교지화정엄전승회 정명 스님(봉축위원회 장엄 도감)은 지화를 공양 올리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한다. 제 2회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원전 '염화미소'가 12월 11~18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육법공양 중에 꽃이 들어가잖아요.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에서도 꽃을 올리는 건 기본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생화가 흔하지 않아 불단에 꽃을 만들어 올렸어요. 이를 법당 장엄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지화는 현대인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어디서나 쉽게 생화를 살 수 있게 되었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야 하는 지화는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외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월 따라 꽃을 공양하는 방식도 변하게 된 거죠. 법당에서 지화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지화는 우리 전통 공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재 · 수륙대재 등의 지화
천연 염색 전통기법으로 재현
현대식 꽃꽂이로 대중화 시도
지화교육과정 연수점수 부여

이번 전시에는 천연종이에 천연 염료로 염색해 만든 모란 작약 연꽃 국화 등이 지화 43작품으로 탄생했다. 전시회에는 두타산 삼화사와 삼각산 진관사의 회원들이 국행수륙대재에서 쓰인 작법 지화를 모았다. 여기에 불교 전통 꽃꽂이는 물론 사찰 법당에 올릴 수 있는 현대식 꽃꽂이도 작품으로 제작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대한불교 꽃꽂이 회원들이 제작한 지화가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12월 11일 전시 오프닝 행사로 열린 테이프 커팅식 장면. 이 자리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 진관사 주지 계오 스님과 총무 법해 스님, 정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명 스님은 "주로 생화를 꽃꽂이 하는 회원들이 참여해 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전과 현대의 재해석을 통해 지화의 대중화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가정에서도 지화를 장식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지화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라 수선화 등을 현대식 꽃꽂이 지화로 만나볼 수 있다.

정명 스님은 "지화 장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불교의례를 봉행할 때 올리는 불가의 전통문화"라며 "사람의 손으로 꽃을 피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스님은 지화를 교계 안팎으로 알려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가평 연화세계를 중심으로 스님들 위주의 교육은 물론 불자들에게도 지화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스님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인정돼 수료시 연수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민족의 혼과 정을 단순미로 표현"

불자 화백 임무상 이태리 전시



임무상 화백의 '금강별곡'

불자 화백 임무상이 12월 28일까지 이태리 'ARTISSIMA de Silvia Prielz' 갤러리 초대전을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민족의 혼과 정을 깊은 단순미로 표현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임 화백은 린(隣-가칭 Rhinism)을 근간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표현한다. "린은 우리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담아 발현한 곡선공동체 미학입니다. 이는 곡선문화에 대한 예찬과 내재된 공동체 정신과의 함수관계를 재해석해 수묵의 모더니즘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염료들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해 한국의 빛깔을 표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 화백은 "자연의 소중함과 조국애와 향수, 이웃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아침마다〈천수경〉〈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임 작가는 재가불, 염, 역사의 장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묵의 한국적 곡선미학을 창출해낸 모더니즘에 온 힘을 쏟았다.

정혜숙 기자

템플스테이 홍보관 '2013년 그해'

신년 1월 22일까지 특별기획전



2013년 한 해 동안의 전시 작품을 모은 템플스테이 홍보관 전시장 전경

도심 전시공간으로 거듭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이하 템플스테이 홍보관)이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22일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시됐던 작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 3월부터 매달 소규모 전시
일부 작품 다시 관람객 찾아

지금까지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불교와 전통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갔다. △제 5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작품 전시 △찻잔이야기(최재훈 작가) △명주사 고판화 △낡은 고무신(희상 스님) △고운색 그릇전(정선영 작가 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김석영 작가) △초록실과 조각들(유하 작가) △소망을 담은 우리 그림 민화(강효진 작가 외) △단청과 한지의 아름다운 만남(김빈 작가) △나를 만나고 행복을 얻다(박준수 작가전)

이 중에서도 특히 희상 스님의 '낡은 고무신전(展)'은 스님들의 고무신에 무성한 새싹들을 담은 설치작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템플스테이홍보관은 그간의 작품을 실은 소책자로 만들고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전통문양이 든 캐릭터 상품들도 판매한다.

정혜숙 기자

예불음악회 '천년의 소리'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함께하는 세상과 나유타불교합창단이 주관하는 나눔음악회 '예불,천년의 소리'가 12월 5일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불교의 예불의식을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공연작품은 물론 비보이 공연, 부채춤, 찬불가 독창과 합창 등이 이어졌다. 공연 수익금은 라오스 생광주 마을의 교육환경 시설개선과 대구경북지역 이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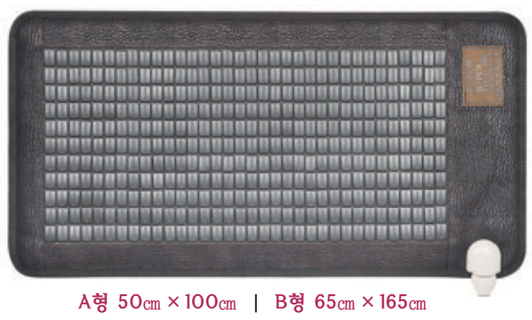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

- 남 해 독일마을을 바로 앞 -



부처님진신사리 다보탑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다보탑과 영엄한 돌미륵이 있는
남해 미륵암에서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오년 새해 해맞이 관음기도 접수합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개별 불자님들 신청바랍니다.
2014년 1월 1일 남해 물건항 어부림 숲 앞 바닷가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중



돌 미 륵

49재를 잘 하는 미륵암 - 제사, 영구 위패를 모십니다
승진기도, 임용고시기도, 사업자를 위한기도, 일년가족축원 접수중

계좌번호 : 농협 831075-51-023041 / 국민은행: 969801-01-298041 / 예금주: 미륵암

미 륵 암 주지 청 운 합 장

주소 _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문의 _ 055)867-0776,2259 / 홈페이지 주소 : www.미륵암.com

‘옴’도 영기화해 영기문으로 변신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국화꽃,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무량보주, 영기꽃영기문[무량보주꽃] ㊦



우리가 매화점이나 국화꽃무늬라 부르는 조형들이 이제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교하게 증명하여 왔다. 고려청자들에서 보이는 국화꽃은 국화꽃이 아니고 무량보주라고 증명하여 왔으니 이에 따라 국화꽃으로 성립한 국화당초문(菊花唐草文)도 옳지 않은 용어임은 자명한 일이다. 즉 무량한 보주가 피어나는 ‘영기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기꽃 영기문’ 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량보주꽃 영기문’ 이다. 다시 포괄적으로 말하면 ‘영기문’ 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기문이 전개하면서 그 끝에서 피는 꽃이 국화꽃이 아니고, ‘생명이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이 전개하면서 끝에서 무량한 보주를 발산하며 피는 영기꽃 즉, 무량보주꽃’ 이라는 것이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몇 번 반복하여 읽어보고 음미하여 보면 매우 쉽다.

지금 일본 다이마데라(當麻寺) 소장 ‘고려 나전칠기 원형함(螺鈿漆器圓形函)’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①-1) 작은 나전칠기 함의 위 면이나 측면에 영기문을 영롱한 조개껍질로 장엄하였는데 왜 이 무늬가 국화꽃이 아니고 영기꽃 즉, 보주를 발산하는 무량보주꽃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다. 보주란 삼천대천세계를 압축한 것이라고 누누이 언급하여 왔다. 불교미술에는 보주꽃 장엄이 엄청나게 많지만 보주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항상 현실에서 보는 꽃으로 여기어왔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지 오래 되었다. 이 작은 둥근 함은 아마도 염주를 보관했던 함으로 보인다. 만일 그저 단순히 국화꽃 덩굴문 혹은 국화꽃 당초문이라 말한다면, 염주가 매우 중요한 지물(持物)이므로 나전칠기 함 표면을 아름답고 영롱한 영기문으로 장엄하여 마치 그런 신령스러운 함에서 염주가 생겨나는 그 숭고한 고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단 말인가! 염주가 아니라도 중요한 불구(佛具)를 봉안했던 함이리라.

뚜껑의 영기문을 살펴보기로 하자.(그림①-2) 매우 역동적이며 아름답다. 전체 사진은 없어서 부분 사진뿐이지만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앙 부분이어서 다행이다. 그 부분을 백묘하여 채색분석하여 보면 매우 흥미롭다.(그림 ①-3)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미 작품에는 색채가 있으나 굳이 새로이 채색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① 중앙의 둥근 보주문 띠(寶珠文帶) 안에 ‘옴’ 이라는 법자(梵字)가 있다. 옴이라는 글자는 성음(聖音)으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六字眞言)인 ‘옴마니반메훔’의 첫 자이다. 옴은 시작과 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성스러운 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한 마디 안에 이미 육자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니’는 구슬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니는 바로 필자가 밝힌 대로 ‘삼천대천세계 즉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장 작게 압축한 보주’를 의미한다. 그 다음 ‘반메’는 간단히 말하여 ‘파드마’를 의미한다. 파드마는 바로 연꽃이다. ‘훔’은 거룩하다는 감탄사다. 즉 ‘오! 연꽃 속의 무량보주여 거룩하도다!’라는 말로, 바로 관음보살을 찬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심의 ‘옴’은 ‘연꽃 속의 무량보주’를 가리킨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며 조형이다. 바로 연꽃의 씨방의 무량한 씨앗들이 무량한 보주로 탈바꿈하는 조형을 가리키지 않는가.

② 그러므로 그 중심의 둘레에 보주꽃 영기문이 둥굴게 전개하여 간다. 즉 제1영기싹 줄기가 연이어 가며 무수한 영기싹들이 돋아나며 그 끝마다 무량보주꽃이 피어나고 있다. 가장 단순한 조형 안에 무한한 상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 주변에 팔릉형(八稜形)으로 보주문띠를 이루고 있다. 이 역시 무량한 보주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팔릉형 안의 큰 조형이 바로 ‘옴’ 즉 ‘거대한 영기꽃’으로 무량한 보주가 화생하는 위대한 조형이라 할 수 있다.

⑤ 바로 이 거대한 영기꽃에서 즉, 무량보주꽃에서 다시 영기문 줄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며 다시 보주꽃 즉, 무량보주꽃을 피우고 있다.

⑥ 주변 네 곳에 처음 보는 영기꽃이 자리 잡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에 또 다른 매우 작은 조형의 무량보주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작지만 중심에 보주가 있고 주변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기는 조형을 매우 단순화시킨 것이다. 놀라운 조형이다. 여섯 방향으로 영기문이 발산하고 또 그 사이사이마다 산호모양 영기문이 뻗치고 있다. 산호이지만 영기화된 산호로써 제2영기싹을 의미하고 있다. 영기문 줄기는 또한 이 네 개의 흥미 있는 영기꽃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그림 ①-1. 고려 나전칠기 함



그림 ①-2. 고려 나전칠기 함의 위 부분



그림 ①-3. 채색분석한것

⑦ 마지막 공간에는 중심의 큰 영기꽃, 그리고 네 개의 특이한 영기꽃, 그리고 맨 가장자리의 변으로부터 생기는 영기꽃 줄기 등이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서로 얽히며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절묘한 조형이다. 이 공간에 있는 영기문에서는 무수히 생기는 영기싹들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⑧ 자, 그러나 중심의 ‘옴’ 즉 ‘보주꽃’ 즉 ‘연꽃모양에서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는 꽃’에서 이 모든 조형이 성립하고 있으니 무량보주꽃 대신에 ‘옴’ 자 하나의 글자를 둔 것도 기발한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옴’ 이란 범자(梵字)도 영기화하여 영기문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제 국화당초문이 아니라 ‘무량보주꽃 영기문’ 임이 분명해졌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藥이 되는 사찰음식

홍화와 율무가 만난 영양만점 밥



영지시금치국(왼쪽)과 홍화 율무밥

홍화 율무밥

△재료(4인 기준)

○ 불린 찹쌀 1컵, 불린 멥쌀 1컵, 불린 율무 2컵, 은행 20알, 호두 10알, 대추 5개, 홍화 15g, 다시마국물

○ 다시마 국물 4컵, 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찹쌀과 멥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② 율무는 깨끗이 씻은 후 반정도가 익도록 삶아낸다.

③ 은행은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뿌려 살짝 볶아 껍질을 벗겨 절반으로 자르고, 호두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 잘게 썬다.

대추는 씨를 발라내고 잘게 썬다.

④ 냄비에 쌀, 율무, 홍화를 넣고 밥을 짓다가 물이 자작해지면 은행, 호두, 대추를 넣어 뜸을 들인다.

영지시금치국

△재료(4인 기준)

○ 시금치 150g, 표고버섯 3장, 풋고추 홍고추 각 1개씩, 된장 1큰술, 국간장 1큰술, 소금 약간

○ 국물 – 물 6컵, 영지 10g, 건표고 1장, 다시마 1장, 무 50g, 대추 1개

△만드는 법

① 국물내기 – 분량의 재료를 냄비에 담아 1시간 정도 담가둔 뒤 불에 올려 끓으면 중불로 낮춰 5분 정도 더 끓여 걸러낸다.

② 시금치는 손질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적당한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채썬다.

③ 국물에 된장을 푼 다음 시금치와 표고버섯을 넣어 끓인 후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기혈 보하는 영지시금치국

‘잇꽃’ 이라고도 불리는 홍화는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 이들에게 좋고 산후의 혈운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다. 또한 홍화씨는 부러진 뼈를 이어주고 선천적으로 허약한 뼈를 무쇠처럼 튼튼하게 해주며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오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율무를 의이(薏苡)라고 하며,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진해, 건위 등의 약재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를 보한다고 했다. 그밖에 열과 풍을 없애주며 습(濕)을 이기게 한다고 되어 있다. 오래 복용하면 혈기를 순조롭게 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건강하다. 특히 여성에게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낮게 하고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 더욱 좋다. 율무는 비의 기능이 허약하여 비에 습이 정체되어 일어난 부종을 치료한다. 홍화 율무밥은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 부드러운 양념장을 만들어 비벼 먹어도 좋다.

영지는 심신을 보하고 안정시키며 기혈을 보하고 폐를 양호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자양강장을 하는 효과가 있어 음료로 많이 마시고 있는데 천식과 기침을 멎게 하고 허약체질을 보강하기에 좋은 약재이다. 여기에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카로틴, 비타민C, 철분은 암,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인데 추위로 인한 감기나 면역력이 저하 되었을 때 영지로 우려낸 국물에 시금치 된장국은 좋은 음식이라고 하겠다. 또한 시금치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통풍이나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다. 〈끝〉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모든 교법을 모아 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 · 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칼라 | 348쪽 | 20,000원
출간 즉시 2쇄 돌입!

문 · 사 · 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선교쌍수의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二色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얕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승한 근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얕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眞)참회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는
현재 31종 6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 ~ 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4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7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8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정준영 외 4인 공저	운주사
9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10	어린이가 묻고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백문백답	천명일	지혜의나무



“무소유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조오현 지음
강행원 그림
문학의 문학 펴냄
1만3500원



현대인의 당면 문제 해답 제시
韓中日 선사들 일화도 소개
깨달음 단상 20여편 時도 수록


책속에 들어있는 강행원 작가의 선화 ‘겨울선사’. 선묵의 향기가 느껴진다.

“나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소유란 어차피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질적 수단 없이 인간의 생활은 도저히 영위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옷을 입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서리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자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스님이 오랜만에 다시 그동안 깨달음의 조각들을 한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 오현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담백한 언어로 이야기 한다. 〈벽암록〉이나 〈무문관〉 같은 선종 최고의 글에서 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따로 간추려 신선한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삶의 핵심을 파고드는 어록들로 벼락같은 깨달음도 이끌어내고 있는 〈선문선답〉과 진솔한 사람 사람 냄새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시들’ 등 주옥 같은 글들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다. 평범한 일상에 진실과 행복의 답이 가득하다는 오현 스님의 소박한 마음과 감로법문이 진실과 행복에 목마른 현대인들에게 한 잔의 담백한 차처럼 다가온다. 오현 스님의 글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삶의 근본 문제에 치중한다. 이는 얼핏들으면 옛 성인들의 말을 전하는 훈장 선생님처럼 고답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글 하나하나가 일관되게 삶의 근본에 질문을 던진다. 예를들면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읽을 때만 위로가 되는 단발성 효과의 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오현 스님의 글이 현실의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읽으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 지는 구절들이 많다.

가령 “자기는 남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조금만 덜 주어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미소요. 조건 없는 용서요,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라는 가르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스님의 글로써 들으니 더욱더 공감이 간다.

스님은 책 중간에 달마, 승찬, 백장회해, 서당 지장 등 중국의 선사들을 비롯해 원효대사, 광덕화상, 통효범일, 동산혜일 등 한국 선사들, 그리고 다쿠안, 구도, 데쓰겐 등 일본선사들의 일화 등도 정리해 실었다. 특히 운문선사가 남긴 ‘매일매일이 참 좋은 날이구나(日日是好日)’ 라는 말과 원효대사의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 와 같은 법문은 다시 들어도 가슴에 단박에 새겨는 말들이다.

책 말미에는 시조시인이기도 한 스님의 시 20여편이 실려있다. “물빛 닮은 산승이요 산빛 닮은 절입니다/깊은 꿈 그 골 깊이 잠겨드는 심상입니다/부연 끝 아픈 인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럼 고즈넉한 겨울 산사를 선적으로 표현한 시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책장 사이사이에 삽입된 선화가 강행원 작가의 그림도 책을 읽는 감칠맛을 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오현 스님은?
스님이자 시인, 필명은 조오현, 법명은 무산, 법호는 만악, 자호는 설악이다. 1966년 문단에 나와 현대시조문학상, 가람문학상, 남명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1987 불교신문 주필을 역임했고, 현재는 신흥사 회주로 백담사에 주석중이다.

‘一心’ 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원효 찬술 | 오형근 번역 | 대승 펴냄/5만원



대승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전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일심이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승기신론별기〉는 수행을 통해 일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묶은 〈대승기신론소병별기〉에 중도사상과 화쟁사상이 담겨져 있어 걸림없이 자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한 오형근 박사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저술이다. 원래 〈대승기신론소〉는 원효대사께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명저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불교학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잘 편찬된 저술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저술이다.

〈대승기신론소〉의 내용은 논소를 저술하게 된 인연관계를 비롯해 대승의 뜻을 세운 것, 대승의 의미와 일심의 진리 등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 신심을 갖고 대승보살들이 수행하는 것, 수행하면 이익이 있다고 권하는 것 등으로 세분화돼 설명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소〉는 한마디로 대승적인 신심을 일으키는 책이다. 그 신심의 대상은 인간의 본성인 일심과 진여심을 믿게 하며, 일심은 곧 대승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승심은 지공무사의 대승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간의 일심에는 본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본각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 본각의 성품에 의해 모든 지혜가 생겨나고 중생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마음안에서 번뇌를 떨쳐내는 진여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진여훈습’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심에는 본각의 성품 지니고 있어
원효 스님 대승선 명쾌히 해설

이와 같은 마음의 훈습을 설명해 인간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논리는 오직 원효대사만이 설명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인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무명을 일으켜서 번뇌가 형성되는 과정과 이 번뇌들이 다시 정화되는 과정들을 명쾌히 설명해 주고 있다. 원효대사는 수행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정확히 알아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원효대사는 또한 이 책을 통해 일심에 대한 신심을 갖고 선수행 등 육바라밀을 수행해 열반과 보리를 깨닫는 수행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수행론에서 인도의 대승선을 도입해 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수행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결가부좌 방법 △선정닦는 9가지 법 △진여삼매 닦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진여삼매에 도달하면 모든 망념과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의 진여가 반야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소〉의 진여삼매와 〈금강삼매경론〉의 금강삼매와 함께 최상의 선사상을 ‘일미관행’ 이라 칭하며, 이 선수행이야말로 최상의 대승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책으로 만나는 다큐멘터리 ‘길위에서’

길위에서

이창재 지음 | 북라이프 펴냄 | 1만4천원



1년에 두 번만 문이 열리는 사찰이 있다. 금남(禁男)의 공간이자 금속(禁俗)의 공간, 비구니 스님들만 수행하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절 백흥암이다. 이창재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며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큰스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불호령뿐이었다.

수많은 방문과 설득 끝에 간신히 문이 열린 백흥암에서 그는 300일 간 머물며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으며 수행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갔다.

물론 그 기나긴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쫓겨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때론 스님들의 냉담함과 일반인으로선 감내하기 힘든 환경을 견뎌내야 했다. 그렇게 그만의 수행을 거듭한 결과 비로소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는 완성됐고, 백흥암 속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과정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길 위에서’는 2013년 다큐멘터리 영화 1위, 대한불교 조계종 추천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로 뽑혔고, 불교계는 물론 영화평론가와 관객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기억되는 ‘길 위에서’를 오롯이 담아낸 이 책은 오랜 기간 촬영 했음에도 시간상 제약으로 편집될 수밖에 없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 따뜻하고, 보다 여유 있는 호흡으로 전한다. ‘수행 공간’이라는 특성상 외부인들에게 철저히 비공개 된 백흥암의 숨은 이야기부터 한 여인이 출가를 결심하고 스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때론 말간 웃음과 함께, 때론 가슴 먹먹한 울음과 함께 펼쳐진다.

외부차단된 ‘백흥암’ 스님들 수행담
시간상 편집된 뒷 이야기도 실어

산사를 깨우는 새벽 3시의 목탁 소리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스님들의 예불과 참선 과정,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만행을 떠나는 모습, 작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하는 무문관에서의 삶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극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밥하고 청소하고 김장하는 일, 가을에 소풍을 떠나거나 새해가 되면 주변 절에 인사를 하러 가는 모습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 웃고 우는 스님들의 모습은 막연히 비구니 스님은 기구한 운명, 남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일깨워준다.

저자는 스님들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백흥암 스님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는 선원장 영운 스님과의 만남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 있다. 19살에 출가해 3년 간 매일 천 배씩 모두 백만 배의 절을 올리며 수행을 시작했다는 영운 스님,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젊은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내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스님의 모습은 수행자의 길과 삶의 회환에 대해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간
대승불교를 훤하게 알수있는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소병별기
오형근 박사(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원장)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원효소는 세계적인 명저로서
대승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30쪽
가격 50,000원
돈황굴에서 발견된 대승기신론 원효소 필사본은 현재도
영국 대영도서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중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음의 본체인 일심(一心)과 그 작용인 진여문, 생멸문을 깊이 설명하여
인성(人性)을 계발하고, 일심(一心)에 이르는 선수행(禪修行)법을 상세히 제시하므로써,
우리의 신심을 확고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판매처 : 교보문고, 조계사 앞 불교전문서점
보급처 : 도서출판 대승(02-2264-7120)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완성체 · 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刊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포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 · 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

"명상은 마음에 박힌 대못 뽑아내는 일입니다"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스님 지음
쌤 앤파커스 펴냄
1만4천원



'힐링캠프' '아이러브인' 에 출연해 감동을 선사한 정목 스님이 소박하고 따뜻한 명상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비울수록 가득하네〉이다. 이 책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안내서다.

한국 미래를 이끌 불교계의 인재로 손꼽히며, 최초의 비구니 DJ로 전 세계 47개국 청취자들을 치유의 목소리로 어루만지는 '힐링의 어머니' 정목 스님. 20여 년간 많은 이들과 함께 명상을 해온 스님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갈무리해 담았다. 특히 책 속에는 정목 스님의 목소리로 녹음된 명상 안내 CD가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명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책에서 정목 스님은 명상에 진입하기 위한 일화와 에피소드, 자신의 경험담과 잠언, 그리고 실제로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과 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면 한쪽 뇌가 잠잘 때 다른 한쪽 뇌가 깨어 있는 돌고래처럼, 깨어 있는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에는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가 곳곳에 나온다.

책 읽는 것조차 힘든 이들에게 휴식과 평화가 있는 그림만으로도 깨어 있음과 자유로움을 전하고 싶은 저자 정목 스님의 제안이다.

책의 구성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호흡 명상으로 시작해,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등 감정 다루기 명상으로 이어간다. 그 다음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명상으로 한 단계 성장한다. 또한 책 속에서는 시계 초침을 바라보며 깨어 있기 연습을 하는 초침 바라보기 명상에서부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나쁜 것을 다 내가 들이마신다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다 내어놓는다 생각하는 티베트의 자비 명상인 통렌 명상까지, 한 단계씩 마음의 성장을 돕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등 밀어주기 명상,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숫자 세기 명상, 불안을 비우고 행복을 채우는 태교 명상, 하루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는 종소리 명상 등 대상별 명상이 실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정목 스님은 이 책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명상은 숨 쉬면서, 잠자면서, 일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며 "내 몸을 살피고 호흡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흙탕물이 가라앉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는 자기 안에서 현명한 답도 얻을 수 있고, 안 풀리던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내면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고 명상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다.

정목 스님은 이 책을 쓰며 주인이 지키지 않은 무인 시스템 가게에 눈 그림만 그려놓아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데, 명상이란게 이처럼 내 마음에 눈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명상이라고 하면 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정목 스님은 '화를 내지 말아라' 가 아닌, '화를 낼 때는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 고 권한다.

내 안에 감겨 있던 눈을 뜨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며, 내 안에서 지켜보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게 정목 스님의 지론이다. 명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나아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커질 때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스님은 확신한다.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힐링 안내서
호흡법, 감정조절 명상 등 단계별 설명
직장인, 임신부, 청소년 등 대상별 명상법 소개

이 책에는 다양한 사연도 소개돼 있다. 정목 스님이 방송서 명상을 소개했을 때, 2년간 우울증으로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낸 사람이 마음 내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하며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된 사연,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병을 증오하며 죽을 날만 불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남은 생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된 사연, 죽기로 결심한 이가 마음 돌린 사연, 이혼하러 가는 길에 스님 방송을 듣고 다시 한 번 함께 살아보자고 결심한 사연 등등이다.

스님은 한 곡의 아름다운 음악이, 짧은 명상 안내 멘트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 시작 전에 한결같이 방송 원고와 음악 선곡표를 부처님 앞에 놓고 기도를 올린 뒤 방송을 시작한다. 정목 스님은 이 책 역시 '힘들고, 아프고, 정처 없는 세상의 모든 마음들에게 간절하고 따뜻한 기도가 되기를 희망' 하며, 지금 어둠에 빠져 있다면 밝음으로 걸어 나오고, 밝음 속에 있다면 세상을 향해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고 취지를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모든 것 초월해야 아는 경지 '禪詩'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

김종만 지음 | 글앤북 펴냄 | 9,800원



'천가지 계책과 만가지 생각/ 불이 벌건 화로 한송이 흰 눈일뿐/ 진흙소가 물 위로 가니/ 대지와 허공이 갈라지네'

이는 조선시대의 고승 청허 휴정(1520~1604)의 임종게다. 청허 휴정은 이 임종게를 남기도 단정히 앉아 열반에 들었다. 이 게송을 통해 우리는 승군장이 아닌 한 수행자로서의 청허 휴정 스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의 게송에 담긴 진의는 알기 어렵다. 진흙소는 무엇이고, 진흙소가 지나니 대지와 허공이 갈라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고승이 전하는 게송, 즉 선시에는 그 문법이 파격적이고 상징들이 많아 범부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흔히 '불립문자(不立文字)' 로 표현되는 선의 깨달음을 선시는 단지 몇 단어로 응축시켜 읊어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이 최근 출간한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는 선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용이하고 친절한 해설서이다.

김 편집장은 유수의 불교 언론들을 거치면서 쌓은 지식과 필력으로 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선시를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한국 선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제망매가' 를 비롯해 '원왕생가' , 승찬의 '신심명' , 대표적 오도송으로 손꼽히는 영가 현각의 '증도가' 를 상세하게 해설한다. 또한 서정선시, 산거시 등으로 선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한 선사들의 뛰어난 선시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확암 지원의 '십우도' 에 대한 해설도 곁들이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선사들의 전법게를 감상하며 선지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제망매가부터 열반송까지
韓 · 中 선사들의 詩 총망라
성철 · 지관 임종게 해설도

책 말미엔 저자가 〈불교평론〉에 게재한 '오도송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 의 선시 관련 논문을 수록했다.

또한 선지식들이 입적 당시 남겨놓은 열반시와 임종게를 소개하며 선미와 선지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성철 스님과 지관 스님의 임종게에 대한 해설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책에 있는 성철 스님과 지관 스님의 임종게 해설의 일부를 살펴보자. 성철 스님의 임종게는 '한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을 덮고 남는다/ 산 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니/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네' 이다.

스님의 임종게에 대해 김 편집장은 '성철다운 선지가 그득하다' 고 평하고 있다. 어머니께 받은 육신은 그의 '참' 이 아니다. 거짓된 육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참배를 받는 종정의 위치에 올랐다. '속이고 살았다' 는 표현은 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하지만 4구에 대해서는 '각자(覺者)' 의 풍모를 보여준다고 저자는 해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편집장은 "한 덩이 붉은 해는 육신을 벗은 그의 법신이며 푸른 산은 열반의 문을 의미한다"며 "그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중생을 일깨우고 영원 불멸의 세계로 나아갔다"고 설명한다.

지관 스님의 임종게는 소박하다고 말한다. 지관 스님의 임종게는 '무상한 육신으로 연꽃을 사바에 피우고/ 허깨비 빈 몸으로 법신을 적멸에 드러내네/ 팔십년 전에는 그가 바로 나이더니/ 팔십년 후에는 내가 바로 그이로다' 이다.

김 편집장은 "3, 4 구절은 물에 비친 내가 허상이듯 내 육신 또한 허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 '법신을 적멸에 드러내네' 의 표현처럼 스님은 깨달은 이의 환지본처를 여실하게 강조함으로서 원적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승들의 유려하고 장엄한 선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편집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활구(活句)이기 때문이라고.

"음미할수록 강렬하게 뿜어 나오는 메시지, 한 자 한자마다 감상하는 이의 편협한 생각과 경직되고 부자유한 사고를 일깨우는 미학의 물줄기를 선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시는 무궁한 세계를 펼쳐보인다. 다시 말해 의식적 초월의 전제가 이뤄지지 않고선 선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선시는 '죽은 말' 이 아니라 본질을 일깨우는 '산 말' 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본질 알면 세상구속서 벗어날 수 있어

사랑학개론

배재국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원



관조를 통한 영혼의 치유 셀프힐링 〈사랑학 개론〉. 셀프힐링 전문가인 저자가 전하는 '마음의 치유' 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의 본질을 '빛' 이고 '사랑' 그 자체임을 알려준다. 이 책은 '나' 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면 세상과 자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현대적 언어와 상황으로 쉽게 구성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아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바탕 세계,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인 '생명' 그 자체"라며 "거울 속의 그림자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거울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다. 필름 속의 영상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필름을 비추는 빛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 존재한다. 연인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그 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나(에고 · 我相)' 다. 서로 간의 조화를 무시한 '나' 의 욕망과 집착,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의 체험과 그 외 여러 사람들의 체험을 토대로 '마음의 치유' 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그것을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한 것이 '생명(사랑)' 과 '나(에고)' 라는 개념이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생명(사랑)' 과 '나(에고)' 라는 개념을 먼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존의 모든 경전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현대적인 언어와 상황으로 쉽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철학이나 종교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저자가 그동안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런 진리를 좀 더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즉 진리의 생활화가 아쉬웠다. 진리란, 자연(생명)의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런 이치를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이 책을 통해서 '아,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 저자의 안타까움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나아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나(에고)' 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해 세상과 자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강경과 달마상법 ㊤

김선형 (인천대 석좌교수)

업의 산물까지 꿰뚫어야 관상 보여



김선형 교수는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교수와 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시민대학을 설립했으며 송도이전기획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이며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중공군의 정치적 기능〉〈북한군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 금강경으로 본 달마상법

일반적으로 '금강경과 달마상법' 이라고 하면, 상(相)을 매개로 한 이 둘의 관계론적 접근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목의 의도는, 금강경 (金剛經)과 달마상법(達磨相法)의 단순한 관계에 앵글을 맞추어 조명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원래 불설(佛說) 대승 경지의 금강경에서는 상(相) 자체가 허망하다는(凡所有相 皆是虛妄)것을 전제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본디 자리를 보아야(若見諸相非相) 실상을 본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생제도 차원의 달마상법은 아무리 마음이 근본이라도 해도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얼굴의 형모를 보고 사람의 명운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이 둘을 같은 반열에 놓고, 단순히 상호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달마상법의 사상적 배경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相)이, 실제로 달마상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풀어 나갈 생각이다.

선(禪)의 창시자인 달마 선사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금강경을 체득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의 원리를 원용하여 자신의 상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달마 선사가 그 관찰 대상으로서 상(象)이나 상(像)이 아닌 금강경의 상(相)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에서 말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등 제상(諸相)을 기본 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달마 선사가 설정한 상은 마음을 가리키는 내상(內相)과, 외형과 얼굴의 생김새인 외상(外相)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그는 외형에 나타나 있는 모든 상은 비상(非相)인 심상(心相)만 못하기(萬相不如心相) 때문에 관상은 먼저 신(神)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상은 내상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것은 내상의 반영이고 발로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마음의 됨됨이, 그 씀씀이가 곧 얼굴의 형모로 발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상은 외모와 얼굴의 생김새, 즉 용모와 모습,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형상의학(形象 x學)에서 말하는 상(象)은 조짐이나 징후의 의미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의 관상, 즉 상(相)이나 의사가 상(象)을 본다는 것은, 가시권에 들여오는 외형 또는 얼굴의 형모를 관찰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살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달마 선사가 원용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의 개념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일 만큼 전혀 다른 차원이다. 금강경에서 상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는 반야제일게에서는, '상은 다 허망하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아야 여래를 본 것' 이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상의 본디 자리를 보지 못한 경지에서의 관상(觀相)은 실상을 보지 못한 것으로 규정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금강경은 "모든 중생이 다시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없으며, 또한 법상이 없으며 법 아닌 상도 없다" 하였다. 이것은 상 자체에 대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색즉시공의 공(空) 도리보다도 차원을 높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금강경의 상관(相觀)은, 그것이 비상(非相)의 본디 자리를 보아야 실상을 볼 수 있다거나, 공(空)도리의 상위 개념이라고 풀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견성(見性)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만으로 그 종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나 부주어상(不住於相)의 경지로서, 우리 범부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에 머물거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실상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의 상관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우주며 만물, 인간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상은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이다, 만약 그것을 보려면, 그 상이 상이 아닌 것, 상이 상이 아닌 것까지 아닌 본디 자리를 보아야 실상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를 전제로 보면, 금강경에서 말한 상은, 적어도 그것이 외적 형모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현상(現相)과 함께 비상(非相)의 마음자리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관상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마 선사가 심상(心相)을 중시하면서, 얼굴을 살필 때는 신(神) · 정(精) · 기(氣)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무리 얼굴의 형모가 뛰어나게 잘 생긴 경우라도 신 · 정 · 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얼굴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2. 달마 선사의 사상과 관상

달마(達磨) 선사는 남인도 향지국(香至國)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28대 조사로서 520년경 남북조시대인 양무제(梁武帝) 때 중국에 들어와서 숭산의 소림사(小林寺)에서 9년 동안을 면벽, 정진하여 견성한 선(禪)의 창시자다. 당시에 중국은 가람불교, 강설불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달마 선사는 이에 도전, 좌선을 통하여 견성의 길로 바로 나가는 새로운 기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달마 선사에 관한 원전의 기록은 지극히 미흡한 편이다. 우선 그의 출생년도도 분명치 않고, 열반 역시 528년경으로 추정될 뿐이다. 최근에 돈황(敦煌)에서 출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금강경 등 대승경전을 중시하였고, 특히 근본사상으로서 이입사행(二入四行)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선어록에 따르면, 달마 선사의 핵심사상인 이입사행은,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으로서, 선정에 드는 두 가지 길과 네 가지 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입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입문을 말하고, 행입은 실천을 통한 입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왕관도 마다하고 출가하여서 견성을 위한 선을 창시하여 참선에 정진하면서 이입사행의 실천에 몸 바쳐 온 달마 선사가, 왜 사람의 명운을 추론하는 관상에 관심을 두고, 그것도 관상학을 집대성하여 상전비결(相 k秘訣)을 남겼을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생제도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해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뭇 중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법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원래 달마 선사는 연기설(緣起說)에 근거하여 사람은 수억 겁 생 동안에 걸친 업(業)에 의하여 태어났고, 그것의 반영에 따라 얼굴의 형모가 생겨났으며, 거기서 파생된 결과에 따라 길흉화복의 업보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테면, 마음은 업의 산물이고, 얼굴은 업의 산물인 마음의 반영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얼굴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 면에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면 얼굴의 생김새를 유추할 수 있고, 얼굴의 형모를 관찰해도 마음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달마 선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 자리인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그 사람의 시련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방편이 곧 달마상법의 체계화로 나타난 것이다.

> "이입사행 달마선사의 관상학 집대성은 중생제도의 방편 얼굴 · 마음 실체 같다는 진리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
>
> 눈은 정신이 머무르는 집 얼굴에서 살펴야 할 것으로 생명 원동력 담긴 눈 꼽아"

3. 달마상법의 특성

동양관상학이 서양관상학과 함께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체계를 세우고, 그 기법을 정립한 것은, 대략 1500년 전의 일이다. 그 대표적 쌍벽은 달마 선사와 함께 마의상법(麻衣相法)을 정립한 마의(麻衣) 도사이다. 마의 도사는, 평생을 벼슬은커녕 세상과 인연을 끊은 채, 마의만 입고 깊은 산의 석실에 기거하면서 도를 닦고, 관상학의 정립에 전념하였다. 그는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도(仙道)나 유교에 심취한 흔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코를 특별히 중시하면서, 인간의 부귀영화나 오복을 누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달마 선사는 이와 달리 스님 가운데서도 견성성불을 지향하는 선의 창시자이기 때문인지, 눈을 중시하면서 신(神) · 정(精) · 기(氣), 특히 투철한 정신력과 지적 능력,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마의 도사가 부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대변하는 코에 50%의 비중을 부여한 데 반하여, 달마 선사는 그것을 파격적으로 눈썹 등과 같은 5%의 비중으로 경시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달마 선사는 얼굴의 주요 부위별 비중을 눈 50%(眼五分), 이마 30%(額三分), 그리고 눈썹 · 입 · 코 · 귀 20%(二分)로 배정하였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마의 도사가 코를 50%의 비중으로 중시한데 대하여, 달마 선사는 그것을 눈썹 · 입 · 귀 등과 동격으로 취급하여 각기 5%의 비중으로 평가 절하한 점이다. 이것이 마의상법과의 차이점이고, 달마상법의 독자적인 특성이 된다.

그리하여 달마 선사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신(神)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신의 핵심은 신기(神氣)인데, 이것은 신의 외부 발현상으로서 정신작용은 물론, 정기와 혈기, 경기 등을 포괄하고, 생명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정신의 기운, 즉 지적능력과 의지력, 결단력, 돌파력 등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있어서는, 달마 선사가 50%의 비중을 배정한 눈을 주로 살핀다. 그는, "사람이 잠이 들면 신은 마음에 있고, 깨어 있을 때는 눈에 있다. 눈은 정신이 머물러 휴식하는 집(精舍)이라고 설파하였다. 당시에는 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 자체의 정신작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얼굴에 있는 유일한 마음의 신호등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귀천의 분별은 눈의 신에 담겨 있고, 사람의 됨됨이 역시 눈빛으로 가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달마 선사의 지론은, 그가 사람의 명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과, 그것을 대변하는 눈의 비중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였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내치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정신력과 마음 씀씀이를 놀라울 정도로 절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달마 선사는 인간의 행 · 불행은 업의 덩어리인 정신, 즉 마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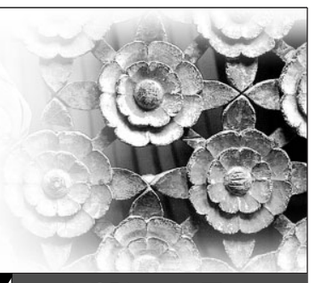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더라도 내면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감관을 잘 다스려 흔들림이 없고 도를 얻어 청정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는 뛰어난 사람이다.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달마도와 소나무 그림

원하시는 규격으로 그려 드립니다
(반야심경 금니사경, 용, 호랑이, 말, 다묵화, 선묵화 등)
010-8718-6262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아주 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 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점안식, 용왕제,산신제, 시다림,구병시식
010-7264-8474

바라무, 화청 및 회심곡 강의

- 장 소 : 부산, 서울
- 시 간 : 3시간
- 수강료 : 3만원(1회)
(민재스님 직강)
010-7601-693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할 출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비구니스님과 형제처럼 마음공부하며 평생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656-811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비법 중의 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010-4658-7870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010-2991-114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1-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한국 최초로 達磨스님과 함께

선사의 칼국수집 경영 및 운영 동참할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자 격 : 비구니 스님 및 보살 고졸이상 (종단무관)
◇ 투자금 : 2천만 이상
◇ 지 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 설명회 : 조계사 옆 건물 산중다실 (일자는 추후 결정)
◇ 연락처 : 011-301-4949. 02)999-5551
051)301-4949 (개통예정)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1박스 50개 7만 5천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 .11만원

-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원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관 상 (손금)

-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암, 질병, 산소조상, 가족, 재판, 교통사고)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인체 자동 조절 건강법

건강회복반 전수반모심
기존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운 분 모심
한계의 작용을 하는 몸
일상의 작용을 하는 마음
뜻밖의 작용을 하는 꿈의 기능을 깨우는 건강법
속지않고 망하지않고 헛수고않는 건강법
마음공부가 깊으신 비구니스님께는 속성으로 전수하여 드립니다.
건강의집 꿈과 마음
대전본원 042-226-4560
부산지원 051-816-4560

탈 종 공 고

- 성 명 : 김상하
- 법 명 : 성 원
- 승적번호 : 6753
- 승려증번호 : 9-27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통명정사
- 주 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6-1 3층
- 주 지 : 의해(김무조)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사람이다.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부산
- 법당 : 25
- 요사 : 35*2동
- 총부지 10,000
- 대지 650평
- 가액: 12억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시내
- 대지 : 55평
- 법당 : 25평
- 요사 : 방2개
- 가액 : 1억 3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사찰
- 목조법당54㎡ 요사채85㎡
- 토지 10.00㎡
- 수십년된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신협 옆
- 평수 75평
- 2층건물 중 2층 독채, 시설완벽
- 삼존불, 지장전, 신중전, 삼성전
- 소불 108불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5만원
- (주차장 운영수입 45만 발생)
- 시설비 3500만원

010-7601-693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산사
- 대지 : 1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9억4천

- 위치 : 수도권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외 2채
- 가액 : 19억8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 큰 뜻으로 포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시설, 환경 특 A급 (넓은법당, 넓은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부근
- 슬라브 주택1채, 뒤에 텃밭100평, 마당100평
- 방3, 부엌, 거실, 주방, 욕실
- 약사부처님
- 광주댐가는 길목에서 보임
- 보증금 1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500만원(조정가능)

010-8207-748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1
- 3층 25평, 법당(삼존불,)방1,
- 옥상, 옥탑방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10-7139-55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유성
- 2층 45평, 시설 완벽
- 보증금 7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유동인구와 상담이 많은 곳으로 필히 철학을 하시며 포교하실 스님
- 즉시 상담 및 법회

010-4086-4956

별장같은 아늑한 포교원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 거제시 양정동 936-96번지
- 아파트밀집지역 등산로 입구
- 대지 약 270평 건물 약 40평
- 1층 법당, 공양간, 방2, 욕실2
- 2층 방1, 주차장 약 30대
- 전세 8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0만원
- 모든 비품 있으니 즉시 입주 가능

010-6393-535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찰(급) 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에서 15분
- (별내신도시인근,주차장 있음)
- 대500평, 건 147평(3개동)
- 2011년 재건축, 경관좋음
- 양도가격 : 17억 (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삼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퓐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포교원 안내

-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지하철역 도보
- 10분거리, 아파트,상가,밀집 20년 운영중
- 평수 : 4층 중 3층, 50평 옥상 사용가능
- 전세 6500만원, 즉시법회 가능
- 법당 외 방3개
- 시설: 후불탱화,불상,종,인등
- 답사 후 결정

010-3221-0476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월 77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20년 포교,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1-309-3535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직)010-3858-8335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사진 열람)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삼도 일동
- 지하 100평
- 관음, 지장, 소불 200불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2464-4579

절하면 좋은 건물

- 위치 : 경남 양산
-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부지 1120평
- 건물 200평
- 요양원, 연수원 가능
- 가액: 12억

010-8676-22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4414-03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역 약 3분거리
- 5분내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
- 4층건물 중 2층, 45평, 방3, 베란다에 주방
- 에어컨 2대. 포교, 철학, 최적지(주차장)
- (보)이천만원 : 120만원
- 시설은 보시고 이사비용 정도
- 언제든 법회가능

02)762-0108
031)541-010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3억 9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155-1948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평수 90평
- 3층, 방3개, 친견실1, 시설완벽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대세지(새로 조성)
- 전세금 2천만원 월세 無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사정상 급 양도함

010-3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혁시도시 인근
- 총평수 : 400평 (전 300, 대 100)
- 건물, 슬라브 벽돌 요사채 (방5개) 법당 (어법히 잘 모셔져 있음) 15평 산신각 3평
- 가액: 1억 9천만원 (대출금 6천) 1억 3천 양도
- 주지 소임 관계로 급히 양도함

010-3563-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30평 목조건물
- 문화재 보유
- 요사체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총양도가액 : 4억7천만원

017-725-590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삼존불, 방2, 주방시설완비,
- 텃밭 있습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법회가능
- 집세 1년 백만원
- 시설비 900만원, 약간 절충할수 있습니다
- 건강상 급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10-4582-24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맞은편)
- 앞마당 있는 아름다운 한옥
- 법당 60평
- 방4개(공양간,상담실 등)
- 보증금300만원 월40만원

011-9675-7766
010-6357-8751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미국 정신의학자)

〈3〉 힘과 위력,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자

사랑·연민·용서의 힘은 위력 굴복시킬 수 있어

power force

의식 수준의 사회적 분포

세계 인구의 에너지 수준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탑의 지붕 모양과 비슷할 것이다. 여기서 인류의 85%는 임계 수준 200이하로 측정된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 의식의 전체 평균 수준은 대략 207이다. 정상부의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개인들의 힘이 바닥 쪽에 있는 대중의 약함을 상쇄해 이 전체 평균을 달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의 4%만이 500이상의 에너지 장으로 측정된다. 600이상으로 측정되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천만 명 중 단 한 명이다.

첫눈에 이 수치는 그럴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아대륙(亞大陸)의 전체 인구가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금세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자원 결핍을 자주 동반하는 기근과 질병이 흔하다. 그런 국민 다수가 무감정 수준으로 측정되는 희망 없음의 상태에서 비참한 가난을 체념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또한 원시적 세계는 물론이고 문명화된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인구의 나머지 대다수가 일차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인류 대부분은 이런저런 형태의 안전을 추구하며 삶을 보낸다. 생활이 재량에 따른 선택지들을 허용할 정도로 생존의 명령을 초월해 있는 이들은 욕망으로 구동되는 세계 경제의 방앗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된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데서의 성공은 기껏해야 자부심으로 인도한다.

일체의 유의미한 인간 속죄는 250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데, 그 수준은 의식 진화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긍정적 인생 경험의 기초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문화적 상관관계

△200 이하의 에너지 장들은 사람들이 근근이 연명하는 극단적으로 원시적인 조건에서 가장 흔하다. 입을 것은 드물고, 문맹이 규칙이고, 영아 사망률은 높고, 질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사회적 힘은 진공이다. 이것은 동물 존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석기 문화의 수준이다.

△200대 초반의 의식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는 미숙련 노동, 초보적 기술, 나무속을 파내 만든 카누 같은 단순한 수공품 제작, 일시적 주거가 전형적이다. 의식 평균이 다소 높은 인구에서 농경이 출현하며 물물교환은 화폐 이용으로 진화해간다.

△ 200대 중반은 반숙련 노동과 결합돼 있다. 단순한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주거와 식량 경제는 믿음직스럽게 이용 가능해지게 된다. 입을 것은 넉넉하고 초등 교육이 시작된다.

△ 200대 후반은 숙련 노동, 육체 노동자, 상인, 소매업, 산업으로 대표된다. 예를 들면, 더 낮은 수준들에서 고기잡이는 개인활동이거나 부족 활동인데 200대 중반 이상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된다.

△ 300 수준에서 우리는 기술자, 숙련된 고급 기능공, 일반 관리자, 보다 정교한 기업 구조를 발견한다. 중등 교육 이수가 관습적으로 된다. TV는 이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소일거리다.

△300대 중반에서 우리는 고급 관리자, 장인, 교육자들을 발견하는데, 이들은 공적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부족과 지역 혹은 도시를 넘어 국가 전반과 국민 복지에까지 미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관심사가 된다.

△400대는 지성이 깨어나는 수준이다. 참된 문해, 고등교육, 전문직, 경영자, 과학자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낮은 수준들에서는 가정에 읽을거리가 부족하지만, 이 수준은 잡지, 정기간행물, 꽉 찬 서가를 과시한다. 400대 후반은 각 분야 지도자, 높은 사회적 명망, 성취와 결합돼 있고 어울리는 사회적 장식과 결합돼 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는 499로 측정된다. 그러나 400대는 대학과 박사학위의 수준인 반면, 한정돼 있고 그리고 한정하는 뉴턴적 우주관의 원천이자 육체와 정신의 데카르트적 분열의 원천이기도 하다(뉴턴과 데카르트 역시 499로 측정된다.)

△ 200 수준이 의식의 임계적 변화의 분기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500은 앎이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지점이다. (이는 그냥 힘이 아닌 힘의 성질 변화로 인한 것이다.)개인의 생존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동기부여가 모든 행위를 물들이기 시작하고, 창조성이 몰두와 헌신 그리고 카리스마의 표현을 동반한 채 전면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여기서는 스포츠에서 과학 연구에 이르는 인간 노력의 전 분야에서 탁월함이 일반적이다. 이타주의가 원칙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지도자의 자리는 추구되기보다는 수용된다. 이 수준에서 위대한 음악, 미술, 건축이 출현하고, 단순한 현존만으로 타인을 고양시키는 능력이 출현한다.

500대 후반에서는 영감을 불어넣는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나머지 사회에 본보기가 되며, 각 분야에서 전 인류에게 광범위한 함의를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다. 비록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여전히 결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수준에 있는 이들은 일반 대중에게 심상치 않게 보이는 일이 많고 남다름의 표식이 인지될 수도 있다. 500대 중반에서는 많은 이들이 심오한 의의를 갖는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 추구에 빠져들게 된다.

의식의 진보

비록 우리가 묘사한 수준들은 넓은 진폭을 갖지만, 개인이 한 생애에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태어날 때 측정된 개인의 에너지 장은 평균 약 5점까지 증가하는 데 그친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날 때부터 이미 발효(發效)돼 있다는 것은 심오한 함의를 갖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개념이다. 의식 자체는 인간 문명으로의 그 표현에서 정말 서서히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쳐 진화한다.



인간 의식 전체 평균 의식 수준 '207'
개인 에너지 장은 평생 5점 증가하는데 그쳐
하지만 모든 생명에 우호 · 친절 베풀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타고난 에너지 장의 변종들을 정교히 가다듬고 표현하는 데 이용한다. 비록 많은 이들이 상당한 내적 발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타고난 에너지 장 너머로 용케 이동하는 개인은 드물다. 그 이유는 사람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동기부여임을 알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동기부여는 의미에서 시작되고, 의미는 차례로 맥락의 한 표현이다. 그리하여 성취는 맥락에 종속되는데, 맥락은 동기부여와 상응하게 정렬될 때 개인의 상대적 힘을 결정한다.

생애 평균 불과 5점의 상승은 물론 통계 수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누적되는 수많은 선택이 자신의 의식 수준의 최종적 저하로 귀결된다는 불행한 사실로 하여 빚어진다. 의식이 앞선 극소수 개인들의 영향력이, 낮은 수준에 있는 인구 전체를 상쇄한다. 하지만 거꾸로 몇몇 비뚤어진 개인의 극단적 부정성은 전 문화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한 의식의 전체적 수준에 광범위한 거치적거림을 빚어낼 수 있는데, 이는 역사 속에 너무도 잘 예시돼 있다. 근육테스트는 불과 2.6%의 인구가 72%의 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 2.6%는 비정상적인 신체운동학적 극성(부정적 끌개장에는 강한 반응을 그리고 긍정적 끌개장에는 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점에 이르기조차 하는 갑작스러운 긍정적 도약은 가능하다. 만일 사람이 진실로 200이하 끌개장들의 에고 중심적 끌어당김을 피하면서 생명에 우호적인, 성실한, 친절한 용서하는 접근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마침내 타인을 향한 관대함을 일차적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실천적으로는 큰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이 한 생애에 하나의 에너지 장에서 나와 다른 에너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동기부여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힘의 측정 수준들의 진보가 로그값을 취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선택은 막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의미한 것은 힘의 수준이다. 예를 들면, 361.0과 361.1 간의 힘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일반 세계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바꿔 놓을 수 있다.

힘의 근원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학술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실용적 이해이지만, 힘과 위력에 대한 간략한 분석만으로도 일정한 철학적 결론을 즉각 도출할 수 있다.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는 더 나가기 전에 힘의 내재적 근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힘의 보다 큰 강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위력이 항상 힘에 굴복하고 마는 것은 왜인가?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 헌법은 보람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헌법은 대략 700으로 측정된다. 한 문장씩 검토해 보면 그것의 힘의 근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만인은 창조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평등하며 인권은 인간 창조에 내재돼 있고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힘 VS 위력

고찰해 보면, 우리는 힘이 의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미는 동기와 관련되고 원칙과 관련된다. 힘은 항상 생명의 의의 자체를 지지하는 거소가 결합된다. 힘은 우리가 숭고하다고 일컫는 인간 본성의 일부에 호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력은 우리가 우둔하다고 일컫는 것에 호소한다. 위력은 언제나 정당화돼야 하는 반면, 힘은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위력은 부분적인 것과 결합되고, 힘은 전체적인 것과 결합된다.

위력의 본성을 분석하면, 그것이 왜 항상 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지가 금세 분명해지게 된다. 그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 가운데 하나와 부합한다. 위력(force)은 자동적으로 저항력(counter-force)을 창조하기 때문에 위력의 효과는 정의상으로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위력이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저항을 거슬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또는 가려고 한다). 한편, 힘은 멎어 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장과 같다. 예를 들어 중력 자체는 절대로 무엇을 거슬러 움직이는 일이 없다. 중력의 힘은 모든 물체를 중력장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장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위력은 항상 저항력을 창조한다. 그것의 효과는 통일시키기보다는 분극화(分極化)한다. 분극화는 항상 갈등을 암시하며 따라서 늘 비용이 많이 든다. 위력은 분극화를 부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패의 양분을 낳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패배하기 때문에 적이 생겨난다. 항상적으로 적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력은 지속적 방어를 요한다. 시장과 정치에서든 아니면 국제 문제에서든, 방어적인 것은 변함없이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힘은 나를 강하게 하는 반면 위력은 나를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사랑, 연민, 용서를 굴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심오한 힘을 불어넣는다. 한편 복수심, 시비 분별,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게 나를 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약한 것이 끝내 강한 것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임상적 사실이다. 약한 것은 저절로 무너진다.

인간 역사 전체를 통틀어 큰 힘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을 강력한 끌개장과 온전히 정렬시킨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나타낸 힘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거듭 진술했다. 그들 모두가 힘의 근원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돌렸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언어로든, 어느 시대에든,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을 뿐이었다. 모두가 말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다. 즉, 강한 끌개장을 위해 약한 끌개장을 포기하라.

끌개장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일부 약한 패턴은 보다 강한 패턴을 (형상만을)흉내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방자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제3제국 치하의 독일 국민은 애국심을 흉내 낸 것에 기만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짜 애국심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선동가나 광신자는 모방자를 진품으로 팔려고 한다. 선동가는 그 목표를 위해 항상 많은 수사를 동원한다. 그러나 힘에서 움직이는 이들은 말할 필요가 거의 없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판미동'에서 펴낸 〈의식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 재산 보시한 공덕으로 영원한 금 받아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50)

용녀 구해준 장사꾼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남쪽 대림이라는 읍에 계셨다. 장사꾼이 여덟 마리의 소를 몰고 북방 구치국에 도착했으며, 또 어느 한 장사꾼이 함께 진흙 개펄 안에서 소를 치고 있었다.

그때 리차가 용녀(龍女) 하나를 잡아서 코를 뚫어 끌고 갔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고 이내 인자한 마음을 일으켜 리차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를 끌고 가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나는 죽여서 먹으려 하오."

장사꾼이 말했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바꾸어 가지시고 그를 놓아주십시오."

붙잡은 이가 놓아주려 하지 않으므로 점차 올라가서 여덟 마리를 다 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말했다.

"그렇다면 놓아주리다."

리차는 여덟 마리를 소를 얻은 뒤 용녀를 놓아주었다. 이때 장사꾼은 다시 생각했다.

'이 리차는 나쁜 사람이다.'

다시 쫓아와서 붙잡을까 두려워서 용녀를 따라가며 그가 향하는 곳을 살폈더니, 한 못가에 닿아서 용은 변하여 사람이 되어서는 장사꾼에게 말했다.

"장자께서는 저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으려 하니 저와 함께 용궁으로 들어 들어가십시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장사꾼은 대답했다.

"그대들의 용의 성품은 갑자기 사나워지고 성을 내는 것도 변덕이 심하여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용녀가 대답했다.

"앞사람이 나를 붙잡아 갔을 적에 나의 힘으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살(布薩)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물며 장자께서 이제 저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리하여 장사꾼은 용녀를 따라 들어갔다.

"잠시 이 안에 서 계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장사꾼은 용문 곁에 두 마리 용이 한 군데 매어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용들이 대답했다.

"이 용녀는 반 달 동안에 사흘을 재법(齋法)을 받는데, 우리 형제가 이 용녀를 수호하다가 잘못하여 리차에게 붙잡히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장자께 인자한 말을 하여 저희들을 놓아주게 하소서. 이 용녀가 만약 어떠한 음식을 잡수시겠냐고 물으면 염부제 인간들의 음식을 찾으십시오."

용녀가 정돈을 마치고 나와 장사꾼과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용녀는 보배 평상에 장사꾼을 앉히고 말했다.

"장자께서는 이제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염부제의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내 갖가지 음식을 내리므로 용녀에게 물었다.

"이 두 용들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가?"

용녀는 말했다.

"이들은 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장사꾼은 말했다.

"그대는 용들을 죽이지 마라."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그들을 놓아주어야 나는 밥을 먹겠소."

"바로 그렇게 놓아줄 순 없고 벌로 여섯 달 동안 인간 세상에 내쫓았습니다."



삽화 · 강병호

장사꾼은 물었다.

"그대는 이렇게 장엄한 데서 포살을 받는가?"

"우리 용의 법에는 다섯 가지 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냐 하면, 태어날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잠을 잘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음행을 할 때 용이 되는 것이고, 성을 낼 때 용이 되는 것이며, 하루의 반 동안 세 번을 가죽과 살이 땅에 떨어지고 뜨거운 몸을 지지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하는가?"

"저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미 사람 몸을 얻었으니, 무엇을 구해야 하겠소?"

"출가하십시오."

"누구에게 나아가서 출가해야 됩니까?"

"여래께서 지금 사위성에 계시면서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게 하십니다. 여래께 가시어 출가하십시오."

장사꾼은 돌연히 말했다.

"나는 돌아가고 싶소."

용녀는 여덟 개의 병에 든 금을 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용이 쓰는 금입니다. 부모와 권속들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용녀는 이내 신통으로 장사꾼을 본국에 데려다 놓았다. 그런데 함께 다니던 다른 장사꾼이 그가 용궁으로 들어간 사실을 그의 가족들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이미 죽으로 것으로 여겼고 권속 종친들이 한 곳에 모여 슬피 울고 있었다. 때마침 가축을 놓아먹이던 이들과 나무를 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 그를 보고 달려가 그의 집에 알렸다.

"아무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나가 집으로 그를 맞아들인 뒤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일 적에 여덟 개의 병에 든 금을 가져다 부모님께 드리면서 말했다.

"이것은 용이 주는 것으로서 끊어 내면 다시 자라나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금입니다." (〈마하승기율〉 제33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㊿



소중한 인연들

바라밀 일기

오늘은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초대되어 방송을 하고 왔다. 현대불교신문에 '바라밀 일기' 를 연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방송에 까지 나가게 됐다. 신문에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쑥스럽고 걱정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로 인해 방송에 초대까지 받게 되니 더욱 쑥스러웠다. 연재를 시작할 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지은아 아나운서가 담당 진행자여서 반가웠다.

진행자는 나의 근황과 바라밀 일기를 통해 소개되었던 나의 이야기들에 대해 물었다. 사실 나는 좋은 시절과 인연을 만나 신문에 연재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 따르며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작은 신행과 수행이 너무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 부끄럽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텐데,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어야 하는 것인데 방송을 하는 내내 쑥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독자 위해 쓴 일기 '나' 바로보게 해
'나' 를 드러내는 일 조심스럽고 어려워
추억이 '무상' 을 증명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만 아니라면 불자들끼리 서로 서로의 신행담이나 수행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기회가 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도 좋은 신행의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다.

방송이 나간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그동안 '바라밀일기' 를 애독해 주셨던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신문의 글을 쓸 때는 썼다가 고치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데, 방송은 즉석에서 말로 하게 되니 더욱 조심스러워 많이 떨렸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작은 행동과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쓴 '바라밀 일기' 가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글 쓰는 동안, 또 글을 쓰고 나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 것 같다. 또 다른 수행의 시간이었던 같다. 더욱 많은 생각을 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야말로 나에겐 '바라밀 일기' 였던 것이다. 세상을 향해 '나' 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토록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

이제 올 해도 저물어간다. 마지막 달력인 12월만이 쓸쓸히 남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저물어간다는 것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특히나 나처럼 나이를 먹은 사름들은 저물어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진실한 삶으로 후회없이 살고 다음 생을 맞고 싶다.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고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등 많은 스승님들 덕분이란 생각이다. 그 외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모님은 나의 육신을 있게 한 은혜이지만, 불법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알게 해 주신 스승님들 또한 소중한 은혜이다. 연말이다. 각자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과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추억은 무상의 증거

동해남부선 기차선로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기차를 타고 동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여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12월 1일부터는 기존의 그 길(수영에서 송정 해수욕장 까지)에서 볼 수 있었던 경치를 볼 수 없게 됐다. 그 기차를 타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래 없는 인파였다. 나와 몇몇 도반들도 그 행렬에 끼기로 했고, 오늘 다녀왔다.

오래전, 새마을호가 생기기 전에나 타 보았던 무궁화호를 타고 가까운 울산으로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 1시간 40분 거리였는데, 우린 그 옛날 처녀시절을 떠올리며 수다를 떨었다. 삶은 계란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고, 따끈한 커피를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고, 또 과일을 준비해온 사람도 있었다. 나도 준비해 간 떡과 녹차를 내놓았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추억이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기차에서 내려 제일 먼저 고래박물관엘 갔다. 학생들처럼 견학을 마친 뒤 점심을 먹고 태화강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걸었다. 대숲이 웅장하게 펼쳐진 길가엔 겨울 갈대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하얀 솜털을 날리며 서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있다. 늘 변해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추억하는 것이 결국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감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늙어가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다.

겨울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드문드문 떠있었다. 어릴 적 보았던 그 맑은 하늘과 그 구름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기억이라는 게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또한 기억이라는 게 있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추억이라는 게 무상(無常)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도 아침처럼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 오늘 만든 추억도 무상함의 증거로 남을 것을 생각하니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소중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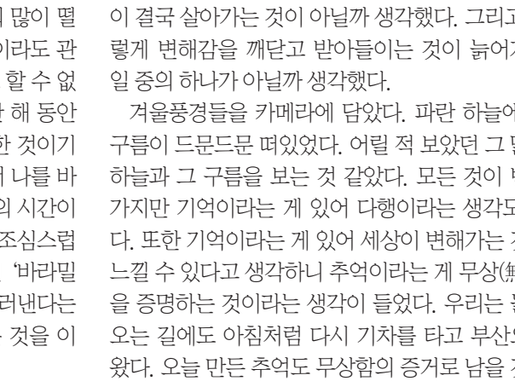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보 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대행 스님

남이 잘하고 못하는 거 그냥 보는 대로 주워넣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옛날에는 당나귀 끌고 다니던 마부가 많이 있었죠. 당나귀를 끌고 다니는 마부가 얼마나 때리고 일을 부려먹었는지 당나귀가 앙심을 먹고 죽어서 그냥 남편으로 태어나고 마부를 부인으로 해서 맞아들였어요. 하하하…. 그래 가지고는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야 함부로 이혼도 못하고 시집도 마음대로 못 갔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고,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요. 아, 이러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러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저는 하나 성한 데가 없이 이렇게 매를 맞고 삽니다." 하니까 껄껄껄 그 스님이 웃으시면서 "한때는 자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때렸네." 그러더랍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해 주면서 "먼저 맞은 놈은 지금 그렇게 때리고 가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어떡할 수가 없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인과로 인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때린 대로 맞아야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죽을 때까지 맞아도 안돼. 그러니까 돗자리를 도르르 말아서 아주 고무줄로 창창 둘러매 가지고 손싸게 쥐고서 때리게끔, 다른 건 다 치우고 그렇게 몇 번만 하라. 그러면 당신이 그 당나귀를 그렇게 피가 맺히도록 때린 것이 다 없어지노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르르 말아서 그렇게 해 봤는데 아, 몇 번 그렇게 때리고 나더니만 다시 깨어나서 하는 소리가 "자네를 왜 내가 그렇게 만날 때렸지?" 이러더랍니다. 하하하…. "이상하잖아. 왜 내가 그렇게 때렸지?" 그때서야 몸뚱이를 보고서 "아휴, 자네 몸뚱이를 보니까 그냥 성한 데 하나 없이 멍이 들고 피가 맺혔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면서 정신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해 볼 수 없는 끼리끼리의 만남입니다. 이거를 곧이듣지 않으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곧이들으셔야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나는 한마디도 한데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 법회 때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한마음 법형제회에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큰스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문이 많아 문이 없고, 문이 없어 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점의 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제각각 맛을 말하듯이, 서울로 오는 길은 동서남북 많지만 마지막 안방 문은 하나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질문치고는 대답을 아주 가까운 데 두고 찾으시는군요. '문이 없어 문을 찾지 못하고, 문이 많아서 문을 찾지 못하고' 하는 소리는 우리 자체가…. 이걸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이라 딴 데서 문을 찾아서는 아니 되죠. 내 마음의 문이란 천궁(天宮)을 통하는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란 천궁을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문이 많아도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서 문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디에 문이 있는가? 바로 내 빗장문을 열어야 열리는 거지, 내 빗장문을 열지 않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답이 알쏭달쏭합니까? 허허허….

질문자1(남): 일체 생명은 자신을 위하여 이 생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대중을 위하여 이 생에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생각은 편견에 치우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대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씨가 날려서 땅에 묻히기만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태양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누가 낳고자 해서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의 씨앗이죠. 그냥 사랑하면 나오는 거죠. 사랑을 했다 하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씨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아시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 안에서 문 바깥으로 나온 거죠.

질문자1(남):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법문 중 '오백 명의 아들, 오백 년을 여우의 몸을 받아…, 오백 나한, 오백 년 후 다시 이곳에서 만날 때….' 등으로 많은 말씀에서 '오백'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오백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오백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 전체 한자리에 무정물이든지 생물이든지, 어떠한 생명체든지 다 있는 것을 오백 자리라고 해도 됩니다. 오백이라는 것은 허공, 전체를 오(五)라고 해도 되고, 백(百)이라는 것은 모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백이라고 했습니다. 무(無)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백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해서는 뜻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대답 하나 잘못해서 오백 년을 여우로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그 말대답을 다시 듣고야 여우의 모습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백 년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저께 여우가 됐다가 오늘 사람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가 불과 몇 시간이든 1초든, 3초든 간에 오백 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이 돌아가는 도리를 아셔야 그 도리를 모두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마음, 자유스럽게 내가 벗어나는 마음을 갖는다면 벗어날 것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자유스럽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자유스럽습니다. 숫자는 사람들이 질서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생긴 거지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숫자가 거기서 나오나? '너 몇 번 돌아갔니?' 이럴 수나 있습니까? 몇 번 돌아갔니? 허, 몇백 번이 되니? 몇천 번이 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말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한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모든 것을, 태양열을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살 수가 없죠. 공기층이 높아질수록 추워지죠? 대기권을 벗어난다 하는 것도 이게 물로 싸여져 있기 때문에 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물뿐이 아니죠. 네 가지가 합동이 돼야만이 그 모든 게 자유스럽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 속에서 자유스럽게 사는 게 그대로 참선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게 딴 걸로 화할 수 있으니까요. 과학도 그래서 벌어진 거니까요.

질문자1(남): 네. 고맙습니다. 또 진정한 보시와 인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연을 맺는다고 맺는 것인지, 또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요?

큰스님: 하하하…. 끝까지 왜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도 지나가다가 한 번 "어, 만났어?" 그러고 악수 한번 하고 지나가는 폭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수 한번 했다고 거기에다가 집착을 한다면 그거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겸손하고 의리 있고 도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 나가세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질문자1(남):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다는 사람한테서 말과 행동과 모습이 어떤 경계에 부딪쳤을 때 걷잡을 수 없이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도 가르치기 위함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큰스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옆눈을 팔지 마라. 옆을 보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지내 봤습니다마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옆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를 개의치 마라.' 이겁니다. 왜냐? 옆에서 잘못하는 거를 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전자에 몰랐을 때 바로 내 모습이었다.' 하고 안에다 놓아 버리세요. 이것이 그냥 억지 소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못났을 때 그 모습, 잘났을 때 그 모습, 못했을 때 그 모습, 형편없는 그 모습이 모두 자기가 거쳐 올라온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모든 걸 놓고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 아니야?' 한다면 그쪽도 바뀌집니다. 바뀌져요, 예.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게 바뀌져야지, 말로 육신으로 해서는 외려 더 업을 짓는 거지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놓고 가야만이 다 버려서 다 얻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된 것 보이고 저거 잘못된 것 보이고 이러다가는 언제 그 길을 갑니까? 언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그냥 한 바다가 되죠.

질문자2(남):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다가 번쩍 눈을 떴는데 '난수불화' 라고 해서 내 자신의 자성(自性)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깨어나고서도 몇 시간 동안 아무리 그 뜻을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주인공 자리에다 놓아 가고 그 외에도 내게 부딪쳐 오는 경계를 전부 놓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이게 자생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난수불화라는 그 말을 '주인공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하고 지금도 놓아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자생화두를 들었을 때 그게 자생화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이게 자생화두라면 자성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 자생화두를 때때로 놓아 가도 될는지요? 그게 궁금해서….

큰스님: 그냥 믿으면 믿었지, 왜 자생화두라는 이름을 또 짓습니까? 이름이 많은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인데, 그 자생화두라는 것을, 왜 화두라는 이름을 또 붙여요?

> 집착을 하지 마시고
> 그대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 겸손하고 의리있고 도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 나가세요.

그것은 '자기 낳기 이전 자기'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응이 됐을 때도 겨우 그 소리를 하나 들었을 뿐이니, 그것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놓으십시오. 그 놓고 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데 그 근본은 움죽거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움죽거리지 않는 데서 돌아가면서 조금 나온 것을 또 이름을 지어서 거기 붙이지 마세요. 그대로 생활 자체가 화두니까. 내 몸뚱이가 돌아가는 게 그냥 화두예요.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主人), 공(空)'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탁기 중심에다 심봉을 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에 꽂힌 그 심봉 자체는 하나도 움죽거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만 돌려요. 돌아가는 것만 돌리면서 그 심봉 자체는 힘만 주고 있지 꼼짝도 안 합니다. 더한다, 덜한다, 움죽거린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자체로 인해 한번 퍼뜩 그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름도 쓰지 마세요. 상대를 놓고 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파도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인공, 나를 낫게 해 줘.' 이럭한다면 안 되죠. 낫게 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죠? 제 몸뚱이 제가 끌고 가는데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누가 합니까, 그거? 그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둘이 아닌 도리도 알게 되고 자기, 즉 불생불멸하는 그 자성불(自性佛)도 발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또 잔뜩 쥐고 있지 마세요.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이 근본만 쥐고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냥 '아, 감사하구나. 내 몸뚱이에 있는 내 육근(六根)을 다 이렇게 다스리면서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참 감사하구나.' 그러고 그 자리에 다시 놔요. 그냥 그걸 한껏 붙들고 있으면 돌아가던 게 움죽거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놔 놓고, 연방 연방….

질문자2(남):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저는 질문은 없고요. 인연 따라 큰스님 법문을 딱 접하고 보니까 저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인물이 전부 싹 바뀌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늘…. 밤에도 책을 많이 보고, 보다가도 생각나면 덮어 놓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예, 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심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책이 그렇게 좋아도 책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예? 아무리 금덩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기 싫은 때가 있어요. 싫은 때는 싫은 겁니다. 그것도 바로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덮어 놨다가 보고 싶을 때 또 보세요. 때에 따라서 '이것 좀 봐야지.' 하고 볼 때는 거기에 심취가 되고, 마음에 와 닿는 게 있고 그러면 또 그 책을 떼어 놓기가 싫죠. 그럴 때는 또 그대로 떼어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시란 얘기죠. 자유스럽게 사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누구를, 어느 스님을 만나든, 어느 잘 아는 분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험하시고 그렇게 체험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잘하십니다.

질문자4(남): 저는 소원하는 것하고, 한마음 관(觀)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일반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원을 할 때 원하는 게 한마음을 관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안될 때는 안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고, 요즈음 절에 가면 입시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빕니다. 스님들께서 시켜서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안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뜻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고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해 달라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만약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올 뿐이지 거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게 붙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일체가 다 공해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일체가 너 아님이 없느니라. 일체가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다가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도 도량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해 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농사를 지어서 벼를 다 추려서 까서 키질을 해서 밥을 지어서 먹어야 먹어지는 거지마는 그거는 한 씨앗에서 그 모든 경계를 거쳐 나오는 것뿐이지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붙이면 붙어지고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애고가 있고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도 있는데, 기도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자성이 다 있으니까 그 자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정신계 50%를 알고 물질계 50%로 나오게 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다 이럴 때, '생각을 했다' 할 때는 벌써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집이 올라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고 어디에다 해 달라고 자꾸 기도만 한다면, 그러는 것도 마음내는 거지만, 그거는 쪽박에 물 한 모금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복을 비는 건데, 복을 좀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마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타개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명석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는 노예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4(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부모가 이런 데를 다니면,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도 관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줘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만이 할 수 있지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시험을 봐 주는 겁니까? 신(神)이 있어서, 신이 와서 나를 시험을 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自己神)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앞서 어떻게 살았든 그 입력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 마음으로 입력을 해서 입력이 되면 되는 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도력을 기르십시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도지, 어디 뭐 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생활 자체가, 우리 세상이 돌아가고 사는 자체가 바로 종교고 불교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2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숙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 세상보기

'만델라의 정신' 실천해야 진정한 추도



석 길 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흑백 화합을 이루어낸 인권의 전도사,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대통령.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와 그의 삶을 되짚어내는 언구들이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지배 사회에서 지배당하는 흑인이었다. 하지만 지배당하는 흑인으로서 그의 저항은 백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흑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1964년 내란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넬슨 만델라가 법정 최후 진술 중에 한 다음 말은 그의 삶이 추구했던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백인 지배에 저항하여 싸웠고, 흑인 지배에 저항하여 싸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되었든, 그것이 사회구조적 폭력에 억압당하고 희생당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가 그의 목표였다. 수감으로부터 풀려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의 삶을 억압했던 이들에 대한 복수의 반전과 같은 통속적인 드라마를 그는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억압했던 이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로, 흑인 지배도 백인 지배도 사라진 세상 만들기에 주력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흑백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그 차별로 인해 초래될 삶의 억압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서구/비서구, 백인/비백인, 제국/식민지, 자본주의/사회주의, 진보/보수, 가진 자/가지지 못한 자, 자본가/노동자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차별에 대한 저항,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종류의 차별 때문에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억압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하는 세상을 향한 열정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 그의 삶을 되새기고 추모하려는 세계인의 관심이 그의 추도식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고, 또 그의 삶은 세계인의 추모를 받을 만큼 넘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차별(지배)했던 자들과 차별(지배)당했던 이들의 과거 역사를, 용서와 화해에 의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오늘의 역사로 일구어 냈던 그를 향한 조문행렬과 조문사들을 보자면 마뜩치 않은 장면들도 역시 적지 않다.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반미투쟁의 대표자인 쿠바의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가, 그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악수를 나누었다. 예기치 않아서 어정쩡할 수밖에 없었을 두 사람의 당황스러움, 두 사람에게는 어색한 잠깐이었겠지만 만델라의 삶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만해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장면이기도 하다.

화면에 잘 비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나루히토 왕세자 역시 조문행렬에 동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분 나루히토 왕세자는 만델라가 지난날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난날의 수탈자와 수탈당한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낸 화합의 정치가라는 사실을 알고 참석한 것이었을까? 용서와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계가 반성과 참회를 요구해도 여전히 지난날의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몰염치한 일본의 역사관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그는, 글쎄 어떤 생각으로 조문행렬에 끼였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무미건조한 애도성명. 넬슨 만델라는 자신의 부족말로 '마디바(Madiba)' 곧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린다.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세계인의 마디바였던 이에게 던져진 대통령의 애도성명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의 삶을 추구했던 마디바 만델라의 삶과 생각에는 별 감흥이 없었기에 그 정도로 끝냈던 것일까?

차별을 넘어, 누구나 맘껏 자신의 삶을 누리고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세상! 어떤 이들은 꿈꾸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소통의 기준이, 화해와 용서의 기준이 우리는 모르는 어떤 것일까?

사부대중 칼럼

진부 정차역이 '월정사역' 돼야하는 이유



김 남 일
평창시니어클럽 관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평창지역은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한껏 고조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노력과,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곳 평창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 소득원이었던 2차 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창에서 대안으로 택한 지역발전 전략은 지속가능 · 녹색산업으로서 지역청정 농림업과, 문화관광 및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다. 특히 이런 점에서 평창의 이미지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우수한 자연경관 속 청정 · 힐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대산과 월정사가 평창의 핵심 아이콘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금 평창에서는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그리고 그 노선은 원주에서부터 평창을 지나 진부, 대관령, 강릉으로 연결되며, 오대산 월정사 인근지역에도(진부면)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평창 및 오대산권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이미지를 역명으로 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대산 월정사는 1,400년 가까이 된 불교도량으로서,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볼 때,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과 삶을 함께 해 오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최고 청정생태자원 오대산과,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이곳 월정사가 지역의 역사 · 문화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진 사실이다.

이곳 평창군 진부지역에 만들어질 철도역 명칭이 '월정사역'으로 명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지역발전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월정사역 명명은 지역경제구조 증대 및 지역 소득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평창지역 발전전략 추진의 핵심공간인 월정사는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재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및 문화지역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즉, 장소마케팅 및 관광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평창스토리의 양대 산맥인 문학과 불교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힐링지역 오대산의 지역산업 활용성을 높이는데 월정사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올림픽개최지 중심의 스토리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월정사 이미지가 더해져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월정사역 명명은 지역화합 및 지역 간 소통에 기여할 것이다. 월정사는 예부터 지역교류와 소통의 공간적 중심지였다. 월정사가 지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기능은 다른 명칭을 사용할 때 보다 더욱 큰 역할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지역정체성 중심코드 확립 및 확보를 통해 지속적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발전 견인차로서의 핵심콘텐츠인 월정사의 효과를 의미한다. 월정사는 예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오대산권역 생활구조의 핵심거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중추적 기반으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능은 더욱 강화 지속될 것이다. 오대산, 동계올림픽, , 오대산불교문화축전, 고령지, 한강시원제, 국립공원 선정의 힐링로드오대산 옛길, 눈꽃축제, 송어축제, 황병산, 대관령 등의 핵심공간에 있는 '월정사역'의 명명은 이들 요소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이는 월정사가 지닌 역사 · 문화적 역량과 지역 내의 인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월정사역 명명은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꿈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계올림픽의 문화중심공간으로 오대산 월정사가 있고, 월정사역 명명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이미지 상승효과를 극대화시켜줄 것이며, 지역발전 핵심 공간으로서 월정사 중심권역이 매우 중요한 아이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명칭부여가 지니는 힘(효과)은 매우 크다. 명칭부여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월정사역' 명명은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社說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정책 환영한다

서울시가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과 역사문화 자원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종로 조계사 안심당에서 '서울지역 전통사찰 주지스님 간담회'를 열고 4대 추진과제와 19개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4대 추진과제로는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 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실제 세부 역점사업들을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계획들이 적지 않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사찰 주간(WEEK)이다. 이를 위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전통사찰 보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전통사찰 오픈하우스와 권역별 · 주제별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사찰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보 코스 개발 △사찰음식 · 다례 체험기회 확대 △템플스테이 활성화 △견지동 일대 전통사찰 종합문화공간 구축 △서울시 사찰 고유축제 활성화 등 사업계획은 주목할만 하다.

전통사찰 시설 정비와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서울시는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볼 때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 사업에 서울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불교계 역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 이행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해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처럼 발표된 전통문화보존?활용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와 종단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연말 시상식서 종교색 표출 자제하자

이제 곧 있으면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종 시상식이 열린다. 주로 공중파 방송에서는 연기자, 코미디언, 가수, 영화배우 등을 시상하는 행사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다보면 가끔 시상식에서 수감 소감을 말할 때 자신의 종교색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벼운 정도야 수긍이 가지만 그 정도가 심해 불편함을 넘어 거북함까지 느끼는 사례도 많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야 더없이 신심이 나겠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눈살이 찌푸려 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종평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 9개 프로그램에서 전체 수상자 177명 중 34명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발언했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올해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말 시상식 방송에서 수상자들의 종교적 신념 표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를 해달라고 공영방송 KBS, MBC, SBS 3사에 요청했다. 종교평화위는 12월 10일 발송한 공문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일 것"이라며 "공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어 표출하는 것은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과 제 6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조항을 근거로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쟁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화합에 기여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꼭 대중들 앞에 표출시키지 않아도 행동으로 조용히 보여주는게 참 종교인의 자세일 것이다. 즐거운 축제의 장인 시상식에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바른정법을 행할 때만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

당신은 길에서 중병, 신병, 시한부 등.....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길을 떠난 3명의 나그네가 있었다. 한참을 길을 가다 첫 번째 나그네가 내려야 할 곳에 이르게 되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는 평생 헐벗고 굶주림을 참아가며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살만하게 되자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내리게 되니 사람들이 안됐다고.....
불쌍하다며..... 혀를 차는 가운데 다시 여행은 시작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나그네가 내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좋은 글과 좋은 말과, 좋은 언설로 우리와 함께 했던 그가 내리게 되자 아쉬워하는 겁니다.

또 다시 여행은 시작됐고, 이번에는 세 번째 나그네가 내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그가 우리 곁에서 좀 더 머물다 내리기를 아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행 중에 항상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든 이들을 위해 보살피며 치료도 해 주고, 병도 치유케 해 주었던 겁니다. (고 이태석 신부처럼)

당신은 어느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직도 말과 화두를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글 잘 쓰는 이와 말 잘하는 이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썩은 고목이 되기 전에 입은 굳게 다물고, 행원보살로써 걸어갑시다.

1.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일이 안된 사내아이의 목에 손가락 한마디만 한 혹이 있어 수술 3일전 절에 들러 스님 기도를 단 한번 받고, 그 다음날 입원하여 의사가 확인해 보니 혹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원이 생겨있고, 그 원 속에 점이 3개 있었음 (서울 홍제동)

2. 결혼 4년차에 겨우 임신은 했으나 자궁에 큰 혹과 목에 갑상선이 발견되어 병원과 상의하던 중, 스님이 서울 와서 단 한 번의 기도로 자궁내의 혹과 갑상선이 사라지고 없었음.
자궁내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서 얼마 전에 출산했음 (서울 목동)

3. 일산 백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두 번째 아이 출산을 20여일 앞둔 산모가 뱃속에 이상이 생겨 10 여일 동안 고통이 너무 심해 진통제 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그 당시 뱃속의 아이를 포기해야 될 상태였음) 그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스님 기도로 다음날 무사히 퇴원하여 지금 그 당시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음 (김포)

4.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입원, 퇴원을 2년 넘게 반복하면서 결국엔 4군데(자궁, 간, 폐, 유방)로 전이되자 병원은 급기야 이제는 힘들다고 하니 그 형제들이 스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는 3일 받고, 21일 만에 병원에 가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함.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길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함. 왜냐면 병원가면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소문 내지 말라."고 스님께서 일렀기 때문에..... (양평 양수리)

5. 대구에서 비구니 스님이 몸이 많이 아파 찾아 왔길래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지."하니 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릴적 감전사를 당했는데, 그 때 이후로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참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길래 .....
"그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여 주고, 불자님 입회하에 스님이 경을 읽으며 기도해 주자, 혼자 간질환자처럼 뒹굴면서 "스님이 하는 염불을 어린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3분 정도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듯이 일어나서는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해 공양주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럴 필요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 시간 이후 재현되지 않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조사어록만을 지도 삼아 옆눈 팔지 말고 가면 된다고 일러 보냈다. 소승은 공양주나 부전을 두고 수행하지 않는다.
(지금 그 비구니스님은 대구 근교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다)

6. 혼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그래도 계속 자살의 끈을 놓지 않는 이가 있어 지인의 소개로 그 집을 방문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눈을 보고는 바로 기도를 5분가량 해주고 내일 새벽에 절에 데리고 오라 하여 다음날 새벽에 한번 기도 후 그는 지금까지 웃는 모습으로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본인 왈, 스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가슴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면서 "네가 뭔데..."라는 소리가 생각으로 나오며, 이마에 대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순간 동시에 "내가 스님한테 왜 이러지."하는데 바로 그 때 올라오던 화가 내려가면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함. 끝나고 물으니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2-3달 약물치료 받아야 한다고..... (거제)

7. 2년전 사찰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병고로 삶의 희망을 잃은 이가 절집으로 찾아왔다. 몸이 안 아픈데가 없다며,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것 없이 다니다가 얼마 전 서울대병원 까지 갔었고, 거기서도 약만 잔뜩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잘 왔다고 얘기하며 긴 시간 동안 복용한 약을 이 시간부터 끊겠다면 기도를 해주겠다고 설득한 후, 새벽기도 동참자들과 더불어 한번 기도받고 난 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있다. 그때 기도 전 날 살던 곳을 찾아 병원 약을 정리해 보니 큰 쇼핑 백으로 2개가 가득히 차 있었다. (거제)

8.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시 그는 갓 입대한 군인이었는데, 근무중에 자꾸 힘이 빠져 쓰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의가사제대 시킬 요량으로 5일의 휴가를 주면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왔다는 것이다. 입대 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잦아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음날 새벽에 데리고 오라 하여 새벽예불시 불자들 입회하에 한번 기도로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2012년 초파일쯤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금은 유학길에 올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부산)

9. 오래전 알 만한 대선사 지도하에 선 수련을 오래하였던 83세된 노보살님이 교통사고와 계단에서 뒤로 떨어져 대퇴부를 크게 다쳐 팔, 다리를 못 쓸 뿐만 아니라 아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그날 석, 박사과정을 모두 마친 나의 도반과 또 다른 동행인이 같이 집을 찾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병문안을 여쭙고는 일행들에게는 각각 주문과 경을 독송케 하고, 노보살님한테는 입은 다물고 일념으로 무엇을 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5분도 채 되기 전에 환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큰 원을 그리면서 합장을 하고는 그 손으로 대퇴부를 주무르는 것이다.
그러기를 십 여분 하고는 기도를 마치자, 도반이 묻는다.
"아니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팔을 들어 원을 그리고 합장 후에 그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졌느냐?"고 묻자, 보살 왈 "스님이 기도하자, 갑자기 전기가 온 몸에 흐르듯이 찌릿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그 쪽으로 가서 주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바른 수행을 하셨던 분들은 능례. 소례자 간에 쉽게 교감이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자녀중에 대학원까지 마친 조계종 스님이 한 분 있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본 도량에서 학장 소임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신으로 인한 신병 같은 경우는 그 자의 눈을 보고 몸에 접신된 자가 꼭 몇 살 때 죽은 남자, 여자, 몇 명인지 까지를 직관을 통해 단번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야 상대를 퇴치할 수 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은 1초면 충분하다.

그리고 난 후, 그를 보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이들은 되도록 돈이 들지 않는 기도를 시키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하게 하여 천도재를 지내주고 있다.

법력에서 생기는 직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천도시킬 수 없다.

이외에도 이미 오래 전에 인연이 되어 백혈병, 희귀병 등을 앓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며, 단 병원에서 1%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받아준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한 -- 건축불사는 관심 없고, 교육불사만 고집하여 일체의 정법만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조사께서 극구 만류하신 비불교적 행위인 사주, 관상,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방생(어류, 조류), 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도, 사업번창 기도, 돈 액수에 따른 큰 등, 작은 등, 인등,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은 일체 사절 하고 있으며, 방생도 물고기, 조류가 아닌 인간방생을 장려하고 있고, 성지순례 등은 철저히 배제하며, 다만 그 비용으로 수술비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적 쓸 일, 삼재풀이 할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좋은 일 생길꺼라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가피는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는 불보살님의 힘을 입기 보다는 주인공이 권능을 갖기 위해 꼭 경전의 말씀대로 바른 실천할 때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자 여러분!
무슨 영험 도량, 신통 도량 등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코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 연락주시거나 왕림하시면 당사자의 연락처와 그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꼭 병원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장난전화와 호기심에 하는 전화는 일체 사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방송국에 제보가 되어 TV 출연할 수도 있었으나, 소승이 수행에만 몰두코자 사양하였음. (소승은 술,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은 일체 먹지도 않음.)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

* 많은 글을 쓰고 싶으나, 재정 관계상 이 지면밖에 허락이 안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글을 쓸 날이 있겠지요.